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37621

2009년 2월
교육학석사(국어교육)학위논문

서사표현능력 발달단계 연구

-초 · 중등학생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추 효 정

서사표현능력 발달단계 연구

-초 · 중등학생을 중심으로-

A Study on Developmental Stage of narrative Expressive Ability

2008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추 효 정

서사표현능력 발달단계 연구

-초 · 중등학생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김 혜 영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국어교육) 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08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추 효 정

< 목 차 >

ABSTRACT

Ⅰ. 서론……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1

2. 연구사 검토……3

Ⅱ. 이론적 배경 ……9

1. 서사표현능력의 성격……9

2. 서사표현능력의 구성 요소……11

Ⅲ. 연구방법 ……15

1. 검사도구……15

2. 검사대상……16

3. 연구절차……16

4. 자료 분석방법 ……17

Ⅳ. 연구 결과 ……17

1. 자료 A 서사표현능력 분석 ……17

2. 자료 B 서사표현능력 분석 ……36

3. 자료 A와 B의 서사표현능력 분석 ……66

Ⅴ. 결론 및 논의……74

※참고문헌 ……79

※부록…… 81

초 록

서사표현능력 발달을 위계화하려는 기존의 논의가 다른 연구자가 설계한 이론을 증명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이 논문은 현상적인 문제로부터 출발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기존의 논의에서는 학습자의 개별적 서사물이 일반적인 이론을 증명하는 도구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 이와 함께 인간의 발달단계별로 서사능력이 발전해야한다는 전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점도 논의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전제 때문에 서사표현능력 발달의 단계는 유아에서 아동, 청소년으로 발전해 간다는 도식에서 크게 벗어난 논의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서사물에서 발견되는 학년별 특징에 주목하여 서사표현능력의 발달단계를 설정하고자 한다.

광주광역시의 초등학교 3학년 40명(남학생:20 여학생:20명)과 5학년 40명, 중학교 1학년 77명(남학생:39명, 여학생:38명), 고등학교 2학년 80명(남학생:40명, 여학생:40명) 총 235명을 대상으로 서사표현능력의 발달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3학년 9세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대체로 인물의 성격이 드러나지 않고, 행동자체의 일관성은 있지만 성격과 일치하지는 않는 양상을 보였다. 인물 사이 관계 설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사건과 관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았다. 중심사건이 없는 경우 58%, 중심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우연적인 것이 74%로 대부분 서사가 인과성을 갖지 못하였다. 사건 구성의 측면에서 50%에 해당하는 서사가 처음-중간-끝이 구조화되지 않았고, 시간적 순서에 의한 서술이 47%에 해당한다. 사건전개가 주제와 별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50%, 서술 시점이 일관되게 나타난 경우는 84%, 표현의 측면에서 서술어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42%, 서술만으로 이야기를 구성하는 경우가 58%에 해당했다.

초등학교 5학년, 12세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인물의 성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고 인물의 행동에 일관성 없거나 행동과 성격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인물관계가 사건과 연계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중심사건이 없는 경우도 종종 나타났다. 중심사건을 구성하는 데 있어 우연성에 의존하는 빈도가 높게 나타났고, 사건의 전개가 시간적 순서에 따라 구성되는 경향을 보였다. 사건을 전개하는 데 있어 주제와의 관련성을 살리지 못한 경우도 49%, 사건이 주제와 별개로 진행된 경우도 39%에 달했다. 서술시점은 대부분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고 있었고 표현방식 면에서 서술로만 서사를 전개한 경우가 84%로 초등학교 3학년에 비해 늘어난 경향을 보였다.

중학교 1학년 14세에 해당하는 학생들 역시 인물의 성격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으며 인물 행동의 일관성 측면에서 초등학교 5학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행동자체의 일관성이 있는 경우가 60%, 인물 사이 관계 사건과 연결된 경우 72%, 중심사건이 잘 드러나는 경우 67%, 중심사건이 우연적으로 제시된 경우가 56%로 나타났다. 사건의 구성이 주로 시간적 순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건 전개를 주제를 드러내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서술시점은 일관성을 보이고 있으며 표현 방식에 있어서는 서술로만 이야기를 전개하는 경향을 보인다.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인물의 성격은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인물의 행동은 일관성을 보인다. 인물간의 관계가 사건과 연계되어 있으며 중심사건이 구체적 개연성을 갖고 제시되고 있다. 사건 구성이 시간적 순서나 논리적 인과관계에 의해 이루어지고, 사건 전개가 주제를 잘 드러내는 경우가 50%, 서술 시점이 일관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9%는 시점을 서술의 상황에 따라 시점을 활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현 방식으로 서술과 묘사를 적절히 사용하여 표현의 유창성을 보였다. 이러한 서사표현능력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 단계를 특성별로 위계화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초등학교 3학년은 다른 학년에 비해서 주어진 조건, 예를 들면 배경과 인물의 특징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초등학교 3학년은 주어진 정보 안에서 이야기를 서술하려는 경향이 높으며, 사건보다는 인물을 특징화하는 것을 통해 이야기를 구성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인물의 성격에 인식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으로 보아 이 단계를 “조건 충실기-인물 초점화 단계”라고 본다.

초등학교 5학년은 사건의 발생이 사람들의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피아제는 이 시기의 아동을 구체적 조작기라고 정의하며, 그 특징으로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사회성을 인식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초등학교 5학년 학습자가 보여준 서사표현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곧 인물들 사이의 관계에서 사건이 발생한다고 보는 시각은 인간 관계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인식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에 비추어 이 단계를 “관계 중심기-사건 구체화 단계”로 부른다.

중학교 1학년은 서사를 전개하는 데에 있어 인물의 성격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성격과 행동의 일관성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에릭슨에 의하면 이 시기는 자아정체감 대 역할혼란기로 정의된다. 자아 정체감이란 자기 자신의 독특성에 대한 비교적 안정된 느낌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며 타인이 자신을 보는 방식과 자기 자신의 인식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중학교 1학년의 서사표현의 특징 또한 이 시기의 발달적 특징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이 단계를 “자아형성기 -인물 개성화 단계” 자아의 성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등학교 1학년은 서사표현에 있어 사건 전개의 개연성을 부여하는 경향을 보인다. 개연성 있는 사건전개를 통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논리적 사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과 연관될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5학년에서 보인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인식이 심화되어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볼 때 이 단계를 "사회성 심화기- 주제 서사화 단계"라고 부르고자 한다.

이상에서 논의한 서사표현능력의 발달단계를 위계화하면 다음과 같다.

학년	인지 발달단계	서사표현능력발달단계
초등학교 3학년	조건 충실기	인물 초점화 단계
초등학교 5학년	관계 중심기	사건 구체화 단계
중학교 1학년	자아 형성기	인물 개성화 단계
고등학교 1학년	사회성 심화기	주제 서사화 단계

ABSTRACT

A Study on Developmental Stages of Narrative Expressive Ability

-Centering o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Students-

Hyo-Jeong chu

Advisor : Professor. Hye-Yeong Kim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While previous studies on gradation of narrative expressive ability focused on demonstration of the theories developed by other researchers, this study focuses on phenomenal matter. In previous studies, individual narratives of learners worked as a means to demonstrate general theories. And they stuck to its assumption that narrative ability should be developed according to human developmental stages. Because of such assumption, most of the previous studies focused on the paradigm that narrative expressive ability develops in the following stages: infants, children and adolescents. This study sets the developmental stage of narrative expressive ability, focusing on characteristics of school year found in narratives of learners.

To analyse the development of narrative expressive ability, it targeted a total of 253 students in Gwangju city as follows: 40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grade 3(20 boys and 20 girls), 40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grade 5, 77 secondary school students in grade 1(39 boys and 38 girls), 80 high school students in grade 2(40 boys and 40 girls) and the results are presented as follows: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grade 3 and aged 9 were not able to describe personality of characters effectively. The personality was

consistent, but was not matched with characters. The relationship between characters, and happenings were vague. 58% of narratives had no central plot, and 74% had accidental causes of the happenings. Most of the narration did not have causality. In an aspect of happening composition, 50% had no structure of beginning-body-end, and 47% described in chronological order. 50% had separate development of happenings and themes, and 84% had consistent point of view. In an aspect of expression, 42% had improper use of predicates and 58% used narrative alone to compose stories.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grade 5 and aged 12 did not describe personality of characters specifically and there was no consistency in behaviors of characters or behaviors of characters were not matched with their personality. In most of the narratives, personal relationship was involved in happenings, and some of them had no central plot. In composing central happenings, they frequently depended on accidents and the plot was developed in chronological order. 49% did not have connection between themes and happenings, and 39% had separate progress of themes and happenings. Most of the subjects used the omniscient narrator's point of view and in expressive methods, 84% used more narration alone to develop narratives than those in grade 3.

Narratives by secondary school students in grade 1 and aged 14 did not show personality of characters specifically either and had little consistency in behaviors of characters, which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grade 5. 60% had consistency in behaviors, 72% had connections between personal relationship and happenings, 67% had definite central happenings, 56% presented central happenings accidentally. Most of the narratives were developed in chronological order where themes were revealed through development of happenings. The points of view were consistent and the subjects used narration alone to make stories.

Narratives presented by the high school students in grade 1 did not show personality of characters, but had consistency in their behaviors. The personal relationship was connected with happenings, and the central happenings were presented with specific probability. Happenings were

presented in chronological order or through logical cause and effects. 50% had clear presentation of themes through development of happenings, most of the narratives had consistent point of view and 9% used points of view according to situations of narration. They had fluency of expression by using narration and description properly. Based on the results of analysing narrative expressive ability, development is graded according to feature of each stage:

First,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grade 3 reacted sensitively to given conditions, for example, features of background and characters. They tended to compose stories within given information and through characterization of characters rather than happenings. They were very sensitive to personality of characters.

In consideration of this tendency, this stage is referred to as " condition faithfulness period- a stage of character focalizati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grade 5 tended to remarkably perceive that happenings occur in personal relationship. Piaget defined children in this period as under concrete operational period, and said that they tended to perceive sociality beyond egocentrism. The narrative expression presented by the subjects can be also understood in such context. That is, the view that happenings occurs in personal relationship can be derived from the fact that they perceived the importance and influence of personal relationship. So this stage is referred to as “relationship centered period-a stage of happening specification.”

Secondary school students in grade 1 considered personality of characters in developing narratives as important and tended to pursue consistency between personality and behaviors. According to Erikson, this period is defined as the period of self identity vs role turmoil period. To have self-identity means that they know who they are with relatively stable feeling on their distinctiveness and are consistent in others' view on them and their perception on themselves. This period is assumed to be related with " ego-forming period- a stage of characterization in that characteristics of secondary school students in grade 1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ose of this period.

High school students in grade 1 tended to give probability to the

development of happenings in narrative expression. They revealed themes effectively through probable development of happenings. This can be interpreted as intensification of the perception of social relations shown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grade 5.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 this stage is referred to as "intensified sociability period - a stage of theme narration."

The developmental stages of narrative expressive ability discussed above are graded as follows:

school year	developmental stages	stages of narrative expressive ability
elementary school in grade 3	condition faithfulness period	character focalization
elementary school in grade5	relationship centered period	happening specification
secondary school in grade 1	ego-forming period	characterization
high school in grade 1	intensified sociability period	theme narration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서사란 '하나 이상의 사건을 시간적 혹은 인과적으로 연결한 것'을 말한다. 인간의 삶이 끊임없는 사건의 연속이라고 볼 때, 서사는 인간의 경험을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일 수 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인간 삶은 크고 작은 서사로 이루어진다. 인간의 계층이나 집단은 모두 각각의 서사를 갖고 있으며 문화가 대립된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서사가 공동으로 애호되었다는 점에서 서사는 생활과 마찬가지로 국제적이고 초역사적이며 초문화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1)]

인간은 그가 만들어내는 허구들 속에서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위와 실천에 있어서도 본질적으로 하나의 이야기를 말하는 동물이라는 점에서 서사적 존재라고 부를 수 있다.[2)] 서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의사소통의 본질적 양식으로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거나, 또는 가상적인 이야기를 꾸며 말하거나에 상관없이 사람들의 행위와 경험을 탐색하여 나타내고 사람들의 욕구와 동기를 드러내준다. 인간은 서사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타인의 서사를 통해 경험과 정서를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서사는 사회, 개인 간 상호작용의 중요한 매체가 된다.

최근 소설교육의 방향성을 서사교육이라는 맥락에서 찾고 있는 것도 서사가 지닌 이러한 가능성 때문이다. 인간은 서사를 통해 세계를 배우고, 소통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서사는 그 자체가 교육의 도구이면서, 교육의 내용이 될 수 있다. 서사는 자아, 경험, 세계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이야기이다. 그러므로 서사를 중심으로 하는 서사교육의 방향 역시 자아의 성장, 세계와의 소통 그리고 세계의 재구성에서 찾을 수 있다.

자아의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서사는 자신의 경험에 의미와 질서를 부여함으로써, 개인적 경험을 이해 가능한 경험으로 만든다. 서사가 자신의 삶에 대한 이해로 전이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아정체성 확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세계와의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서사는 타자의 경험을 이해하고 공유하도록 하여 타자와 자신, 세계와 자신의 관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한다. 서사는 개인적 경험을 보편적 경험으로 전환시키는 작용을 통해 세계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게 되는데, 이는 서사가 세계의 창조와 연관됨을 말해준다.

---

1) Roland Barthes, 김치수 편저, 『이야기의 구조적 분석입문 구조주의와 문화비평』, 홍성사, 1981, pp.91~92

2) A. 매킨타이어, 이진우 역, 『덕의 상실』, 문예출판사, 1997. p.318

이러한 서사교육의 지향점은 서사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 곧 서사능력을 통해 구체적인 실천가능성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서사교육과 관련된 논의는 주로 서사를 이해하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왔다. 소설교육과 관련된 연구의 대부분은 문학작품의 수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바 있다. 서사표현교육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7차 교육과정의 도입과 함께 시작된다. 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국어과 교육의 목표를 창의적인 국어사용능력의 신장에 두고 이의 실현을 위해 문학교육에서의 창작교육을 강조하였다.

이와 더불어 서사표현교육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서사표현교육의 출발점은 인간의 삶과 그것을 서사화하는 능력이 연관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교육적 관점에서 서사화 능력을 측정하고 그 신장 방안을 모색하려는 데 있다. 서사표현능력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학습자의 서사표현능력의 실태나 표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서사표현능력의 구성요소조차 명료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 이유는 서사표현능력이 종합적인 정신능력으로서, 이를 측정하는 척도를 만들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연구된 평가도구로서는 개인적 경험 요인에 의한 학습자간의 차이를 유의미하게 변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발달이 일련의 단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서사표현능력을 위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탐구는 서사능력의 성격과 범위를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육을 통해 서사를 수용하고 재창조할 수 있는 주체를 길러내기 위해 선행되어야할 것이 학습자의 발달 단계에 대한 이해이기 때문이다. 서사표현능력이 연령의 증가와 비례하여 뚜렷한 변화를 나타낸다는 사실은 많은 교육학자, 주로 유아교육(이영자 · 박미라 1992[3], 박혜경 2004[4], 채미영 2003[5], 이화영 2004[6], 이영자 · 이지현 2005[7])의 분야를 통해 이미 논의된 바 있다.

서사표현능력에 관한 논의가 유아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유아나 아동들의 서사가 그 내용이 짧고, 구성이 단순하여 분석이 용이하다는 측면 때문이다. 유아나 아동 서사의 단순성은 인간의 발달과 서사표현능력의 관계를 조명하는

---

3) 이영자 · 박미라, 「유아의 이야기 구조 개념 발달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제12권, 한국유아교육학회, 1992.

4) 박혜경 외 3인, 「유아의 내러티브에 관한 연구: 이야기 구조개념 발달 및 이야기 유형」, 『유아교육연구』, 24권 3호, 한국유아교육학회, 2004.

5) 채미영, 「유아용이야기 꾸미기활동 평가준거 개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6) 이화영, 「연령, 학습능력, 창의성과 유아의 이야기 구조 발달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7) 이영자 · 이지현, 「유아의 개인적 내러티브와 가상적 내러티브의 구조발달 양상 및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25권 5호, 한국유아교육학회, 2005.

데 적절한 연구대상이 된다. 유아나 아동의 경우와는 달리 중등학교 학생들의 서사 표현능력에 대해서는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의식은 공유하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론적 설계와 담론적 수준에서의 기능과 필요성만을 주장하고 있는 제반의 연구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학생수준에 맞추어 서사표현교육을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법 가운데 하나로 실증적 사회과학적 연구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학습자 실태에 관한 실증적 연구에 이론적 연구를 보완하는 작업을 통해 실증과 이론을 결합하는 차원의 서사교육을 이끌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초·중·고등학생의 서사표현능력이 내용과 표현, 그리고 형식의 면에서 연령에 따라 어떤 변화를 보이는가에 주목하였다. 먼저 서사표현능력 발달 현상을 살펴 볼 도구를 설정한 다음, 초등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에 이르기까지 학습자가 산출하는 서사를 중심으로 서사 표현이 어떠한 양상으로 변화해 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조사된 자료를 분석하여 서사 표현능력의 발달 단계적 특성을 알아보도록 한다. 연령대별 학습자의 서사능력에 대한 비교 분석의 결과가 서사표현능력의 위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 연구사 검토

서사표현능력에 대한 실증적 논의는 1992년 이영자·박미라의 연구 이후 유아교육에서 먼저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윤리교육, 국어교육, 특수·장애교육을 중심으로 한 교육 분야에서 서사의 교육적 작용력을 적극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

서사표현능력 발달에 대한 연구는 한선희(2001), 최인자(2004)와 임경순(2007)에 의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한선희(2001)[8]는 Applebee와 Stein & Glenn의 도구를 종합하여 초·중·고등학생의 서사문을 대상으로 이야기 구조 발달 단계를 7단계로 구성하였다. 인과관계가 무시된 행동이나 묘사의 나열(1단계), 간단한 줄거리(2단계), 불완전한 줄거리(3단계), 우연에 의한 줄거리(4단계), 불완전한 복합구성 줄거리(5단계), 갖춰진 줄거리(6단계), 갖춰진 복합구성 줄거리(7단계) 등이 그것이다. 분석 결과 초등학교 1학년에서는 1단계와 2단계가 지배적인 경향을 보이다가 초등학교 3학년에서는 급격하게 줄어든다고 한다. 초등학교 5학년이 되면 6단계와 7단계가 전체의 50%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학년에 따라 학생들 글에 나타난 서사 구조는 복잡하고 정교해 진다.

8) 한선희, 「서사문 쓰기 발달 양상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최인자(2004)[9]는 Rainhart가 제안한 서사적 층위를 분석도구로 하여 이야기를 분석 도구로 하여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서사발달을 연구하고 있다. 질적 사례연구의 방법을 통하여 초등학교 1, 3, 5학년, 중학교 1, 2, 3학년 남녀 학생 각각 20명에게 만화를 이야기글로 전환하는 것과 '컨닝'이라는 제목으로 허구적 서사문 쓰기의 수행과제를 제시하여, 남녀의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서사 수행능력과 서사 스타일 면에서의 발달과정과 단계를 살펴보았다. 사회언어학적방법론을 빌어 서사의 발달을 서사적 층위, 평가적 층위, 소통적 층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서사 수행능력의 발달은 서사적 통일성, 복합성의 발달과 표현의 다양성, 동일 표현의 다기능적인 활용 등과 연관됨을 확인하고 있다. 서사적 층위의 분석 도구로 사건성 이해, 연속성 이해, 그리고 시간적 연속을 표현하는 언어적 특징 등을 제시한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초등학교 1학년 7세 아동은 끝이 완결된 이야기를 구성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난다. 연속적인 이야기 구성이 서툴다는 것은 인과성의 결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초등학교 3학년 9세가 되면 아동은 사건을 완결짓는 능력을 보이며 13세에 이르면 처음과 중간 그리고 끝이 있는 보다 잘 구성된 이야기를 만들어 낸다. 그러나 중학교 3학년에 이르기까지 사건 구성의 질적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본다.

임경순(2007)[10]은 대도시(서울, 광주), 중 · 소도시(경기도, 전라남도)에서 중학생 총 340명을 선별하여 중학교 남녀 학생들의 이야기 표현력의 발달적 특징과, 학년별, 성별 차이를 분석하고 있다. 내용, 담론, 소통을 이야기 표현력의 발달 준거로 삼아 이러한 발달적 특징을 중심으로 서사표현능력을 위계화하고 있다. 서사발달의 단계를 내용, 담론, 소통 수준으로 나눈 다음, 내용수준의 특징을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꾸며낸 이야기로 표현하는 경향에서 찾고 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우정이나 가족에 대한 내용에서 자기문제와 사랑에 대한 내용이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통일성이 떨어지고 독창성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담론 수준의 발달적 특징을 살펴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서사구조의 통일성이 약해지고 1인칭 나를 주인공으로 하는 경우가 높아졌으며 사건의 연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통수준에서 발달적 특징을 살펴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야기가 주는 감동의 정도는 높아지지 않았으며, 이야기 표현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논의는 서사표현능력의 발달 단계를 파악하는 작업이 서사교육의 방향성을 가늠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는 있으나, 발달 단계

9) 최인자, 「서사 표현 능력 발달의 성별 패턴 비교 연구 : 초 중등 학생의 서사 수행능력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제 115집,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2004.

10) 임경순, 「서사 텍스트 표현력 발달 연구」, 『문학교육학』, 한국문학교육학회, 제24권, 2007.

를 위계화하는 데 있어 연령별로 나타난 서사적 표현의 특징들을 나열하는 방식에 그치고 있다. 이 경우 특정 연령 단계에 어떠한 서사표현의 특징이 나타나는가를 파악할 수는 있지만 연령별 서사표현능력의 발달적 특징을 규정하는 데는 미치지 못하였다. 연령별 서사표현능력의 발달적 특징을 규명하는 연구는 주로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영자 · 박미라(1992)[11]는 Applebee(1978), Mcgee와 Richgel(1990)이 제시한 이야기 구조 개념 발달 단계를 참조하여 3~6세의 유아 총 65명을 대상으로 융판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게 하여 유아의 이야기 구조 개념 발달 단계를 0~5 단계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에서 보여준 이야기 구조 개념 발달 단계는 단순 나열기, 이야기 형태 인식기, 초보적 이야기 진술 형성기, 단순 나열식 이야기 형성기, 연결적 이야기 형성기, 논리적 이야기 형성기로 나뉜다.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4세 유아는 주로 1, 2단계에 속하며(38.5%), 5세 유아의 경우는 대부분이 3단계(62.5%), 6세는 4단계(58.33%)와 5단계(20.83%)에 분포하였다.

조희숙과 공숙자(1996)[12]는 Leondar & Benson의 연구에서 사용된 준거를 활용하여 아동들의 이야기 구조의 발달을 부적절한 반응단계, 기술적 단계, 사건의 병렬적 서술단계, 이야기 구성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 3세에서는 기술적 단계, 4,5세에서는 병렬적 서술단계, 6세에 이르면 이야기 구성단계가 높게 나타난다고 본다. 2세와 3세 유아의 이야기 구조는 2단계인 기술적 단계에서 각각 50%와 30%씩 분포하였고, 4세와 5세 유아의 이야기 구조는 3단계인 사건의 병렬적 서술 단계에서 각각 61.6%와 45.4%씩 분포되었으며 6세의 이야기 구조는 4단계인 이야기 구성단계에 57.1% 분포되었다고 보고하였다.

한유진 · 유안진(2001)[13]은 유아가 꾸민 이야기의 구조화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stein과 Glenn의 단계를 사용하였다. 3, 4, 5세 유아 총 60명을 대상으로 하여 이야기 구성능력을 연구한 결과 나이가 많은 유아들은 나이가 적은 유아보다 이야기 구조(물리적 배경, 등장인물, 계기가 되는 사건, 내적 상태, 시도, 장애, 결과, 반응)를 더 많이 사용하여 이야기를 구성하는 것을 밝혔다. 3~4세가 등장인물, 물리적 배경 등을 통해 사건과 행동을 주로 기술하는 데에 비해 5세는 배경, 계기가 되는 사건 그 사건으로 인한 주인공의 시도, 행동, 주인공 행동의 결과라는 기

---

11) 이영자 · 박미라, 「유아의 이야기 구조 개념 발달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제 12권, 한국유아교육학회, 1992.

12) 조희숙 · 공숙자, 「유아의 이야기 서술구조 발달과 심리적 인과성」, 『유아교육논총』 제 6권, 부산 유아교육학회, 1996.

13) 한유진 · 유안진, 「3, 4, 5세 유아의 이야기 구성 능력 발달」, 『대한 가정 학회지』, 제 39집 7호, 대한가정학회, 2001.

본적인 이야기 구조 범주가 고루 사용되어 이야기 구조를 갖춘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이야기를 전개하는 등, 성인과 유사한 이야기 구조 개념을 획득하는 때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김기호(2003)[14]는 4~10세 해당하는 아동 56명의 서사를 수집하여 사건 구조 곧 플롯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김기호는 플롯을 이야기 속에 형상화된 갈등과 갈등의 전개 양상으로 정의하고, 아동 서사발달을 연령에 따라 크게 세단계로 나누어 4~6세까지의 아동의 서사에는 <갈등-무해결>이 지배적으로 나타나며, 7세~8세까지는 <갈등-해결 실패형>과 <갈등- 해결 성공형>이 혼재한다고 본다. 이러한 혼재는 앞과 뒤의 단계를 매개하는 것이며 9~10세에는 <갈등- 해결 성공>이 지배적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4, 5, 6세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 박혜경 · 정대련 · 박소연 · 이현주(2004)[15]의 연구는 유아 101명을 대상으로 연령에 따른 이야기 구조 개념 발달을 살피고, 이야기 구조 개념 발달이 유아의 성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아의 연령에 따른 이야기 구조개념 발달 정도를 4세는 주로 이야기 형태 인식기와 초보적 이야기 형성기에 분산되어 속해 있으며 5세는 초보적 이야기 형성기에, 6세는 단순 나열식 이야기 형성기에 가장 많이 속해 있다고 한다. 유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복잡한 구조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유아의 구체적 내러티브의 신장 방안으로 이야기를 많이 들려 줄 것, 교사와 부모가 이야기를 잘 듣고 말하는 모범이 되어주며 격려로서 촉진 할 것, 유아에게 들려줄 이야기를 이야기 구조의 구성요소를 고려해 선정할 것, 다양한 환경을 제공할 것, 자신감 형성과 즐거운 이야기 환경을 제공할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이영자 · 이지현(2005)[16]은 3세에서 6세의 유아들의 이야기 발달 수준을 개인적 이야기 발달수준과 가상적 이야기 발달 수준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개인적 이야기 발달수준에는 단계별로 이야기 구조 형성 및 사건의 시간적 연결이 되지 않은 내러티브, 단일 사건 내러티브, 두 세 가지사건 나열 내러티브, 사건 건너뛰기 내러티브, 정점과 종결없이 사건의 순서적 나열 내러티브, 정점이 없고 종결이 있는 사건의 순서적 나열 내러티브, 정점에서 종결되는 내러티브, 전형적 내러티브로 제시하고 있다. 가상적 이야기 발달 수준은 단계별로 이야기 구조가 형성되지 않은 내

14) 김기호, 「아동의 서사 구술능력 발달 단계: 주인공의 갈등해결을 중심으로」, 『어문학』, 제 80집, 한국어문학회, 2003.

15) 박혜경 외 3인, 「유아의 내러티브에 관한 연구: 이야기 구조개념 발달 및 이야기 유형」,『유아교육연구』, 24권 3호, 한국유아교육학회, 2004.

16) 이영자 · 이지현, 「유아의 개인적 내러티브와 가상적 내러티브의 구조발달 양상 및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25권 5호, 한국유아교육학회, 2005.

러티브, 사건의 병렬적 나열수준, 설명 나열수준, 행동의 순서적 제시수준, 반응의 순서적 제시수준, 장애물과 결말이 없는 목표 지향적 에피소드, 장애물은 없지만 결말이 포함되는 목표 지향적 에피소드, 장애물이 포함되지만 결말이 없는 목표 지향적 에피소드, 장애물과 결말이 모두 포함되는 목표 지향적 에피소드 등의 8수준으로 제시한다.

또한 이영자·이지현(2006)[17]은 만 3, 4세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 내러티브의 발달 양상에 관한 연구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3, 4세 유아들이 산출하는 개인적 가상적 내러티브의 발달 양상을 분석하여,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지닌 유아들의 내러티브가 구조적 측면과 논리적 응집장치의 사용 측면에서 어떤 차이를 드러내는지 비교 연구 하였다. 한국과 미국의 대학부속 유아교육기관에 다니는 만 3, 4세 유아, 총 77명 (한국 42명, 미국유아 35명)을 대상으로 개인적 내러티브와 가상적 내러티브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한국과 미국의 유아들은 일관성을 갖추고, 논리적으로 내러티브를 산출하는 능력 면에서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개인적 내러티브의 경우 두세 가지 사건 나열 내러티브와 사건 건너뛰기 내러티브 수준이었으며, 가상적 내러티브의 경우 사건의 병렬적 나열 및 행동의 순서적 제시 수준으로서, 아직 초보적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내러티브의 구성 요소와 논리적 응집 장치의 사용양상은 부분적으로 우리나라와 미국의 유아들 간 차이가 있는데, 특히 미국 유아들은 우리나라 유아들에 비하여 대용 참조를 많이 사용하였다고 한다. 이런 차이는 양국의 언어적 특성과 문화적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서사표현능력의 발달 단계에 대한 연구가 외국 연구의 분석 도구를 이용한데 반해 채미영(2003)[18]은 4, 5세 유아용 이야기 꾸미기 활동의 평가 준거를 독자적으로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 논문을 통하여 연구자는 유아의 이야기 구조 개념과 상상력, 언어능력의 수준을 위계화해 보여준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서사표현능력 발달단계에 관한 논의에서는 발달 단계별로 구체적인 유아의 발달 단계별로 서사표현능력의 차이를 분명히 위계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유아의 서사표현능력의 위계화가 상당히 진전된 단계에 이르게 된 이유는 상당 기간 축적된 연구의 성과에 기반을 두고 논의가 진행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서사표현능력 발달연구는 아직 출발점에 있다 할 수 있다.

---

17) 이영자・이지현, 「한국과 미국 유아들의 개인적 ・가상적 내러티브 구조 발달 양상 및 논리적 응집장치 사용의 비교」,『열린유아교육연구』, 11권 2호 , 2006

18) 채미영, 「유아용이야기 꾸미기활동 평가준거 개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3.

서사교육의 이론적 기반을 다진 논의로 우한용 외의 『서사교육론』[19]이 있다. 이 책에서는 담론과 문화의 측면에서 서사의 가능성을 제시, 서사교육의 토대를 제공함으로써 서사교육 관련 논의를 한층 진전시켰다. 서사교육의 가치를 '서사적 존재로서의 자아 확립, 세계의 발견능력의 고양, 세계해석능력의 함양, 세계창조와 재생산 체험의 확충' 등으로 제시하여 서사교육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서사교육이 총체적인 기호 문화의 향유와 서사적 사고 능력의 신장 그리고 다양한 매체의 수용과 통합 교육의 수행 측면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본다. 또한, 서사적 지식의 성격을 경험적 지식으로부터 가져옴으로서 서사교육의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상의 논의와 달리 서사표현능력에 대한 연구자체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서사표현능력의 메타연구가 있다. 김상욱(2006)[20]은 서사텍스트의 표현 능력을 대상으로 한 논문들의 연구 방법을 검토하였으며, 김기호(2005[21], 2006)[22]는 두 편의 논문을 통하여 이야기구성능력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분석, 종합하였다. 이런 연구에 대한 연구 또한 서사 능력에 관한 연구의 성과들을 의미 있게 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눈여겨 볼만하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아직 시작 단계에 있는 서사 교육에 전범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몇 가지 문제점을 갖는다. 먼저 서사표현능력을 분석하기 위한 도구가 외국의 연구결과에 치우쳐있어 문화적 특성의 차이를 고려하기 어렵다. 이를 고려해 볼 때 문화나 지역, 연령의 차이를 고려한 평가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분석의 대상이 대부분 유아 중심이라는 점도 문제적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동안 논의에서 배제된 청소년의 서사표현능력 발달에 대한 연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선행 연구들이 연령 집단별 평균적인 서사표현능력만을 비교대상으로 삼은 것도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같은 연령 집단 내에서도 서사표현능력의 개인차가 발생하는데, 이는 대상자의 환경의 차이가 서사표현능력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같은 연령 집단 내에서 개인차를 유발하는 요인에 대한 질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선행 연구들은 내러티브의 구조적 측면, 언어의 양적인 측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내용 분석 측면의 연구가 상대적으로

---

19) 우한용 외, 「서사의 위상과 서사교육의 지평」, 『서사교육론』, 동아시아, 2001. p.3

20) 김상욱, 「문학교육 연구 방법론의 확장과 그 실체: 서사 텍스트의 표현 능력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제21권, 한국문학교육학회, 2006.

21) 김기호, 「이야기 구성 능력과 발달 자극 도구에 관한 연구 동향과 과제」, 『한국민족어문학』, 제45집, 한민족어문학회, 2005.

22) _____, 「이야기 구성 능력 발달을 주제로 한 선행연구의 통합 분석」, 『반교어문연구』, 반교어문학회, 2006.

빈곤했다. 예를 들어 주제, 인물의 특성, 결말의 유형, 서술 방식의 차이 등이 간과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선행 연구들은 서사표현능력에 관한 연구의 성과면에서 중대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도 서사표현능력 발달에 관한 선행 연구의 성과에 기대어 서사표현능력 발달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광주지역 학생들의 서사표현능력을 위계화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서사표현능력의 성격

'학습자가 연령별로 표현하는 서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에 대한 물음은 좋은 서사란 무엇인가의 문제와 연결된다. 좋은 서사를 생산하는 능력은 고차적 서사능력이라 볼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서사를 생산할 수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로부터 서사표현능력의 성격을 찾을 수 있다. Ⅱ장에서는 서사표현능력을 평가할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 서사표현능력의 성격을 알아보고, 서사표현능력이 어떤 하위요소들로 구성되는지 탐색해 보기로 한다.

문학교육의 목표를 '문학능력의 증진'으로 볼 때, 서사교육의 목표는 '서사능력의 증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학능력이 문학의 생산과 수용을 핵심으로 하듯이 서사능력은 서사의 생산과 수용을 핵심으로 한다. 서사능력은 서사수용능력과 서사표현능력으로 구성된다. 이때 서사표현능력은 서사를 생산하는 주체가 서사를 구성하고 언어로 형상화하는 능력을 말하며, 서사를 수용하는 능력은 서사를 수용하는 주체가 주어진 이야기를 능동적으로 해석, 비평하고 그것을 내면화해서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서사표현능력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공통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서사구조를 중심으로 서사표현능력을 규정한다는 점이다. 서사구조를 중심으로 서사표현능력을 고찰하는 경우, 이야기의 잘 짜여진 구조에

주목한다. 잘 짜여진 구조를 가진 이야기는 분명한 배경, 잘 묘사된 인물, 주인공이 장애에 직면하거나 에피소드를 통하여 추구되어야할 목표와 해결책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의 양상을 이야기에 반영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또한 단어나 하나의 문장이 아닌 여러 개의 문장을 일관성 있게 산출할 수 있어야 한다.

서사구조의 연구는 Bartlett(1932)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그는 서사표현능력의 구성요소를 '이야기 쉐마(story schema)'라고 명명하였다. 이야기 쉐마는 이전에 얻은 정보에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이야기 이해력을 향상시켜줄 뿐만 아니라, 부분적인 이야기를 보다 완전하게 기억 속에 남아있게 하고, 이야기의 부분들이 보다 잘 결합될 수 있을 때까지 이전의 정보를 저장시켜준다. Johnson(1985)에 의하면 이야기 쉐마는 사람들이 이야기 구조에 대해 갖고 있는 일련의 지식 구조로 이야기에 나타나는 사건과 구성요소들의 형태, 이야기 사건과 행위가 순서화되는 패턴에 관한 개념이고, 이야기의 언어적 패턴 또는 대화나 역할 수행 패턴 등에 대한 광범위한 개념들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23)]

Stein & Glenn(1979)도 모든 이야기는 기본적인 인지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사람들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이해하는 것은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이야기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구조와 현재 듣고 있거나 읽고 있는 이야기 구조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재구성 과정 덕분이라고 말한다. 이야기 구조에 대한 개념은 이야기를 읽고 쓰고 이해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24)]

서사구조에 대한 연구는 일반적인 이야기에 내재하는 형식적 규칙체계를 발견함으로서 이 서사구조에 원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서사를 생산하는 특정 시기에 주목하여 인간 발달과 서사구조 사이의 연관성을 밝히고 있다.

중요한 것은 서사의 구조가 이야기를 만드는 주체의 세계인식방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이다. 서사물에는 이야기 생산자의 의식이 투영되어 있으며 이런 점에서 서사표현능력에는 인간의 세계인식능력이 반영되어 있다고 하겠다. 이로부터 서사표현능력 발달의 위계화를 위해 고려해야할 점이 표현된 서사에 나타난 표면적인 층위만이 아닌, 학습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세계를 이해하고 구성하는가이다.

서사 생산자가 서사를 생산하는 토대인 서사표현능력들은 개별적 앎의 형식으로

---

23) F. C, Bartlett. (1932) Remembering: *A study in Experimental and social Psych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한유진·유안진, 「3, 4, 5세 유아의 이야기 구성 능력 발달」, 『대한 가정 학회지』, 제 39집 7호, 대한가정학회, 2001, p.72에서 재인용

24) N. L.Stein & Glenn(1979), An analysis of story comprehension of elementary-school children In R, O. Freedle (Ed.). *New directions in discourse processing*, pp.53~120, Norwood, NJ: ABLEX Publishing Corp: 정현정, 「아동의 학년, 지능 및 창의성에 따른 이야기 구조」,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p.5에서 재인용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서사물을 만들기 위해 여러 영역의 지식이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함으로써 가능하다. 인물이나, 사건, 배경 중 어느 하나만으로 이야기를 구성할 수는 없다. 서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인물이 놓일 배경을 창조하여야 한다. 서사 생산의 과정에서 창조된 인물과 배경사이에는 허구적이거나 경험적으로 존재하는 자아와 세계와의 관계가 반영되어 있다. 이와 함께 사건을 어떻게 전체의 이야기로 엮어내는가도 중요한 문제이다. 사건 속에는 인물과 인물 인물과 세계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건을 배치하는 문제는 세계에 대한 가치판단과 연관된다.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제시되는 영상이나 문자언어, 음성언어를 이해하는 과정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분석의 과정을 거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사람들의 인지구조 속에는 그러한 요소들을 도식화하여 이해하는 특정한 장치가 있다. 서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지금까지 서사표현능력은 체계적인 교육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관습에 의해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서사를 생산하는 능력은 뚜렷한 개인차를 보인다.

특히 학생들 사이에서도 서사를 생산하는 능력의 개인차가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서사능력이 교육적 대상이 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서사표현능력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이를 중심으로 서사표현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이 연구는 서사표현능력의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서사표현능력 발달을 위계화함으로써 서사표현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의 기초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서사표현능력의 구성요소

앞선 논의들 대부분이 이야기 구조의 측면에서 서사능력을 살펴왔다. 모든 이야기는 기본적인 인지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야기 구조 개념을 체계화하여 인간의 서사능력을 파악하려고 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이야기의 주요 요소들의 관계를 통하여 이야기 구조를 추출하고 이를 유형화하여 서사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먼저 선행 연구들에 나타난 이야기 구조의 요소를 살펴본 다음 이를 토대로 서사표현능력의 구성요소를 구안해본다.

Leu와 Kinzer[25]은 이야기 구조라는 것은 대부분의 이야기 글 형태가 가지는 조

25) D. J. Leu & C. K. Kinzer, *The effective reading instruction*, k-8. Merill: Macmillian Publishing Company, 1991. 정현정, 「아동의 학년 지능 및 창의성에 따른 이야기 구조」,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p.6에서 재인용

직적 구조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이들은 이야기 구조를 이야기 배경에 대한 정보, 문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등장인물의 시도를 나타내는 줄거리 등을 포함한다고 본다. 배경에 대한 정보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에서 나타나며 인물, 시간과 장소가 포함된다. 모든 이야기에 이와 같은 배경의 3요소인 등장인물, 장소, 시간이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 요소는 이야기에 빠져있는 정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건의 계기가 되는 줄거리는 주인공 혹은 등장인물이 직면한 문제와 도달해야할 목표에 관한 정보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그 문제는 이야기 내에서 분석된다. 그리고 등장인물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행동하는 시도, 혹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관련된 정보와 그에 따른 결과가 이어진다. 등장인물의 내적 반응과 외적 반응은 여기에 포함된다. Leu와 Kinzer의 이야기 구조의 체제는 배경(하위요소: 등장인물, 장소, 시간), 계기가 되는 줄거리(하위요소: 계기가 되는 사건, 목표), 에피소드(하위요소: 시도, 결과, 반응)로 구성된다.

Stein과 Gleen(1979)은 이야기 구조가 새로운 정보를 입수하여 기억하게 하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유아 이야기를 기억하는 동안 이용한 인지적 구조와도 유사함을 발견하였다. Stein과 Gleen이 제시한 이야기 구조에는 주인공과 등장인물, 그리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물리적 상황이 소개되는 배경과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다. 계기가 되는 사건에는 주인공의 행동을 유발하는 자연 현상의 변화나 외적 사건에 대한 주인공의 지각, 주인공이 목표를 설정하게 되는 동기화가 포함된다. 내적반응에는 주인공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진술된다. 시도는 내적 반응에서 계획된 행동들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하며 결과에서 주인공이 목표를 달성 했는지의 여부가 나타난다. 반응 카테고리는 에피소드의 마지막 부분에 놓이게 되며 목적달성에 대한 주인공의 느낌과 생각에 대해 언급된다.[26]

국내의 많은 연구자들도 이야기 구조를 통해서 이야기 능력을 파악하고 있다. 한유진 · 유안진(2001)은 배경을 세분화하여 배경(물리적 배경, 등장인물), 계기가 되는 사건, 내적 상태, 시도, 장애, 결과, 반응으로 구분하여 이야기 구조를 분석하였다. 한선희는 서사문을 분석하는 기준을 크게 서사구조분석과 담론의 분석으로 나누고, 서사 구조분석의 틀로 ①전체 줄거리를 확인할만한 이야기의 핵이 존재 하는가 ②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건들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었는가 ③그리고 이야기의 개연성과 통일성은 어느 정도인가 등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담론의 발달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①이야기 통일성, ②시점과 서술의 일관성, ③이야기와 담론의 시간 순서, ④이야기 유창성을 분석의 틀로 삼았다.

---

26) 정현정, 「아동의 학년, 지능 및 창의성에 따른 이야기 구조」,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p.7에서 재인용

김상욱[27]은 서사물의 분석 층위를 사용된 절의 수, 사용된 어휘의 수, 묘사문에 포함된 절의 수, 서사의 통사적 구성의 수, 접속어구의 유형과 빈도, 평가적 언어의 수 (정서, 인지, 지각, 의향, 관계, 인용)로 분류하여 서사표현의 발달과정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최인자(2004)[28]는 서사발달을 서사적 층위, 평가적 층위, 소통적 층위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으며, 임경순은 내용, 담론, 소통의 층위를 발달의 범주로 삼고 있다.

서사는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사건을 가지고 있다. 서사는 어떠한 사건을 핵으로 하여 시작, 전개되어 하나의 주제를 가진 완결된 구조로 이루어진다. 서사표현능력의 구성요소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습자가 꾸민 서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탐색하여 평가 영역과 평가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서사표현을 학습자의 내용, 표현, 형식에 대한 지식이 작용한 결과로 본다면 이러한 지식이 서사표현능력의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다. 이제 서사표현능력의 구성요소가 형식, 표현, 내용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영역별 평가의 도구를 설정하고자 한다.

1) 형식의 평가기준

형식은 서사의 외형적 틀로서 일종의 장르 관습이 반영되어 있다. 형식에 있어서 서사는 본래 인물의 이야기이므로 서사를 표현하는 능력의 선행 요소는 인물이 될 것이다. 여기서 인물은 인물의 개체의 성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배경과의 상관성, 다른 인물과의 연계성, 또 사건과의 유기적 연관관계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인물의 구체화는 인물의 성격의 부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의 연계성을 통하여 실현된다. 그렇게 부여된 성격은 인물의 행동을 통해 현실적 의미를 지니게 되며, 인물 사이의 관계를 통해 보다 구체화된다. 인물의 성격과 행동은 다른 인물들과의 관계에 의해 변할 수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인물간의 관계 설정 능력도 서사능력의 하나임을 인정하게 된다. 이 경우 인물사이의 관계는 사건과 연계되어 있어야 하며 사건 발단과 어울리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인물의 구체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항목을 분석의 도구로 설정할 수 있다.

---

27) 김상욱, 「문학교육 연구 방법론의 확장과 그 실체: 서사 텍스트의 표현 능력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제21권, 한국문학교육학회, 2006, p.23

28) 최인자, 「서사 표현 능력 발달의 성별 패턴 비교 연구 : 초 중등 학생의 서사 수행능력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제 115집,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2004.

-인물의 성격이 인물이 처한 상황과의 관계에서 제시되는가?
-인물의 행동이 성격과 연계된 것인가?
-인물사이의 관계는 구체적인가?
-인물사이의 관계가 사건과 연계되어 있는가?

서사의 또 하나의 중심축은 사건이다. 등장인물이 하나의 서사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뼈대가 되는 하나의 중심사건이 있어야 하며 이때의 중심사건은 발단의 개연성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또한 작품의 구성적 측면에서 시간적 순서나 논리적 인과관계에 의하여 구조화되어야 한다. 하나의 서사는 이렇게 하여 하나의 주제를 드러낸다. 사건의 구체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도구를 설정할 수 있다.

- 중심사건이 있는가?
- 중심사건의 발단의 개연성이 있는가?
- 사건의 전개과정이 인과적인가?
- 시간적 순서에 의해 구성되는가?
- 논리적 인과관계에 의해 구성되는가?
- 사건의 전개가 주제를 잘 드러내는가?

2) 표현의 평가기준

서사는 표현을 통하여 비로소 언어로 구체화된다.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갖추고 탄탄한 형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구체적 언어 표현이 없으면 작품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같은 내용과 같은 형식이라 하더라도 표현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서사가 만들어진다. 서사의 표현능력은 시점에 대한 이해와 조정, 서술의 일관성, 서사와 묘사를 적절한 사용, 풍부한 어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표현의 측면에서 서사표현능력을 살펴보기 위한 평가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서술 시점의 일관성이 지켜졌는가?
- 시점을 적절히 활용하였는가?
- 서술어에 일관성, 적절성이 있는가?
- 어휘가 풍부한가?
- 서술과 묘사를 적절히 사용하는가?

3) 내용의 평가기준

이야기의 내용은 서사의 재료에 해당하는 것이다. 무엇을 소재로 하여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는 서사 주체의 관심과 가치관 등과 연관된다. 자료의 제재, 주제, 이야기의 유형, 반전, 감동 등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취향, 관심, 성향 면에서의 서사표현능력을 고찰할 수 있다. 내용에 대한 분석은 질적 분석방법을 택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서사표현능력의 차이를 설명하는 준거를 마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서사표현능력의 발달의 문화적 조건을 체계화할 수 있다.

- 무엇을 소재로 하였나?
-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 감동을 주는가?

Ⅲ. 연구방법

1. 검사도구

본 연구에서 학생들의 서사표현능력의 측정은 앞선 Ⅱ장에서 마련한 서사표현능력의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한 측정도구에 따라 채점할 목적으로 두 종류의 서로 다른 이야기 자료(자료 A, 자료 B)를 제시한 뒤 서사를 작성하게 한 다음, 요인들을 분석하여 이루어졌다.

자료 A는 인물의 특징을 드러내어 인물에 대한 정보가 주어진 그림이고, 자료 B는 인물의 뒷모습과 주제를 암시하는 글귀들이 있는 영화 포스터이다.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가지 자료를 제시한 이유는 첫째, 어느 정도 주어진 조건 아래서 서사를 생성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선행 연구 가운데는 “어느 날이었다.”를 서두로 하여 서사를 생산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이야기의 방향이 막연하여 학생들이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서사의 사건이 우연성과 결합하는 측면에만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이야기 생산의 조건을 일정 부분 제시해줌으로써 서사표현능력의 전반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둘째, 서사를 표현하는 데 있어 서사표현능력 외에 다른 변인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자료 A와 B의 그림은 그것이 제공하는 정보가 다르다. 자료 A가 인물의 전체적 모습과 배경을 통하여 인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면, 자료 B는 인물의 뒷모습을 제시하여 그로부터 인물의 성격을 추론하도록 하였다. 또한 그림 외에 제시한 정보가 없는 자료 A의 그림과는 달리 B의 포스터는 영화의 제목과 글귀들의 정보가 제공되어 있어, 자료 A와 B의 차이가 서사표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2. 검사대상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의 초등학교 3학년 40명(남학생:20 여학생:20명)과 5학년 40명, 중학교 1학년 77명(남학생:39명, 여학생:38명), 고등학교 2학년 80명(남학생:40명, 여학생:40명) 총 23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학교	학년	남	여	계
P 초등학교	3	19	19	38
	5	20	20	40
J 중학교	1	39	38	77
K 고등학교	2	40	40	80
합계	총 4개 학년	118	117	235

3. 연구절차

조사지 작성기간은 2008년 6월~7월 사이이며 자료는 직접 조사 방법을 통해 수집하였다. 사전에 각 학교 국어담당교사와 교감하고 조사지를 직접 전달하였다. 조사는 주로 수업시간을 활용하였다. 담당 교사로 하여금 사전에 학생들이 조사시 유의할 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사전 설명을 부탁하였으며, 이야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였다. 검사지의 대부분이 수업시간을 통하여 작성되었으며, 수집한 서사물은 연구자가 미리 세운 평가계획에 따라 서사표현능력의 구성요소별로 채점되었다. 채점은 서사표현능력의 구성요소에 들어가는 정보단위의 수를 세어서 점수로 산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서사물 속의 서사표현능력 구성요소가 포함된 경우 정보의 단위가 없을 때 0점 ,하나일 때 1점, 두개 이상일 때 2점을 주

었다.

4. 자료분석방법

연구의 내용은 형식, 표현, 내용의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사표현능력을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양적 측면에서는 통계적 분석방법을 선택하였다. 첫째, 성별과 학년에 따른 형식, 표현, 내용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평균차이 검증인 t-검정과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A유형과 B유형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유의수준은 $p<.001$, $p<.01$, $p<.05$에서 검증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설문지의 각 항목에 대한 안정성,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α)계수를 신뢰도 계수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회과학에서 신뢰성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이, 일반적으로 0.6 이상을 측정지표의 신뢰성에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므로, 본 연구에서도 0.6 이상을 기준으로 신뢰성을 평가하기로 하겠다.

질적인 측면에서는 자료의 제재, 주제, 이야기의 유형, 반전, 감동 등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취향, 관심, 성향 면에서의 서사표현능력을 고찰하였다. 질적 분석은 양적 분석에서 해결하지 못한 서사표현능력의 차이를 설명하는 준거가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질적 분석을 통해 서사표현능력의 발달의 문화적 조건을 체계화할 수 있다.

Ⅳ. 연구 결과

*1. A*의 서사표현능력 분석

<표Ⅰ-1> 인물의 성격이 인물이 처한 상황과의 관계에서 제시되는가?

			인물의 성격이 드러나 있지 않다	인물의 성격을 간단하게 제시한다.	인물의 성격을 인물이 처한 상황과의 관계에서 제시한다.	전체	X^2(p)
초등학교	성별	남학생	7	1	2	10	1.302
			70.0%	10.0%	20.0%	100.0%	
		여학생	4	2	3	9	

3학년			44.4%	22.2%	33.3%	100.0%	(.521)
	전체		11	3	5	19	
			57.9%	15.8%	26.3%	100.0%	
초등학교 5학년	성별	남학생	9	2	0	11	1.712 (.425)
			81.8%	18.2%	.0%	100.0%	
		여학생	5	2	1	8	
			62.5%	25.0%	12.5%	100.0%	
	전체		14	4	1	19	
			73.7%	21.1%	5.3%	100.0%	
중학교 1학년	성별	남학생	11	7	4	22	6.900* (.032)
			50.0%	31.8%	18.2%	100.0%	
		여학생	2	11	5	18	
			11.1%	61.1%	27.8%	100.0%	
	전체		13	18	9	40	
			32.5%	45.0%	22.5%	100.0%	
고등학교 2학년	성별	남학생	14	3	3	20	8.733* (.013)
			70.0%	15.0%	15.0%	100.0%	
		여학생	7	12	1	20	
			35.0%	60.0%	5.0%	100.0%	
	전체		21	15	4	40	
			52.5%	37.5%	10.0%	100.0%	

*p<.05

<표Ⅰ-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물의 성격에 대해 살펴보면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5학년의 경우에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인물의 성격이 드러나 있지 않는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고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에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인물의 성격을 간단하게 제시한 경우가 더 많았다.

<표Ⅰ-2> 인물의 행동이 성격과 연계되어 제시되는가?

			인물의 행동에 일관성이 없다	인물의 성격은 드러나지 않지만, 행동자체의 일관성은 있다	인물의 행동이 성격과 일치한다.	전체	χ^2 (p)
초등학교 3학년	성별	남학생	3	7	0	10	5.240 (.073)
			30.0%	70.0%	.0%	100.0%	
		여학생	5	2	2	9	
			55.6%	22.2%	22.2%	100.0%	
	전체		8	9	2	19	
			42.1%	47.4%	10.5%	100.0%	
초등학교 5학년	성별	남학생	7	4	0	11	5.586 (.061)
			63.6%	36.4%	.0%	100.0%	
		여학생	2	3	3	8	
			25.0%	37.5%	37.5%	100.0%	
	전체		9	7	3	19	
			47.4%	36.8%	15.8%	100.0%	
		남학생	9	11	2	22	3.668

중학교 1학년	성별		40.9%	50.0%	9.1%	100.0%	(.160)
		여학생	5	7	6	18	
			27.8%	38.9%	33.3%	100.0%	
	전체		14	18	8	40	
			35.0%	45.0%	20.0%	100.0%	
고등학교 2학년	성별	남학생	4	15	1	20	2.501 (.286)
			20.0%	75.0%	5.0%	100.0%	
		여학생	2	14	4	20	
			10.0%	70.0%	20.0%	100.0%	
	전체		6	29	5	40	
			15.0%	72.5%	12.5%	100.0%	

<표Ⅰ-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물의 행동에 대해 살펴보면 초등학교 3학년의 경우에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인물의 성격은 드러나지 않지만, 행동자체의 일관성은 있는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고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에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인물의 행동에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Ⅰ-3> 인물 사이의 관계로부터 사건이 만들어지는가?

			인물 사이의 관계성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인물사이의 관계는 구체적이나, 사건과의 관계 모호하다.	인물사이의 관계가 사건과 연계되어 있다.	전체	X^2 (p)
초등학교 3학년	성별	남학생	5	2	3	10	2.726 (.256)
			50.0%	20.0%	30.0%	100.0%	
		여학생	2	5	2	9	
			22.2%	55.6%	22.2%	100.0%	
	전체		7	7	5	19	
			36.8%	36.8%	26.3%	100.0%	
초등학교 5학년	성별	남학생	1	1	9	11	.796 (.672)
			9.1%	9.1%	81.8%	100.0%	
		여학생	0	1	7	8	
			.0%	12.5%	87.5%	100.0%	
	전체		1	2	16	19	
			5.3%	10.5%	84.2%	100.0%	
중학교 1학년	성별	남학생	0	5	17	22	1.477 (.478)
			.0%	22.7%	77.3%	100.0%	
		여학생	1	5	12	18	
			5.6%	27.8%	66.7%	100.0%	
	전체		1	10	29	40	
			2.5%	25.0%	72.5%	100.0%	
고등학교 2학년	성별	남학생	1	6	13	20	3.806 (.149)
			5.0%	30.0%	65.0%	100.0%	
		여학생	0	2	18	20	
			.0%	10.0%	90.0%	100.0%	

	전체	1	8	31	40	
		2.5%	20.0%	77.5%	100.0%	

<표Ⅰ-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물 사이의 관계로부터 사건이 만들어지는가?'에 대해 살펴보면 초등학교 3학년의 경우에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인물사이의 관계는 구체적이나, 사건과의 관계가 모호한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고 초등학교 5학년,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에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인물사이의 관계가 사건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중학교 1학년의 경우에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경우 인물사이의 관계가 사건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Ⅰ-4> 중심사건이 있는가?

			사건 자체가 드러나지 않는다.	중심 사건이 없다	중심 사건이 잘 드러난다.	전체	X^2(p)
초등학교 3학년	성별	남학생	1	6	3	10	1.027 (.598)
			10.0%	60.0%	30.0%	100.0%	
		여학생	1	7	1	9	
			11.1%	77.8%	11.1%	100.0%	
	전체		2	13	4	19	
			10.5%	68.4%	21.1%	100.0%	
초등학교 5학년	성별	남학생	0	7	4	11	3.503 (.174)
			.0%	63.6%	36.4%	100.0%	
		여학생	1	2	5	8	
			12.5%	25.0%	62.5%	100.0%	
	전체		1	9	9	19	
			5.3%	47.4%	47.4%	100.0%	
중학교 1학년	성별	남학생		10	12	22	.606 (.436)
				45.5%	54.5%	100.0%	
		여학생		6	12	18	
				33.3%	66.7%	100.0%	
	전체			16	24	40	
				40.0%	60.0%	100.0%	
고등학교 2학년	성별	남학생	1	6	13	20	1.037 (.595)
			5.0%	30.0%	65.0%	100.0%	
		여학생	0	6	14	20	
			.0%	30.0%	70.0%	100.0%	
	전체		1	12	27	40	
			2.5%	30.0%	67.5%	100.0%	

<표Ⅰ-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심사건이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면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중심사건이 잘 드러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교 3학년의 경우에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중심 사건이 없는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고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의 경우에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중심 사건이 없는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에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경우 중심 사건이 잘 드러내는 경향을 보였다.

<표Ⅰ-5> 중심사건의 발단의 개연성이 있는가?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	우연적이나 어느 정도 맥락에는 닿아 있다.	중심사건의 구체적 원인 제시되어있다.	전체	χ^2(p)
초등학교 3학년	성별	남학생	0	9	1	10	2.012 (.366)
			.0%	90.0%	10.0%	100.0%	
		여학생	1	8	0	9	
			11.1%	88.9%	.0%	100.0%	
	전체		1	17	1	19	
			5.3%	89.5%	5.3%	100.0%	
초등학교 5학년	성별	남학생	4	7	0	11	4.642 (.098)
			36.4%	63.6%	.0%	100.0%	
		여학생	0	7	1	8	
			.0%	87.5%	12.5%	100.0%	
	전체		4	14	1	19	
			21.1%	73.7%	5.3%	100.0%	
중학교 1학년	성별	남학생	5	13	4	22	2.471 (.291)
			22.7%	59.1%	18.2%	100.0%	
		여학생	1	14	3	18	
			5.6%	77.8%	16.7%	100.0%	
	전체		6	27	7	40	
			15.0%	67.5%	17.5%	100.0%	
고등학교 2학년	성별	남학생	3	8	9	20	3.275 (.194)
			15.0%	40.0%	45.0%	100.0%	
		여학생	0	10	10	20	
			.0%	50.0%	50.0%	100.0%	
	전체		3	18	19	40	
			7.5%	45.0%	47.5%	100.0%	

<표Ⅰ-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심사건의 발단의 개연성이 있는가?'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3학년의 경우에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중심사건의 발달이 우연적이나 어느 정도 맥락에는 닿아 있는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고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에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어느 정도 맥락에는 닿아 있는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Ⅰ-6> 사건의 전개과정이 인과적인가?

			사건 전개가 구조화 되지 않았다.	사건의 전개가 시간적 순서에 의해 이루어진다.	사건의 전개가 논리적 인과관계에 의해 이루어진다.	전체	χ^2(p)
초등학교 3학년	성별	남학생	5	4	1	10	1.184 (.553)
			50.0%	40.0%	10.0%	100.0%	
		여학생	6	3	0	9	
			66.7%	33.3%	.0%	100.0%	
	전체		11	7	1	19	
			57.9%	36.8%	5.3%	100.0%	
초등학교 5학년	성별	남학생	7	4		11	4.968* (.026)
			63.6%	36.4%		100.0%	
		여학생	1	7		8	
			12.5%	87.5%		100.0%	
	전체		8	11		19	
			42.1%	57.9%		100.0%	
중학교 1학년	성별	남학생	3	17	2	22	.611 (.737)
			13.6%	77.3%	9.1%	100.0%	
		여학생	4	12	2	18	
			22.2%	66.7%	11.1%	100.0%	
	전체		7	29	4	40	
			17.5%	72.5%	10.0%	100.0%	
고등학교 2학년	성별	남학생	4	10	6	20	2.400 (.301)
			20.0%	50.0%	30.0%	100.0%	
		여학생	1	10	9	20	
			5.0%	50.0%	45.0%	100.0%	
	전체		5	20	15	40	
			12.5%	50.0%	37.5%	100.0%	

*p<.05

<표Ⅰ-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건의 구성에 대해 살펴보면 초등학교 3학년의 경우에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서사의 처음-중간-끝이 분명하지 않은 구조화 되지 않은 사건 전개를 보이는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고 초등학교 5학년,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에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사건 전개를 구조화 시키지 못했다. 중학교 1학년의 경우에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시간적 순서에 의해 서사를 구성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표Ⅰ-7> 사건의 전개가 주제를 잘 드러내는가?

			사건의 전개가 주제와는 별개로 이루어진다.	사건의 전개가 주제를 드러내는 정도가 미약하다.	사건의 전개가 주제를 잘 드러낸다.	전체	χ^2(p)
	성	남학생	5	5		10	
			50.0%	50.0%		100.0%	

초등학교 3학년	별	여학생	5	4		9	.059 (.809)
			55.6%	44.4%		100.0%	
	전체		10	9		19	
			52.6%	47.4%		100.0%	
초등학교 5학년	성별	남학생	7	4		11	2.773 (.096)
			63.6%	36.4%		100.0%	
		여학생	2	6		8	
			25.0%	75.0%		100.0%	
	전체		9	10		19	
			47.4%	52.6%		100.0%	
중학교 1학년	성별	남학생	11	9	2	22	3.967 (.138)
			50.0%	40.9%	9.1%	100.0%	
		여학생	4	13	1	18	
			22.2%	72.2%	5.6%	100.0%	
	전체		15	22	3	40	
			37.5%	55.0%	7.5%	100.0%	
고등학교 2학년	성별	남학생	4	9	7	20	1.255 (.534)
			20.0%	45.0%	35.0%	100.0%	
		여학생	2	8	10	20	
			10.0%	40.0%	50.0%	100.0%	
	전체		6	17	17	40	
			15.0%	42.5%	42.5%	100.0%	

<표Ⅰ-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건의 전개가 주제를 드러내는 정도에 대해 살펴보면 초등학교 3학년의 경우에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사건의 전개가 주제와는 별개로 이루어지거나 혹은 주제가 없는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고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에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사건의 전개가 주제와는 별개로 이루어지거나 혹은 주제가 없는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Ⅰ-8>서술 시점의 일관성이 지켜졌는가?

			시점의 혼란이 있다.	시점의 일관성이 있다.	시점을 적절히 활용하였다.	전체	X^2(p)
초등학교 3학년	성별	남학생	1	9		10	2.898 (.089)
			10.0%	90.0%		100.0%	
		여학생	4	5		9	
			44.4%	55.6%		100.0%	
	전체		5	14		19	
			26.3%	73.7%		100.0%	
초등학교 5학년	성별	남학생	0	11		11	1.451 (.228)
			.0%	100.0%		100.0%	
		여학생	1	7		8	
			12.5%	87.5%		100.0%	
	전체		1	18		19	
			5.3%	94.7%		100.0%	

중학교 1학년	성별	남학생	2	19	1	22	.745 (.689)
			9.1%	86.4%	4.5%	100.0%	
		여학생	1	15	2	18	
			5.6%	83.3%	11.1%	100.0%	
	전체		3	34	3	40	
			7.5%	85.0%	7.5%	100.0%	
고등학교 2학년	성별	남학생	1	17	2	20	1.200 (.549)
			5.0%	85.0%	10.0%	100.0%	
		여학생	0	17	3	20	
			.0%	85.0%	15.0%	100.0%	
	전체		1	34	5	40	
			2.5%	85.0%	12.5%	100.0%	

<표Ⅰ-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술 시점의 일관성에 대해 살펴보면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의 경우에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시점의 일관성 유지라는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고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에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시점을 적절히 활용한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Ⅰ-9> 서술과 묘사를 적절히 사용하는가?

			서술어에 일관성, 적절성이 없다	서술만으로 서사를 전개한다.	어휘가 풍부하며, 서술과 묘사를 적절히 사용할 줄 안다.	전체	χ^2 (p)
초등학교 3학년	성별	남학생	4	6		10	.693 (.405)
			40.0%	60.0%		100.0%	
		여학생	2	7		9	
			22.2%	77.8%		100.0%	
	전체		6	13		19	
			31.6%	68.4%		100.0%	
초등학교 5학년	성별	남학생	2	9	0	11	2.847 (.241)
			18.2%	81.8%	.0%	100.0%	
		여학생	0	7	1	8	
			.0%	87.5%	12.5%	100.0%	
	전체		2	16	1	19	
			10.5%	84.2%	5.3%	100.0%	
중학교 1학년	성별	남학생	3	17	2	22	.091 (.955)
			13.6%	77.3%	9.1%	100.0%	
		여학생	2	14	2	18	
			11.1%	77.8%	11.1%	100.0%	
	전체		5	31	4	40	
			12.5%	77.5%	10.0%	100.0%	
고등학교 2학년	성별	남학생		13	7	20	.000 (1.000)
				65.0%	35.0%	100.0%	
		여학생		13	7	20	
				65.0%	35.0%	100.0%	
	전체			26	14	40	

			65.0%	35.0%	100.0%	

<표Ⅰ-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현 방식의 적절성에 대해 살펴보면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의 경우에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서술만으로 이야기전개라는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고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에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같게 나타났다.

<표Ⅰ-10 > 학년과 성별에 따른 '인물' 기술통계량

학년	성별	평균	표준편차	학생 수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	2.00	.943	10
	여학생	2.56	1.810	9
	합계	2.26	1.408	19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	2.27	1.104	11
	여학생	3.50	1.690	8
	합계	2.79	1.475	19
중학교 1학년	남학생	3.14	1.037	22
	여학생	3.83	1.043	18
	합계	3.45	1.085	40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2.90	.968	20
	여학생	3.70	.865	20
	합계	3.30	.992	40
합계	남학생	2.73	1.081	63
	여학생	3.53	1.289	55
	합계	3.10	1.243	118

<표Ⅰ-10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년과 성별에 따른 '인물' 기술통계량에 대해 살펴보면 학년별로는 중학생이 3.4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별로는 여학생이 3.53점으로 남학생의 2.73점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표Ⅰ-11> 학년과 성별에 따른 '사건' 기술통계량

학년	성별	평균	표준편차	학생 수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	3.40	1.506	10
	여학생	2.67	1.323	9
	합계	3.05	1.433	19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	2.73	1.849	11
	여학생	4.25	1.282	8
	합계	3.37	1.770	19
중학교 1학년	남학생	4.05	1.786	22
	여학생	4.50	1.465	18
	합계	4.25	1.645	40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5.15	2.390	20
	여학생	6.00	1.589	20
	합계	5.57	2.049	40
합계	남학생	4.06	2.117	63
	여학생	4.71	1.843	55
	합계	4.36	2.011	118

<표Ⅰ-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년과 성별에 따른 '사건' 기술통계량에 대해 살펴보면 학년별로는 학년이 높을수록 더 높게 나타나 고등학생이 5.5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별로는 여학생이 4.71점으로 남학생의 4.06점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표Ⅰ-12> 학년과 성별에 따른 '형식' 기술통계량

학년	성별	평균	표준편차	학생 수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	5.40	2.366	10
	여학생	5.22	2.539	9
	합계	5.32	2.382	19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	5.00	2.683	11
	여학생	7.75	2.765	8
	합계	6.16	2.986	19
중학교 1학년	남학생	7.18	2.383	22
	여학생	8.33	1.970	18
	합계	7.70	2.255	40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8.05	2.929	20
	여학생	9.70	1.689	20
	합계	8.88	2.503	40
합계	남학생	6.79	2.824	63
	여학생	8.24	2.553	55
	합계	7.47	2.785	118

<표Ⅰ-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년과 성별에 따른 '형식' 기술통계량에 대해 살펴보면 학년별로는 학년이 높을수록 더 높게 나타나 고등학생이 8.8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별로는 여학생이 8.24점으로 남학생의 6.79점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표Ⅰ-13> 학년과 성별에 따른 '서술 · 표현' 기술통계량

학년	성별	평균	표준편차	학생 수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	1.50	.707	10
	여학생	1.33	.866	9

	합계	1.42	.769	19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	1.82	.405	11
	여학생	2.00	.535	8
	합계	1.89	.459	19
중학교 1학년	남학생	1.91	.750	22
	여학생	2.06	.639	18
	합계	1.98	.698	40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2.40	.681	20
	여학생	2.50	.607	20
	합계	2.45	.639	40
합계	남학생	1.98	.729	63
	여학생	2.09	.752	55
	합계	2.03	.739	118

<표Ⅰ-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년과 성별에 따른 '서술·표현' 기술통계량에 대해 살펴보면 학년별로는 학년이 높을수록 더 높게 나타나 고등학생이 2.4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별로는 여학생이 2.09점으로 남학생의 1.98점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표Ⅰ-14>학년과 성별에 따른 '인물의 성격' 기술통계량

학년	성별	평균	표준편차	학생 수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	.50	.850	10
	여학생	.89	.928	9
	합계	.68	.885	19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	.18	.405	11
	여학생	.50	.756	8
	합계	.32	.582	19
중학교 1학년	남학생	.68	.780	22
	여학생	1.17	.618	18
	합계	.90	.744	40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45	.759	20
	여학생	.70	.571	20
	합계	.57	.675	40
합계	남학생	.49	.738	63
	여학생	.85	.705	55
	합계	.66	.742	118

<표Ⅰ-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년과 성별에 따른 인물의 성격 기술통계량에 대해 살펴보면 학년별로는 중학생이 0.9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별로는 여학생이 0.85점으로 남학생의 0.49점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표Ⅰ-15> 학년과 성별에 따른 '인물의 행동' 기술통계량

학년	성별	평균	표준편차	학생 수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	.70	.483	10
	여학생	.67	.866	9
	합계	.68	.671	19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	.36	.505	11
	여학생	1.13	.835	8
	합계	.68	.749	19
중학교 1학년	남학생	.68	.646	22
	여학생	1.06	.802	18
	합계	.85	.736	40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85	.489	20
	여학생	1.10	.553	20
	합계	.97	.530	40
합계	남학생	.68	.563	63
	여학생	1.02	.733	55
	합계	.84	.666	118

<표Ⅰ-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년과 성별에 따른 '인물의 행동' 기술통계량에 대해 살펴보면 학년별로는 학년이 높을수록 더 높게 나타나 고등학생이 0.9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별로는 여학생이 1.02점으로 남학생의 0.68점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표Ⅰ-16>학년과 성별에 따른 '인물관계와 사건의 연계성' 기술통계량

학년	성별	평균	표준편차	학생 수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	.80	.919	10
	여학생	1.00	.707	9
	합계	.89	.809	19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	1.73	.647	11
	여학생	1.88	.354	8
	합계	1.79	.535	19
중학교 1학년	남학생	1.77	.429	22
	여학생	1.61	.608	18
	합계	1.70	.516	40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1.60	.598	20
	여학생	1.90	.308	20
	합계	1.75	.494	40
합계	남학생	1.56	.690	63
	여학생	1.65	.584	55
	합계	1.60	.642	118

<표Ⅰ-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년과 성별에 따른 '인물관계와 사건의 연계성' 기술통계량에 대해 살펴보면 학년별로는 초등학교 5학년이 1.7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별로는 여학생이 1.65점으로 남학생의 1.56점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표Ⅰ-17> 학년, 성별에 따른 '중심사건이 있는가?' 기술통계량

학년	성별	평균	표준편차	학생 수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	1.20	.632	10
	여학생	1.00	.500	9
	합계	1.11	.567	19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	1.36	.505	11
	여학생	1.50	.756	8
	합계	1.42	.607	19
중학교 1학년	남학생	1.55	.510	22
	여학생	1.67	.485	18
	합계	1.60	.496	40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1.60	.598	20
	여학생	1.70	.470	20
	합계	1.65	.533	40
합계	남학생	1.48	.564	63
	여학생	1.55	.571	55
	합계	1.51	.566	118

<표Ⅰ-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년과 성별에 따른 '중심사건이 있는가?' 기술통계량에 대해 살펴보면 학년별로는 학년이 높을수록 더 높게 나타나 고등학생이 1.6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별로는 여학생이 1.55점으로 남학생의 1.48점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표Ⅰ-18> 학년, 성별에 따른 '중심사건의 발단의 개연성이 있는가?'

학년	성별	평균	표준편차	학생 수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	1.10	.316	10
	여학생	.89	.333	9
	합계	1.00	.333	19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	.64	.505	11
	여학생	1.13	.354	8
	합계	.84	.501	19
중학교 1학년	남학생	.95	.653	22
	여학생	1.11	.471	18
	합계	1.02	.577	40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1.30	.733	20
	여학생	1.50	.513	20

	합계	1.40	.632	40
합계	남학생	1.03	.647	63
	여학생	1.22	.498	55
	합계	1.12	.587	118

<표Ⅰ-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년과 성별에 따른 '중심사건의 발단의 개연성이 있는가?' 기술통계량에 대해 살펴보면 학년별로는 학년이 높을수록 더 높게 나타나 고등학생이 1.4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별로는 여학생이 1.22점으로 남학생의 1.03점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표Ⅰ-19> 학년과 성별에 따른 '사건의 구성' 기술통계량

학년	성별	평균	표준편차	학생 수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	.60	.699	10
	여학생	.33	.500	9
	합계	.47	.612	19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	.36	.505	11
	여학생	.88	.354	8
	합계	.58	.507	19
중학교 1학년	남학생	.95	.486	22
	여학생	.89	.583	18
	합계	.93	.526	40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1.10	.718	20
	여학생	1.40	.598	20
	합계	1.25	.670	40
합계	남학생	.84	.653	63
	여학생	.98	.652	55
	합계	.91	.654	118

<표Ⅰ-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년과 성별에 따른 '사건의 구성' 기술통계량에 대해 살펴보면 학년별로는 학년이 높을수록 더 높게 나타나 고등학생이 1.2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별로는 여학생이 0.98점으로 남학생의 0.84점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표Ⅰ-20> 학년과 성별에 따른 '사건의 전개' 기술통계량

학년	성별	평균	표준편차	학생 수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	.50	.527	10
	여학생	.44	.527	9
	합계	.47	.513	19
	남학생	.36	.505	11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	.75	.463	8
	합계	.53	.513	19
중학교 1학년	남학생	.59	.666	22
	여학생	.83	.514	18
	합계	.70	.608	40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1.15	.745	20
	여학생	1.40	.681	20
	합계	1.28	.716	40
합계	남학생	.71	.705	63
	여학생	.96	.666	55
	합계	.83	.696	118

<표Ⅰ-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년과 성별에 따른 '사건의 전개' 기술통계량에 대해 살펴보면 학년별로는 학년이 높을수록 더 높게 나타나 고등학생이 1.2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별로는 여학생이 0.96점으로 남학생의 0.71점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표Ⅰ-21>학년과 성별에 따른 '서술 시점의 일관성' 기술통계량

학년	성별	평균	표준편차	학생 수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	.90	.316	10
	여학생	.56	.527	9
	합계	.74	.452	19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	1.00	.000	11
	여학생	.88	.354	8
	합계	.95	.229	19
중학교 1학년	남학생	.95	.375	22
	여학생	1.06	.416	18
	합계	1.00	.392	40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1.05	.394	20
	여학생	1.15	.366	20
	합계	1.10	.379	40
합계	남학생	.98	.336	63
	여학생	.98	.451	55
	합계	.98	.392	118

<표Ⅰ-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년과 성별에 따른 '서술 시점의 일관성' 기술통계량에 대해 살펴보면 학년별로는 학년이 높을수록 더 높게 나타나 고등학생이 1.1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별로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같게 나타났으며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표Ⅰ-22> 학년과 성별에 따른 '표현 방식의 적절성' 기술통계량

학년	성별	평균	표준편차	학생 수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	.60	.516	10
	여학생	.78	.441	9
	합계	.68	.478	19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	.82	.405	11
	여학생	1.13	.354	8
	합계	.95	.405	19
중학교 1학년	남학생	.95	.486	22
	여학생	1.00	.485	18
	합계	.98	.480	40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1.35	.489	20
	여학생	1.35	.489	20
	합계	1.35	.483	40
합계	남학생	1.00	.539	63
	여학생	1.11	.497	55
	합계	1.05	.520	118

<표Ⅰ-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년과 성별에 따른 '표현 방식의 적절성' 기술통계량에 대해 살펴보면 학년별로는 학년이 높을수록 더 높게 나타나 고등학생이 1.3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별로는 여학생이 1.11점으로 남학생의 1.00점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표Ⅰ-23> 학년에 따른 주제

	우정	인물소개	성취	모호	잘난척	학교생활	공포	애정	학교폭력	경쟁	정신병자	탈선	인기	모험	협동	동성애	가족애	사회문제	복수살인	정의	전체	χ^2 (p)
초3	8	1	4	3	1	1	0	0	0	1	0	0	0	0	0	0	0	0	0	0	19	110.212*** (.000)
	42.1%	5.3%	21.1%	15.8%	5.3%	5.3%	.0%	.0%	.0%	5.3%	.0%	.0%	.0%	.0%	.0%	.0%	.0%	.0%	.0%	.0%	100%	
초5	5	0	0	1	0	2	2	7	1	1	0	0	0	0	0	0	0	0	0	0	19	
	26.3%	.0%	.0%	5.3%	.0%	10.5%	10.5%	36.8%	5.3%	5.3%	.0%	.0%	.0%	.0%	.0%	.0%	.0%	.0%	.0%	.0%	100%	
중	12	0	1	0	0	0	7	13	1	0	1	1	1	2	1	0	0	0	0	0	40	
	27.5%	.0%	2.5%	.0%	.0%	.0%	17.5%	32.5%	2.5%	.0%	2.5%	2.5%	2.5%	5.0%	2.5%	.0%	.0%	.0%	.0%	.0%	100%	
고	1	0	0	3	0	0	5	23	0	0	0	0	0	0	0	1	1	1	3	1	39	
	2.6%	.0%	.0%	7.7%	.0%	.0%	12.8%	59.0%	.0%	.0%	.0%	.0%	.0%	.0%	.0%	2.6%	2.6%	2.6%	5.1%	2.6%	100%	
전체	26	1	5	7	1	3	14	43	2	2	1	1	1	2	1	1	1	1	3	1	117	
	22.2%	.9%	4.3%	6.0%	.9%	2.6%	12.0%	36.8%	1.7%	1.7%	.9%	.9%	.9%	1.7%	.9%	.9%	.9%	.9%	1.7%	.9%	100%	

<표Ⅰ-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료 A의 주제에 대해 살펴보면 애정이 36.8%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우정 22.5%, 공포 12.0%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서는 학년이 낮을수록 우정이라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고 반대로 학년이 높을수록 애정이라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1)

<표Ⅰ-24> 학년에 따른 반전유무

	반전이 있다.	반전이 나타나지 않는다.	전체	χ^2(p)
초등학교 3학년	0	19	19	18.027*** (.000)
	.0%	100.0%	100.0%	
초등학교 5학년	3	16	19	
	15.8%	84.2%	100.0%	
중학교 1학년	18	22	40	
	45.0%	55.0%	100.0%	
고등학교 2학년	19	21	40	
	47.5%	52.5%	100.0%	
전체	40	78	118	
	33.9%	66.1%	100.0%	

***p<.001

<표Ⅰ-2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료 A의 반전유무에 대해 살펴보면 반전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66.1%, O가 33.9%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서는 학년이 높을수록 반전이 나타나는 빈도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1)

<표Ⅰ-25> 학년에 따른 감동의 여부

	감동이 있다.	미흡하지만 감동적 요소는 있다.	해당 안 됨.	전체	χ^2(p)
초등학교 3학년	6	0	13	19	53.447*** (.000)
	31.6%	.0%	68.4%	100.0%	
초등학교 5학년	6	0	13	19	
	31.6%	.0%	68.4%	100.0%	
중학교 1학년	3	0	37	40	
	7.5%	.0%	92.5%	100.0%	
고등학교 2학년	1	18	21	40	
	2.5%	45.0%	52.5%	100.0%	
전체	16	18	84	118	
	13.6%	15.3%	71.2%	100.0%	

***p<.001

<표Ⅰ-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료 A의 감동의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감동적 요소가 전혀 없는 경우가 71.2%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였으며 미흡하지만 감동적 요소가 있는 경우가 15.3%, 감동을 주는 경우 13.6%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서는 학년이 낮을수록 감동적 서사를 보이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1)

<표Ⅰ-26> 자료 A의 서사표현능력 '형식'면 학년별 점수빈도

	형식																				
	인물의 성격이 인물이 처한 상황과의 관계에서 제시되는가?			인물의 행동이 성격과 연계되어 제시되는가?			인물 사이의 관계로부터 사건이 만들어지는가?			중심사건이 있는가?			중심사건의 발단의 개연성이 있는가?			사건의 전개과정이 인과적인가?			사건의 전개가 주제를 잘 드러내는가?		
	인물의 성격이 드러나 있지 않다.	인물의 성격을 간단하게 제시한다.	인물의 성격을 인물이 처한 상황과 관계에서 제시한다.	인물의 행동에 일관성이 없다.	인물의 성격은 드러나지 않지만, 행동자체의 일관성은 있다	인물의 행동이 성격과 일치한다.	인물 사이의 관계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인물 사이의 관계는 구체적이나, 사건과의 관계 모호하다.	인물 사이의 관계가 사건과 연계되어 있다.	사건자체가 드러나지 않는다.	중심사건이 없다.	중심사건이 잘 드러난다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	우연적이나 어느 정도 맥락에는 닿아 있다.	중심사건의 구체적 원인이 제시되어 있다.	사건 전개가 구조화 되지 않았다.	사건 전개가 시간적 순서에 의해 이루어진다.	사건 전개가 논리적 인과관계에 의해 이루어진다.	사건의 전개가 주제와는 별개로 이루어진다.	사건의 전개가 주제를 드러내는 정도가 미약하다.	사건의 전개가 주제를 잘 드러낸다.
초등학교 3학년	11	3	5	8	9	2	7	7	5	2	13	4	1	17	1	11	7	1	10	9	
	57.9%	15.8%	26.3%	42.1%	47.4%	10.5%	36.8%	36.8%	26.3%	10.5%	68.4%	21.1%	5.3%	89.5%	5.3%	57.9%	36.8%	5.3%	52.6%	47.4%	
초등학교 5학년	14	4	1	9	7	3	1	2	16	1	9	9	4	14	1	8	11		9	10	
	73.7%	21.1%	5.3%	47.4%	36.8%	15.8%	5.3%	10.5%	84.2%	5.3%	47.4%	47.4%	21.1%	73.7%	5.3%	42.1%	57.9%		47.4%	52.6%	
중학교 1학년	13	18	9	14	18	8	1	10	29		16	24	6	27	7	7	29	4	15	22	3
	32.5%	45.0%	22.5%	35.0%	45.0%	20.0%	2.5%	25.0%	72.5%		40.0%	60.0%	15.0%	67.5%	17.5%	17.5%	72.5%	10.0%	37.5%	55.0%	7.5%
고등학교 2학년	21	15	4	6	29	5	1	8	31	1	12	27	3	18	19	5	20	15	6	17	17
	52.5%	37.5%	10.0%	15.0%	72.5%	12.5%	2.5%	20.0%	77.5%	2.5%	30.0%	67.5%	7.5%	45.0%	47.5%	12.5%	50.0%	37.5%	15.0%	42.5%	42.5%

<표Ⅰ-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사표현능력의 형식면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항목이 학년이 높아질수록 나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주목할 것은 '인물의 성격이 인물이 처한 상황과의 관계 속에서 제시되는가?'의 항목으로 초등학교 3학년의 서사표현을 살펴보면 다른 학년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 다른 학년에 비해 상황이나 주어진 배경과 인물의 특징에서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려는 성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초등학교 5학년의 경우 다른 항목의 점수에는 큰 변화라고 볼 수 없는 발달의 경향을 보여주나, 인물의 관계를 사건과 연관지을 수 있는 능력이 초등학교 3학년 26%에 비해 84%로 크게 발달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특징적이다. 중학교 1학년은 대체로 구조화된 서사를

표현하기 시작하였는데, 여전히 시간적 순서에 의한 일률적 구성의 형태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 가장 큰 특징은 사건전개를 통해 주제를 드러내는 능력이 발달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표Ⅰ-27> 자료 A의 서사표현능력 '표현'면 학년별 점수빈도

	표현					
	서술 시점의 일관성			표현 방식의 적절성		
	시점의 혼란이 있다.	시점의 일관성이 있다.	시점을 적절히 활용하였다.	서술어에 일관성, 적절성 없다.	서술만으로 서사를 전개한다.	어휘풍부하며, 서술과 묘사를 적절히 사용할 줄 안다.
초등학교 3학년	5	14		6	13	
	26.3%	73.7%		31.6%	68.4%	
초등학교 5학년	1	18		2	16	1
	5.3%	94.7%		10.5%	84.2%	5.3%
중학교 1학년	3	34	3	5	31	4
	7.5%	85.0%	7.5%	12.5%	77.5%	10.0%
고등학교 2학년	1	34	5		26	14
	2.5%	85.0%	12.5%		65.0%	35.0%

<표 Ⅰ-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현의 측면을 서술 시점과 표현 방식의 적절성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초등학교 3학년의 경우 시점의 혼란이 있거나 서술어의 일관성(적절성)등이 없는 경우가 종종 나타났던 것에 비해 초등학교 5학년이 되면 대체로 서사내의 시점은 일관성 있게 표현할 수 있었으며, 표현 방식에 있어서는 주로 서술의 방식을 취하였다. 중학교 1학년에는 간혹 표현의 효과를 위해 시점을 활용하거나 묘사를 적절히 사용하기도 하였고, 이러한 경향은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 조금 더 두드러진다.

<표Ⅰ-28> 자료 A의 서사표현능력 '내용'면 학년별 주제 분석

	우정	인물소개	성취	모호	잘난척	학교생활	공포	애정	학교폭력	경쟁	정신병자	탈선	인기	모험	협동	동성애	가족애	사회문제	복수살인	정의	전체
초등3	8	1	4	3	1	1	0	0	0	1	0	0	0	0	0	0	0	0	0	0	19
	42.1%	5.3%	21.1%	15.8%	5.3%	5.3%	.0%	.0%	.0%	5.3%	.0%	.0%	.0%	.0%	.0%	.0%	.0%	.0%	.0%	.0%	100%
초등5	5	0	0	1	0	2	2	7	1	1	0	0	0	0	0	0	0	0	0	0	19
	26.3%	.0%	.0%	5.3%	.0%	10.5%	10.5%	36.8%	5.3%	5.3%	.0%	.0%	.0%	.0%	.0%	.0%	.0%	.0%	.0%	.0%	100%
중등1	12	0	1	0	0	0	7	13	1	0	1	1	1	2	1	0	0	0	0	0	40
	27.5%	.0%	2.5%	.0%	.0%	.0%	17.5%	32.5%	2.5%	.0%	2.5%	2.5%	2.5%	5.0%	2.5%	.0%	.0%	.0%	.0%	.0%	100%
고등2	1	0	0	3	0	0	5	23	0	0	0	0	0	0	0	1	1	1	3	1	39
	2.6%	.0%	.0%	7.7%	.0%	.0%	12.8%	59.0%	.0%	.0%	.0%	.0%	.0%	.0%	.0%	2.6%	2.6%	2.6%	5.1%	2.6%	100%
전체	26	1	5	7	1	3	14	43	2	2	1	1	1	2	1	1	1	1	3	1	117
	22.2%	.9%	4.3%	6.0%	.9%	2.6%	12.0%	36.8%	1.7%	1.7%	.9%	.9%	.9%	1.7%	.9%	.9%	.9%	.9%	1.7%	.9%	100%

<표Ⅰ-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료 A의 서사의 경우 전체의 37%에 달하는 학생들이 애정을 주제로 하여 창작하였는데 초등학교 5학년에서부터 점차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이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청소년기의 심리적 경향에 의한 것이나, 매체의 영향 등의 다양한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2. 자료 *B*의 서사표현능력 분석

<표Ⅱ-1> 인물의 성격이 드러나 있는가?

			인물의 성격이 드러나 있지 않다.	인물의 성격을 간단하게 제시한다.	전체	χ^2(p)
초등학교 3학년	성별	남학생	11		11	
			100.0%		100.0%	
		여학생	8		8	
			100.0%		100.0%	
	전체		19		19	
			100.0%		100.0%	
초등학교 5학년	성별	남학생	12	0	12	1.579 (.209)
			100.0%	.0%	100.0%	
		여학생	7	1	8	
			87.5%	12.5%	100.0%	
	전체		19	1	20	
			95.0%	5.0%	100.0%	
중학교 1학년	성별	남학생	17	0	17	4.914* (.027)
			100.0%	.0%	100.0%	
		여학생	15	5	20	
			75.0%	25.0%	100.0%	
	전체		32	5	37	
			86.5%	13.5%	100.0%	
고등학교 2학년	성별	남학생	18	2	20	.360 (.548)
			90.0%	10.0%	100.0%	
		여학생	19	1	20	
			95.0%	5.0%	100.0%	
	전체		37	3	40	
			92.5%	7.5%	100.0%	

*p<.05

<표Ⅱ-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물의 성격에 대해 살펴보면 초등학교 3학년의 경우에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같게 나타났고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의 경우에는 여학생보다 남학생가 인물의 성격이 드러나 있지 않다는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인물의 성격이 드러나 있지

않다는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Ⅱ-2> 인물의 행동이 성격과 연계되어 제시되는가?

			인물의 행동에 일관성이 없다.	인물의 성격은 드러나지 않지만, 행동자체의 일관성은 있다	인물의 행동이 성격과 일치한다.	전체	X^2 (p)
초등학교 3학년	성별	남학생	5	6		11	.833 (.361)
			45.5%	54.5%		100.0%	
		여학생	2	6		8	
			25.0%	75.0%		100.0%	
	전체		7	12		19	
			36.8%	63.2%		100.0%	
초등학교 5학년	성별	남학생	1	11		12	.093 (.761)
			8.3%	91.7%		100.0%	
		여학생	1	7		8	
			12.5%	87.5%		100.0%	
	전체		2	18		20	
			10.0%	90.0%		100.0%	
중학교 1학년	성별	남학생	5	12	0	17	1.840 (.398)
			29.4%	70.6%	.0%	100.0%	
		여학생	3	16	1	20	
			15.0%	80.0%	5.0%	100.0%	
	전체		8	28	1	37	
			21.6%	75.7%	2.7%	100.0%	
고등학교 2학년	성별	남학생	2	18	0	20	3.027 (.220)
			10.0%	90.0%	.0%	100.0%	
		여학생	0	19	1	20	
			.0%	95.0%	5.0%	100.0%	
	전체		2	37	1	40	
			5.0%	92.5%	2.5%	100.0%	

<표Ⅱ-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물의 행동에 대해 살펴보면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인물의 성격은 드러나지 않지만, 행동자체의 일관성은 있는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고 초등학교 5의 경우에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인물의 성격은 드러나지 않지만, 행동자체의 일관성은 있다는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Ⅱ-3> 인물 사이의 관계로부터 사건이 만들어지는가?

	인물 사이의 관계성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인물사이의 관계는 구체적이나, 사건과의 관계 모호하다.	인물사이의 관계가 사건과 연계되어 있다.	전체	X^2 (p)

초등학교 3학년	성별	남학생	4	6	1	11	1.360 (.507)
			36.4%	54.5%	9.1%	100.0%	
		여학생	1	6	1	8	
			12.5%	75.0%	12.5%	100.0%	
	전체		5	12	2	19	
			26.3%	63.2%	10.5%	100.0%	
초등학교 5학년	성별	남학생	3	4	5	12	4.514 (.105)
			25.0%	33.3%	41.7%	100.0%	
		여학생	0	1	7	8	
			.0%	12.5%	87.5%	100.0%	
	전체		3	5	12	20	
			15.0%	25.0%	60.0%	100.0%	
중학교 1학년	성별	남학생	1	4	12	17	.091 (.956)
			5.9%	23.5%	70.6%	100.0%	
		여학생	1	4	15	20	
			5.0%	20.0%	75.0%	100.0%	
	전체		2	8	27	37	
			5.4%	21.6%	73.0%	100.0%	
고등학교 2학년	성별	남학생	1	2	17	20	.000 (1.000)
			5.0%	10.0%	85.0%	100.0%	
		여학생	1	2	17	20	
			5.0%	10.0%	85.0%	100.0%	
	전체		2	4	34	40	
			5.0%	10.0%	85.0%	100.0%	

<표Ⅱ-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물 사이의 관계로부터 사건이 만들어지는가에 대해 살펴보면 초등학교 3학년의 경우에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인물사이의 관계는 구체적이나, 사건과의 관계 모호한 경우가 높게 나타났고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의 경우에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인물사이의 관계가 사건과 연계되어 있다는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같게 나타났다.

<표Ⅱ-4> 중심사건이 있는가?

			중심 사건이 없다.	중심 사건이 잘 드러난다.	전체	χ^2 (p)
초등학교 3학년	성별	남학생	6	5	11	.540 (.463)
			54.5%	45.5%	100.0%	
		여학생	3	5	8	
			37.5%	62.5%	100.0%	
	전체		9	10	19	
			47.4%	52.6%	100.0%	
	성	남학생	3	9	12	
			25.0%	75.0%	100.0%	
		여학생	0	8	8	

초등학교 5학년	별		.0%	100.0%	100.0%	2.353 (.125)
	전체		3	17	20	
			15.0%	85.0%	100.0%	
중학교 1학년	성별	남학생	5	12	17	.442 (.506)
			29.4%	70.6%	100.0%	
		여학생	4	16	20	
			20.0%	80.0%	100.0%	
	전체		9	28	37	
			24.3%	75.7%	100.0%	
고등학교 2학년	성별	남학생	3	17	20	1.111 (.292)
			15.0%	85.0%	100.0%	
		여학생	1	19	20	
			5.0%	95.0%	100.0%	
	전체		4	36	40	
			10.0%	90.0%	100.0%	

<표Ⅱ-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심사건이 있는가?' 에 대해 살펴보면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중심 사건이 잘 드러난다는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	우연적이나 어느 정도 맥락에는 닿아 있다.	중심사건에 구체적 원인 제시되어있다.	전체	(p)
초등학교 3학년	성별	남학생	4	6	1	11	X^2 .780 (.677)
			36.4%	54.5%	9.1%	100.0%	
		여학생	3	5	0	8	
			37.5%	62.5%	.0%	100.0%	
	전체		7	11	1	19	
			36.8%	57.9%	5.3%	100.0%	
초등학교 5학년	성별	남학생	3	6	3	12	3.413 (.181)
			25.0%	50.0%	25.0%	100.0%	
		여학생	1	7	0	8	
			12.5%	87.5%	.0%	100.0%	
	전체		4	13	3	20	
			20.0%	65.0%	15.0%	100.0%	
중학교 1학년	성별	남학생	7	8	2	17	2.887 (.236)
			41.2%	47.1%	11.8%	100.0%	
		여학생	5	8	7	20	
			25.0%	40.0%	35.0%	100.0%	
	전체		12	16	9	37	
			32.4%	43.2%	24.3%	100.0%	
고등학교 2학년	성별	남학생		6	14	20	.000 (1.000)
				30.0%	70.0%	100.0%	
		여학생		6	14	20	
				30.0%	70.0%	100.0%	

	전체		12	28	40	
			30.0%	70.0%	100.0%	

<표Ⅱ-5> 중심사건의 발단에 개연성이 있는가?

<표Ⅱ-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심사건의 발단: 개연성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5학년의 경우에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우연적이나 어느 정도 맥락에는 닿아 있다는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고 중학교 1학년의 경우에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전혀 엉뚱한 우연성이라는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같게 나타났다.

<표Ⅱ-6> 사건의 전개과정이 인과적인가?

			사건전개가 구조화되지 않았다.	사건전개가 시간적 순서에 의해 이루어진다.	사건전개가 논리적 인과관계에 의해 이루어진다.	전체	X^2(p)
초등학교 3학년	성별	남학생	6	5		11	1.659 (.198)
			54.5%	45.5%		100.0%	
		여학생	2	6		8	
			25.0%	75.0%		100.0%	
	전체		8	11		19	
			42.1%	57.9%		100.0%	
초등학교 5학년	성별	남학생	3	9	0	12	1.875 (.392)
			25.0%	75.0%	.0%	100.0%	
		여학생	1	6	1	8	
			12.5%	75.0%	12.5%	100.0%	
	전체		4	15	1	20	
			20.0%	75.0%	5.0%	100.0%	
중학교 1학년	성별	남학생	3	12	2	17	.466 (.792)
			17.6%	70.6%	11.8%	100.0%	
		여학생	3	13	4	20	
			15.0%	65.0%	20.0%	100.0%	
	전체		6	25	6	37	
			16.2%	67.6%	16.2%	100.0%	
고등학교 2학년	성별	남학생	1	13	6	20	1.767 (.413)
			5.0%	65.0%	30.0%	100.0%	
		여학생	0	11	9	20	
			.0%	55.0%	45.0%	100.0%	
	전체		1	24	15	40	
			2.5%	60.0%	37.5%	100.0%	

<표Ⅱ-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건의 구성에 대해 살펴보면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5학년의 경우에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처음-중간-끝이 분명하지 않아

구조화 되지 않은 사건인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고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에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시간적 순서에 의해라는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Ⅱ-7> 사건의 전개가 주제를 잘 드러내는가?

			사건의 전개가 주제와는 별개로 이루어진다.	사건의 전개가 주제를 드러내는 정도가 미약하다.	사건의 전개가 주제를 잘 드러낸다.	전체	X^2(p)
초등학교 3학년	성별	남학생	5	6		11	.038 (.845)
			45.5%	54.5%		100.0%	
		여학생	4	4		8	
			50.0%	50.0%		100.0%	
	전체		9	10		19	
			47.4%	52.6%		100.0%	
초등학교 5학년	성별	남학생	5	4	3	12	2.269 (.322)
			41.7%	33.3%	25.0%	100.0%	
		여학생	1	5	2	8	
			12.5%	62.5%	25.0%	100.0%	
	전체		6	9	5	20	
			30.0%	45.0%	25.0%	100.0%	
중학교 1학년	성별	남학생	4	10	3	17	1.701 (.427)
			23.5%	58.8%	17.6%	100.0%	
		여학생	5	8	7	20	
			25.0%	40.0%	35.0%	100.0%	
	전체		9	18	10	37	
			24.3%	48.6%	27.0%	100.0%	
고등학교 2학년	성별	남학생	1	8	11	20	1.696 (.428)
			5.0%	40.0%	55.0%	100.0%	
		여학생	2	11	7	20	
			10.0%	55.0%	35.0%	100.0%	
	전체		3	19	18	40	
			7.5%	47.5%	45.0%	100.0%	

<표Ⅱ-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건의 전개에 대해 살펴보면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의 경우에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사건의 전개가 주제를 드러내는 정도가 미약한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고 초등학교 5학년,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에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사건의 전개가 주제를 드러내는 정도가 미약한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Ⅱ-8> 서술 시점의 일관성이 지켜졌는가?

	시점의 혼란이 있다.	시점의 일관성이 있다.	시점을 적절히 활용 하였다.	전체	X^2(p)

초등학교 3학년	성별	남학생	0	11		11	1.451 (.228)
			.0%	100.0%		100.0%	
		여학생	1	7		8	
			12.5%	87.5%		100.0%	
	전체		1	18		19	
			5.3%	94.7%		100.0%	
초등학교 5학년	성별	남학생		12		12	
				100.0%		100.0%	
		여학생		8		8	
				100.0%		100.0%	
	전체			20		20	
				100.0%		100.0%	
중학교 1학년	성별	남학생		17	0	17	.874 (.350)
				100.0%	.0%	100.0%	
		여학생		19	1	20	
				95.0%	5.0%	100.0%	
	전체			36	1	37	
				97.3%	2.7%	100.0%	
고등학교 2학년	성별	남학생		20	0	20	2.105 (.147)
				100.0%	.0%	100.0%	
		여학생		18	2	20	
				90.0%	10.0%	100.0%	
	전체			38	2	40	
				95.0%	5.0%	100.0%	

<표Ⅱ-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술 시점의 일관성에 대해 살펴보면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에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시점의 일관성이 있게 쓴 경우가 많았으며 초등학교 5학년의 경우에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같게 나타났다.

<표Ⅱ-9> 서술어에 일관성, 적절성이 있는가?

			서술어에 일관성, 적절성 없다.	서술만으로 서사를 전개한다.	어휘풍부하며, 서술과 묘사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	전체	X^2 (p)
초등학교 3학년	성별	남학생	7	4		11	1.269 (.260)
			63.6%	36.4%		100.0%	
		여학생	3	5		8	
			37.5%	62.5%		100.0%	
	전체		10	9		19	
			52.6%	47.4%		100.0%	
초등학교 5학년	성별	남학생	1	11		12	1.046 (.306)
			8.3%	91.7%		100.0%	
		여학생	2	6		8	
			25.0%	75.0%		100.0%	

	전체		3	17		20	
			15.0%	85.0%		100.0%	
중학교 1학년	성별	남학생	1	16	0	17	9.537** (.008)
			5.9%	94.1%	.0%	100.0%	
		여학생	2	10	8	20	
			10.0%	50.0%	40.0%	100.0%	
	전체		3	26	8	37	
			8.1%	70.3%	21.6%	100.0%	
고등학교 2학년	성별	남학생	1	15	4	20	1.434 (.488)
			5.0%	75.0%	20.0%	100.0%	
		여학생	0	14	6	20	
			.0%	70.0%	30.0%	100.0%	
	전체		1	29	10	40	
			2.5%	72.5%	25.0%	100.0%	

**p<.01

<표Ⅱ-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현 방식의 적절성에 대해 살펴보면 초등학교 3학년의 경우에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서술만으로 서사를 전개하는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고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의 경우에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서술만으로 이야기전개라는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에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어휘풍부하며, 서술과 묘사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Ⅱ-10> 학년과 성별에 따른 '인물' 기술통계량

학년	성별	평균	표준편차	학생 수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	1.27	.786	11
	여학생	1.75	.886	8
	합계	1.47	.841	19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	2.08	.900	12
	여학생	2.88	.835	8
	합계	2.40	.940	20
중학교 1학년	남학생	2.35	.702	17
	여학생	2.85	1.040	20
	합계	2.62	.924	37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2.80	.616	20
	여학생	2.90	.718	20
	합계	2.85	.662	40
합계	남학생	2.25	.895	60
	여학생	2.71	.948	56
	합계	2.47	.946	116

<표Ⅱ-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년과 성별에 따른 '인물' 기술통계량에 대해 살펴보면 학년별로는 학년이 높을수록 더 높게 나타나 고등학생이 2.8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별로는 여학생이 2.71점으로 남학생의 2.25점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표Ⅱ-11> 학년과 성별에 따른 '사건' 기술통계량

학년	성별	평균	표준편차	학생 수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	3.18	1.722	11
	여학생	3.50	1.604	8
	합계	3.32	1.635	19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	4.33	1.826	12
	여학생	5.00	1.309	8
	합계	4.60	1.635	20
중학교 1학년	남학생	4.29	1.795	17
	여학생	5.05	2.114	20
	합계	4.70	1.984	37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6.30	1.261	20
	여학생	6.35	1.137	20
	합계	6.33	1.185	40
합계	남학생	4.77	1.969	60
	여학생	5.29	1.856	56
	합계	5.02	1.925	116

<표Ⅱ-1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년과 성별에 따른 '사건' 기술통계량에 대해 살펴보면 학년별로는 학년이 높을수록 더 높게 나타나 고등학생이 6.3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별로는 여학생이 5.29점으로 남학생의 4.77점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표Ⅱ-12> 학년과 성별에 따른 '형식' 기술통계량

학년	성별	평균	표준편차	학생 수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	4.45	2.207	11
	여학생	5.25	2.252	8
	합계	4.79	2.200	19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	6.42	2.353	12
	여학생	7.88	2.100	8
	합계	7.00	2.317	20
중학교 1학년	남학생	6.65	2.262	17
	여학생	7.90	2.845	20

	합계	7.32	2.636	37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9.10	1.683	20
	여학생	9.25	1.482	20
	합계	9.17	1.567	40
합계	남학생	7.02	2.639	60
	여학생	8.00	2.537	56
	합계	7.49	2.626	116

<표Ⅱ-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년과 성별에 따른 '형식' 기술통계량에 대해 살펴보면 학년별로는 학년이 높을수록 더 높게 나타나 고등학생이 9.1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별로는 여학생이 8.00점으로 남학생의 7.02점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표Ⅱ-13> 학년과 성별에 따른 '서술 · 표현' 기술통계량

학년	성별	평균	표준편차	학생 수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	1.36	.505	11
	여학생	1.50	.535	8
	합계	1.42	.507	19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	1.92	.289	12
	여학생	1.75	.463	8
	합계	1.85	.366	20
중학교 1학년	남학생	1.94	.243	17
	여학생	2.35	.745	20
	합계	2.16	.602	37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2.15	.489	20
	여학생	2.40	.681	20
	합계	2.28	.599	40
합계	남학생	1.90	.477	60
	여학생	2.16	.733	56
	합계	2.03	.625	116

<표Ⅱ-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년과 성별에 따른 '서술 · 표현' 기술통계량에 대해 살펴보면 학년별로는 학년이 높을수록 더 높게 나타나 고등학생이 2.2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별로는 여학생이 2.16점으로 남학생의 1.90점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표Ⅱ-14> 학년과 성별에 따른 '인물의 성격' 기술통계량

학년	성별	평균	표준편차	학생 수
	남학생	.00	.000	11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	.00	.000	8
	합계	.00	.000	19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	.00	.000	12
	여학생	.13	.354	8
	합계	.05	.224	20
중학교 1학년	남학생	.00	.000	17
	여학생	.25	.444	20
	합계	.14	.347	37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10	.308	20
	여학생	.05	.224	20
	합계	.08	.267	40
합계	남학생	.03	.181	60
	여학생	.13	.334	56
	합계	.08	.269	116

<표Ⅱ-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년과 성별에 따른 '인물의 성격' 기술통계량에 대해 살펴보면 학년별로는 중학생이 0.1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별로는 여학생이 0.13점으로 남학생의 0.03점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표Ⅱ-15> 학년과 성별에 따른 '인물의 행동' 기술통계량

학년	성별	평균	표준편차	학생 수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	.55	.522	11
	여학생	.75	.463	8
	합계	.63	.496	19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	.92	.289	12
	여학생	.88	.354	8
	합계	.90	.308	20
중학교 1학년	남학생	.71	.470	17
	여학생	.90	.447	20
	합계	.81	.462	37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90	.308	20
	여학생	1.05	.224	20
	합계	.98	.276	40
합계	남학생	.78	.415	60
	여학생	.93	.375	56
	합계	.85	.401	116

<표Ⅱ-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년과 성별에 따른 '인물의 행동' 기술통계량에 대해 살펴보면 학년별로는 학년이 높을수록 더 높게 나타나 고등학생이 0.9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별로는 여학생이 0.93점으로 남학생의 0.78점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표Ⅱ-16> 학년과 성별에 따른 '인물 관계와 사건' 기술통계량

학년	성별	평균	표준편차	학생 수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	.73	.647	11
	여학생	1.00	.535	8
	합계	.84	.602	19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	1.17	.835	12
	여학생	1.88	.354	8
	합계	1.45	.759	20
중학교 1학년	남학생	1.65	.606	17
	여학생	1.70	.571	20
	합계	1.68	.580	37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1.80	.523	20
	여학생	1.80	.523	20
	합계	1.80	.516	40
합계	남학생	1.43	.745	60
	여학생	1.66	.581	56
	합계	1.54	.677	116

<표Ⅱ-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년과 성별에 따른 '인물 관계와 사건' 기술통계량에 대해 살펴보면 학년별로는 학년이 높을수록 더 높게 나타나 고등학생이 1.8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별로는 여학생이 1.66점으로 남학생의 1.43점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표Ⅱ-17> 학년, 성별에 따른 '중심사건이 있는가?' 기술통계량

학년	성별	평균	표준편차	학생 수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	1.45	.522	11
	여학생	1.63	.518	8
	합계	1.53	.513	19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	1.75	.452	12
	여학생	2.00	.000	8
	합계	1.85	.366	20
중학교 1학년	남학생	1.71	.470	17
	여학생	1.80	.410	20
	합계	1.76	.435	37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1.85	.366	20
	여학생	1.95	.224	20
	합계	1.90	.304	40
합계	남학생	1.72	.454	60
	여학생	1.86	.353	56
	합계	1.78	.413	116

<표Ⅱ-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년과 성별에 따른 '중심사건이 있는가?' 기술통계량에 대해 살펴보면 학년별로는 학년이 높을수록 더 높게 나타나 고등학생이 1.9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별로는 여학생이 1.86점으로 남학생의 1.72점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표Ⅱ-18> 학년, 성별에 따른 '중심사건 발단에 개연성이 있는가?' 기술통계량

학년	성별	평균	표준편차	학생 수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	.73	.647	11
	여학생	.63	.518	8
	합계	.68	.582	19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	1.00	.739	12
	여학생	.88	.354	8
	합계	.95	.605	20
중학교 1학년	남학생	.71	.686	17
	여학생	1.10	.788	20
	합계	.92	.759	37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1.70	.470	20
	여학생	1.70	.470	20
	합계	1.70	.464	40
합계	남학생	1.10	.752	60
	여학생	1.21	.706	56
	합계	1.16	.730	116

<표Ⅱ-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년과 성별에 따른 '중심사건의 발단에 개연성이 있는가?' 기술통계량에 대해 살펴보면 학년별로는 학년이 높을수록 더 높게 나타나 고등학생이 1.7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별로는 여학생이 1.21점으로 남학생의 1.10점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표Ⅱ-19> 학년과 성별에 따른 '사건의 구성' 기술통계량

학년	성별	평균	표준편차	학생 수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	.45	.522	11
	여학생	.75	.463	8
	합계	.58	.507	19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	.75	.452	12
	여학생	1.00	.535	8
	합계	.85	.489	20
중학교 1학년	남학생	.94	.556	17
	여학생	1.05	.605	20

	합계	1.00	.577	37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1.25	.550	20
	여학생	1.45	.510	20
	합계	1.35	.533	40
합계	남학생	.92	.591	60
	여학생	1.14	.586	56
	합계	1.03	.597	116

<표Ⅱ-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년과 성별에 따른 '사건의 구성' 기술통계량에 대해 살펴보면 학년별로는 학년이 높을수록 더 높게 나타나 고등학생이 1.3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별로는 여학생이 1.14점으로 남학생의 0.92점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표Ⅱ-20> 학년과 성별에 따른 '사건의 전개' 기술통계량

학년	성별	평균	표준편차	학생 수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	.55	.522	11
	여학생	.50	.535	8
	합계	.53	.513	19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	.83	.835	12
	여학생	1.13	.641	8
	합계	.95	.759	20
중학교 1학년	남학생	.94	.659	17
	여학생	1.10	.788	20
	합계	1.03	.726	37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1.50	.607	20
	여학생	1.25	.639	20
	합계	1.37	.628	40
합계	남학생	1.03	.736	60
	여학생	1.07	.710	56
	합계	1.05	.720	116

<표Ⅱ-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년과 성별에 따른 '사건의 전개' (B. 죽음에 대처하는 행동) 기술통계량에 대해 살펴보면 학년별로는 학년이 높을수록 더 높게 나타나 고등학생이 1.3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별로는 여학생이 1.07점으로 남학생의 1.03점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표Ⅱ-21> 학년과 성별에 따른 '서술 시점의 일관성' 기술통계량

학년	성별	평균	표준편차	학생 수
	남학생	1.00	.000	11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	.88	.354	8
	합계	.95	.229	19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	1.00	.000	12
	여학생	1.00	.000	8
	합계	1.00	.000	20
중학교 1학년	남학생	1.00	.000	17
	여학생	1.05	.224	20
	합계	1.03	.164	37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1.00	.000	20
	여학생	1.10	.308	20
	합계	1.05	.221	40
합계	남학생	1.00	.000	60
	여학생	1.04	.267	56
	합계	1.02	.186	116

<표Ⅱ-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년과 성별에 따른 '서술 시점의 일관성' 기술통계량에 대해 살펴보면 학년별로는 학년이 높을수록 더 높게 나타나 고등학생이 1.0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별로는 여학생이 1.04점으로 남학생의 1.00점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표Ⅱ-22> 학년과 성별에 따른 '표현 방식의 적절성' 기술통계량

학년	성별	평균	표준편차	학생 수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	.36	.505	11
	여학생	.63	.518	8
	합계	.47	.513	19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	.92	.289	12
	여학생	.75	.463	8
	합계	.85	.366	20
중학교 1학년	남학생	.94	.243	17
	여학생	1.30	.657	20
	합계	1.14	.536	37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1.15	.489	20
	여학생	1.30	.470	20
	합계	1.23	.480	40
합계	남학생	.90	.477	60
	여학생	1.13	.605	56
	합계	1.01	.552	116

<표Ⅱ-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년과 성별에 따른 '표현 방식의 적절성' 기술통계량에 대해 살펴보면 학년별로는 학년이 높을수록 더 높게 나타나 고등학생이 1.2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별로는 여학생이 1.13점으로 남학생의 0.90점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표Ⅱ-23> 학년과 성별에 따른 '인물' 기술통계량

학년	성별	평균	표준편차	학생 수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	1.62	.921	21
	여학생	2.18	1.468	17
	합계	1.87	1.212	38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	2.17	.984	23
	여학생	3.19	1.328	16
	합계	2.59	1.229	39
중학교 1학년	남학생	2.79	.978	39
	여학생	3.32	1.141	38
	합계	3.05	1.087	77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2.85	.802	40
	여학생	3.30	.883	40
	합계	3.08	.868	80
합계	남학생	2.50	1.019	123
	여학생	3.12	1.197	111
	합계	2.79	1.147	234

<표Ⅱ-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년과 성별에 따른 '인물' 기술통계량에 대해 살펴보면 학년별로는 학년이 높을수록 더 높게 나타나 고등학생이 3.0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별로는 여학생이 3.12점으로 남학생의 2.50점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표Ⅱ-24> 학년과 성별에 따른 '사건' 기술통계량

학년	성별	평균	표준편차	학생 수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	3.29	1.586	21
	여학생	3.06	1.478	17
	합계	3.18	1.522	38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	3.57	1.973	23
	여학생	4.63	1.310	16
	합계	4.00	1.792	39
중학교 1학년	남학생	4.15	1.770	39
	여학생	4.79	1.833	38
	합계	4.47	1.818	77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5.73	1.974	40
	여학생	6.18	1.375	40
	합계	5.95	1.706	80
합계	남학생	4.41	2.068	123
	여학생	5.00	1.864	111
	합계	4.69	1.992	234

<표Ⅱ-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년과 성별에 따른 '사건' 기술통계량에 대해

살펴보면 학년별로는 학년이 높을수록 더 높게 나타나 고등학생이 5.9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별로는 여학생이 5.00으로 남학생의 4.41점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표Ⅱ-25> 학년과 성별에 따른 '형식' 기술통계량

학년	성별	평균	표준편차	학생 수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	4.90	2.278	21
	여학생	5.24	2.333	17
	합계	5.05	2.277	38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	5.74	2.562	23
	여학생	7.81	2.373	16
	합계	6.59	2.663	39
중학교 1학년	남학생	6.95	2.316	39
	여학생	8.11	2.447	38
	합계	7.52	2.437	77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8.57	2.417	40
	여학생	9.48	1.585	40
	합계	9.03	2.081	80
합계	남학생	6.90	2.726	123
	여학생	8.12	2.536	111
	합계	7.48	2.701	234

<표Ⅱ-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년과 성별에 따른 '형식' 기술통계량에 대해 살펴보면 학년별로는 학년이 높을수록 더 높게 나타나 고등학생이 9.0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별로는 여학생이 8.12점으로 남학생의 6.90점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표Ⅱ-26> 학년과 성별에 따른 '서술 · 표현' 기술통계량

학년	성별	평균	표준편차	학생 수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	1.43	.598	21
	여학생	1.41	.712	17
	합계	1.42	.642	38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	1.87	.344	23
	여학생	1.88	.500	16
	합계	1.87	.409	39
중학교 1학년	남학생	1.92	.580	39
	여학생	2.21	.704	38
	합계	2.06	.656	77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2.28	.599	40
	여학생	2.45	.639	40
	합계	2.36	.621	80
	남학생	1.94	.618	123

합계	여학생	2.13	.740	111
	합계	2.03	.683	234

<표Ⅱ-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년과 성별에 따른 '서술·표현' 기술통계량에 대해 살펴보면 학년별로는 학년이 높을수록 더 높게 나타나 고등학생이 2.3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별로는 여학생이 2.13점으로 남학생의 1.94점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표Ⅱ-27> 학년과 성별에 따른 '인물의 성격' 기술통계량

학년	성별	평균	표준편차	학생 수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	.24	.625	21
	여학생	.47	.800	17
	합계	.34	.708	38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	.09	.288	23
	여학생	.31	.602	16
	합계	.18	.451	39
중학교 1학년	남학생	.38	.673	39
	여학생	.68	.702	38
	합계	.53	.699	77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27	.599	40
	여학생	.38	.540	40
	합계	.32	.569	80
합계	남학생	.27	.588	123
	여학생	.49	.659	111
	합계	.37	.631	234

<표Ⅱ-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년과 성별에 따른 '인물의 성격' 기술통계량에 대해 살펴보면 학년별로는 중학생이 0.5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별로는 여학생이 0.49점으로 남학생의 0.27점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표Ⅱ-28> 학년과 성별에 따른 '인물의 행동' 기술통계량

학년	성별	평균	표준편차	학생 수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	.62	.498	21
	여학생	.71	.686	17
	합계	.66	.582	38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	.65	.487	23
	여학생	1.00	.632	16
	합계	.79	.570	39
중학교 1학년	남학생	.69	.569	39
	여학생	.97	.636	38
	합계	.83	.616	77
	남학생	.87	.404	40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	1.08	.417	40
	합계	.98	.420	80
합계	남학생	.73	.497	123
	여학생	.97	.579	111
	합계	.85	.550	234

<표Ⅱ-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년과 성별에 따른 '인물의 행동' 기술통계량에 대해 살펴보면 학년별로는 학년이 높을수록 더 높게 나타나 고등학생이 0.9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별로는 여학생이 0.97점으로 남학생의 0.73점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표Ⅱ-29> 학년과 성별에 따른 '인물관계와 사건의 연계성' 기술통계량

학년	성별	평균	표준편차	학생 수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	.76	.768	21
	여학생	1.00	.612	17
	합계	.87	.704	38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	1.43	.788	23
	여학생	1.87	.342	16
	합계	1.62	.673	39
중학교 1학년	남학생	1.72	.510	39
	여학생	1.66	.582	38
	합계	1.69	.544	77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1.70	.564	40
	여학생	1.85	.427	40
	합계	1.77	.503	80
합계	남학생	1.50	.717	123
	여학생	1.66	.580	111
	합계	1.57	.659	234

<표Ⅱ-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년과 성별에 따른 '인물관계와 사건의 연계성' 기술통계량에 대해 살펴보면 학년별로는 학년이 높을수록 더 높게 나타나 고등학생이 1.7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별로는 여학생이 1.66점으로 남학생의 1.50점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표Ⅱ-30> 학년, 성별에 따른 '중심사건이 있는가?' 기술통계량

학년	성별	평균	표준편차	학생 수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	1.33	.577	21
	여학생	1.29	.588	17
	합계	1.32	.574	38
	남학생	1.57	.507	23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	1.75	.577	16
	합계	1.64	.537	39
중학교 1학년	남학생	1.62	.493	39
	여학생	1.74	.446	38
	합계	1.68	.471	77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1.72	.506	40
	여학생	1.83	.385	40
	합계	1.78	.449	80
합계	남학생	1.59	.525	123
	여학생	1.70	.497	111
	합계	1.65	.514	234

<표Ⅱ-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년과 성별에 따른 '중심사건이 있는가?' 기술통계량에 대해 살펴보면 학년별로는 학년이 높을수록 더 높게 나타나 고등학생이 1.7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별로는 여학생이 1.70점으로 남학생의 1.59점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표Ⅱ-31> 학년, 성별에 따른 '중심사건의 발단의 개연성이 있는가?' 기술통계량

학년	성별	평균	표준편차	학생 수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	.90	.539	21
	여학생	.76	.437	17
	합계	.84	.495	38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	.83	.650	23
	여학생	1.00	.365	16
	합계	.90	.552	39
중학교 1학년	남학생	.85	.670	39
	여학생	1.11	.649	38
	합계	.97	.668	77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1.50	.641	40
	여학생	1.60	.496	40
	합계	1.55	.571	80
합계	남학생	1.07	.698	123
	여학생	1.22	.609	111
	합계	1.14	.660	234

<표Ⅱ-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년과 성별에 따른 '중심사건의 발단의 개연성이 있는가?' 기술통계량에 대해 살펴보면 학년별로는 학년이 높을수록 더 높게 나타나 고등학생이 1.5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별로는 여학생이 1.22점으로 남학생의 1.07점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표Ⅱ-32> 학년과 성별에 따른 '사건의 구성' 기술통계량

학년	성별	평균	표준편차	학생 수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	.52	.602	21
	여학생	.53	.514	17
	합계	.53	.557	38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	.57	.507	23
	여학생	.94	.443	16
	합계	.72	.510	39
중학교 1학년	남학생	.95	.510	39
	여학생	.97	.592	38
	합계	.96	.549	77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1.18	.636	40
	여학생	1.42	.549	40
	합계	1.30	.604	80
합계	남학생	.88	.622	123
	여학생	1.06	.622	111
	합계	.97	.627	234

<표Ⅱ-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년과 성별에 따른 '사건의 구성' 기술통계량에 대해 살펴보면 학년별로는 학년이 높을수록 더 높게 나타나 고등학생이 1.3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별로는 여학생이 1.06점으로 남학생의 0.88점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표Ⅱ-33> 학년과 성별에 따른 '사건의 전개' 기술통계량

학년	성별	평균	표준편차	학생 수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	.52	.512	21
	여학생	.47	.514	17
	합계	.50	.507	38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	.61	.722	23
	여학생	.94	.574	16
	합계	.74	.677	39
중학교 1학년	남학생	.74	.677	39
	여학생	.97	.677	38
	합계	.86	.683	77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1.33	.694	40
	여학생	1.33	.656	40
	합계	1.32	.671	80
합계	남학생	.87	.735	123
	여학생	1.02	.687	111
	합계	.94	.715	234

<표Ⅱ-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년과 성별에 따른 '사건의 전개' 기술통계량에

대해 살펴보면 학년별로는 학년이 높을수록 더 높게 나타나 고등학생이 1.3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별로는 여학생이 1.02점으로 남학생의 0.87점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표Ⅱ-34> 학년과 성별에 따른 '서술 시점의 일관성' 기술통계량

학년	성별	평균	표준편차	학생 수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	.95	.218	21
	여학생	.71	.470	17
	합계	.84	.370	38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	1.00	.000	23
	여학생	.94	.250	16
	합계	.97	.160	39
중학교 1학년	남학생	.97	.280	39
	여학생	1.05	.324	38
	합계	1.01	.303	77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1.03	.276	40
	여학생	1.12	.335	40
	합계	1.07	.309	80
합계	남학생	.99	.239	123
	여학생	1.01	.369	111
	합계	1.00	.307	234

<표Ⅱ-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년과 성별에 따른 '서술 시점의 일관성' 기술통계량에 대해 살펴보면 학년별로는 학년이 높을수록 더 높게 나타나 고등학생이 1.0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별로는 여학생이 1.01점으로 남학생의 0.99점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상호작용 효과는 있었다.

<표Ⅱ-35> 학년과 성별에 따른 '표현 방식의 적절성' 기술통계량

학년	성별	평균	표준편차	학생 수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	.48	.512	21
	여학생	.71	.470	17
	합계	.58	.500	38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	.87	.344	23
	여학생	.94	.443	16
	합계	.90	.384	39
중학교 1학년	남학생	.95	.394	39
	여학생	1.16	.594	38
	합계	1.05	.510	77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1.25	.494	40
	여학생	1.32	.474	40
	합계	1.29	.482	80
	남학생	.95	.510	123
	여학생	1.12	.552	111

합계	합계	1.03	.535	234

<표Ⅱ-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년과 성별에 따른 '표현 방식의 적절성' 기술 통계량에 대해 살펴보면 학년별로는 학년이 높을수록 더 높게 나타나 고등학생이 1.2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별로는 여학생이 1.12점으로 남학생의 0.95점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표Ⅱ-36> 학년에 따른 주제

	우정	모호	공포	애정	복수	정의	반성	우애	자유	오진	희생	운명	영웅	가족	죽음	인과응보	선행	행복	도전	구원	종교적 구원	전체	χ^2 (p)
초등학교3	8	3	0	0	0	0	0	2	0	0	0	0	2	1	0	0	0	0	1	1	1	19	69.914 (.179)
	42.1%	15.8%	.0%	.0%	.0%	.0%	.0%	10.5%	.0%	.0%	.0%	.0%	10.5%	5.3%	.0%	.0%	.0%	.0%	5.3%	5.3%	5.3%	100%	
초등학교5	12	1	1	0	0	0	1	1	0	0	1	0	0	0	0	0	1	1	0	0	0	19	
	63.2%	5.3%	5.3%	.0%	.0%	.0%	5.3%	5.3%	.0%	.0%	5.3%	.0%	.0%	.0%	.0%	.0%	5.3%	5.3%	.0%	.0%	.0%	100%	
중학교1	22	3	0	1	0	1	0	1	1	0	4	0	1	1	1	1	0	0	0	0	0	37	
	59.5%	8.1%	.0%	2.7%	.0%	2.7%	.0%	2.7%	2.7%	.0%	10.8%	.0%	2.7%	2.7%	2.7%	2.7%	.0%	.0%	.0%	.0%	.0%	100%	
고등학교2	28	1	0	0	2	1	3	1	1	1	1	1	0	0	0	0	0	0	0	0	0	40	
	70.0%	2.5%	.0%	.0%	5.0%	2.5%	7.5%	2.5%	2.5%	2.5%	2.5%	2.5%	.0%	.0%	.0%	.0%	.0%	.0%	.0%	.0%	.0%	100%	
전체	70	8	1	1	2	2	4	5	2	1	6	1	3	2	1	1	1	1	1	1	1	115	
	60.9%	7.0%	.9%	.9%	1.7%	1.7%	3.5%	4.3%	1.7%	.9%	5.2%	.9%	2.6%	1.7%	.9%	.9%	.9%	.9%	.9%	.9%	.9%	100%	

<표Ⅱ-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료 B의 주제에 대해 살펴보면 우정이 60.9%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서는 학년이 높을수록 우정이라는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고 반대로 학년이 낮을수록 주제가 모호한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Ⅱ-37> 학년에 따른 제제

	질병	희생	형제	장기기증	사형	전쟁	성공	악당	오진	모호	사4	운명	대결	시간	돈	환상	폭탄	석방	애정	전후유증	동성연애
초3	2	2	0	0	1	1	0	3	0	0	1	0	0	0	1	0	1	0	0	0	0
	10.5	10.5	.0%	.0%	5.3	5.3	.0%	15.8	.0%	.0%	5.3	.0%	.0%	.0%	5.3	.0%	5.3	.0%	.0%	.0%	.0%

	%	%			%	%		%			%				%		%			
초5	9	2	0	0	1	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45.0%	10.0%	.0%	.0%	5.0%	10.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중1	12	2	0	0	3	0	0	2	0	0	1	1	0	0	0	1	2	1	1	1
	32.4%	5.4%	.0%	.0%	8.1%	.0%	.0%	5.4%	.0%	.0%	2.7%	2.7%	.0%	.0%	.0%	2.7%	5.4%	2.7%	2.7%	2.7%
고2	13	1	1	2	6	2	1	4	1	1	2	2	2	1	1	0	0	0	0	0
	32.5%	2.5%	2.5%	5.0%	15.0%	5.0%	2.5%	10.0%	2.5%	2.5%	5.0%	5.0%	5.0%	2.5%	2.5%	.0%	.0%	.0%	.0%	.0%
전체	36	7	1	2	11	5	1	9	1	1	4	3	2	1	2	1	3	1	1	1
	31.0%	6.0%	.9%	1.7%	9.5%	4.3%	.9%	7.8%	.9%	.9%	3.4%	2.6%	1.7%	.9%	1.7%	.9%	2.6%	.9%	.9%	.9%

	천국 지옥	누명	기억 상실	죽음	외계인	흡혈귀	직장	졸교	자살	미스테리	괴물	비행 도전	꿈	탈옥	배신	종교	영웅	비행	전체
초3	0	0	0	0	0	0	0	0	0	0	0	1	1	1	1	1	1	1	19
	초5	.0%	.0%	.0%	.0%	.0%	.0%	.0%	.0%	.0%	.0%	5.3%	5.3%	5.3%	5.3%	5.3%	5.3%	5.3%	100.0%
초5	0	0	0	0	0	0	0	1	2	1	2	0	0	0	0	0	0	0	20
	고	.0%	.0%	.0%	.0%	.0%	.0%	5.0%	10.0%	5.0%	10.0%	.0%	.0%	.0%	.0%	.0%	.0%	.0%	100.0%
중1	2	1	1	2	1	1	1	0	0	0	0	0	0	0	0	0	0	0	37
	5.4%	2.7%	2.7%	5.4%	2.7%	2.7%	2.7%	.0%	.0%	.0%	.0%	.0%	.0%	.0%	.0%	.0%	.0%	.0%	100.0%
고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4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00.0%
전체	2	1	1	2	1	1	1	1	2	1	2	1	1	1	1	1	1	1	116
	1.7%	.9%	.9%	1.7%	.9%	.9%	.9%	.9%	1.7%	.9%	1.7%	.9%	.9%	.9%	.9%	.9%	.9%	.9%	100.0%

<표Ⅱ-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료 B의 제제에 대해 살펴보면 질병이 31.0%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서는 학년이 높을수록 질병의 소재가 더 많이 나타났다.

<표Ⅱ-38> 학년에 따른 천국의 해석

	지옥과 대비된 의미로 이원화	그 외	전체	χ^2(p)
초등학교 3학년	14	5	19	18.483*** (.000)
	73.7%	26.3%	100.0%	
초등학교 5학년	8	12	20	
	40.0%	60.0%	100.0%	
중학교 1학년	18	19	37	
	48.6%	51.4%	100.0%	
고등학교 2학년	7	33	40	
	17.5%	82.5%	100.0%	
전체	47	69	116	
	40.5%	59.5%	100.0%	

***p<.001

자료 B의 영화 포스터는 '천국의 계단'이라는 제목을 제시하고 있어 서사의 전개상 천국을 어떤 의미로 해석하였는가가 서사의 방향을 결정하였다. <표Ⅱ-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천국의 해석에 대해 살펴보면 천국과 지옥으로 이원화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은 경우가 59.5%, 지옥과 대비된 의미로 이원화한 경우가 40.5%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서는 학년이 낮을수록 지옥과 대비된 의미로 이원화한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1)

<표Ⅱ-39> 학년에 따른 죽음

	주인공의 죽음이 드러난다.	주인공의 죽음이 나타나지 않는다.	주인공이 죽는 경우 중 자살이 나타난다.	전체	χ^2(p)
초등학교 3학년	16	0	3	19	7.543 (.274)
	84.2%	.0%	15.8%	100.0%	
초등학교 5학년	14	2	4	20	
	70.0%	10.0%	20.0%	100.0%	
중학교 1학년	20	9	8	37	
	54.1%	24.3%	21.6%	100.0%	
고등학교 2학년	27	6	7	40	
	67.5%	15.0%	17.5%	100.0%	
전체	77	17	22	116	
	66.4%	14.7%	19.0%	100.0%	

<표Ⅱ-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죽음에 대해 살펴보면 주인공의 죽음이 나타난 경우가 66.4%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자살 19.0%, 죽음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 14.7%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서는 학년이 낮을수록 죽음이 나타난 경우가 많았고 반대로 학년이 높을수록 죽음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Ⅱ-40> 학년에 따른 반전유무

	사건 전개의 반전이 있다.	사건 전개의 반전이 없다.	전체	χ^2(p)
초등학교 3학년	3	16	19	3.471 (.325)
	15.8%	84.2%	100.0%	
초등학교 5학년	5	15	20	
	25.0%	75.0%	100.0%	
중학교 1학년	14	23	37	
	37.8%	62.2%	100.0%	
고등학교 2학년	10	30	40	
	25.0%	75.0%	100.0%	
전체	32	84	116	
	27.6%	72.4%	100.0%	

<표Ⅱ-4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전유무에 대해 살펴보면 반전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72.4%, 반전이 나타난 경우가 27.6%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서는 학년이 높을수록 반전이 나타난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Ⅱ-41> 학년에 따른 감동의 여부

	감동적 요소가 있다.	감동적 요소가 미흡하다.	감동과 관련 없는 내용	전체	χ^2(p)
초등학교 3학년	10	0	9	19	10.362 (.110)
	52.6%	.0%	47.4%	100.0%	
초등학교 5학년	15	0	5	20	
	75.0%	.0%	25.0%	100.0%	
중학교 1학년	22	0	15	37	
	59.5%	.0%	40.5%	100.0%	
고등학교 2학년	28	3	9	40	
	70.0%	7.5%	22.5%	100.0%	
전체	75	3	38	116	
	64.7%	2.6%	32.8%	100.0%	

<표Ⅱ-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동의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감동적 요소가 있는 경우가 64.7%, 감동과 관련이 없는 내용의 경우가 32.8%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서는 학년이 높을수록 감동적 요소가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반대로 학년이 낮을수록 감동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경우 서사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B의 성별에 따른 해석

<표Ⅱ-42> 성별에 따른 천국의 해석

	지옥과 대비된 의미로 이원화하였다.	그 외	전체	χ^2(p)
남학생	25	35	60	.068 (.794)
	41.7%	58.3%	100.0%	
여학생	22	34	56	
	39.3%	60.7%	100.0%	
전체	47	69	116	
	40.5%	59.5%	100.0%	

<표Ⅱ-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천국의 해석에 대해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은 지옥과 대비된 의미로 이원화한 경우가 41.7%로 여학생의 39.3%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표Ⅱ-43> B 성별에 따른 제제

	질병	희생	형제	장기기증	사형	전쟁	성공	악당	오진	모호	사4	운명	대결	시간	돈	환상	폭탄	석방	삼각관계	전후후유	동성연애
남학생	17	4	1	2	5	4	1	3	1	0	1	1	0	0	0	0	2	0	0	0	0
	28.3%	6.7%	1.7%	3.3%	8.3%	6.7%	1.7%	5.0%	1.7%	.0%	1.7%	1.7%	.0%	.0%	.0%	.0%	3.3%	.0%	.0%	.0%	.0%
여학생	19	3	0	0	6	1	0	6	0	1	3	2	2	1	2	1	1	1	1	1	1
	33.9%	5.4%	.0%	.0%	10.7%	1.8%	.0%	10.7%	.0%	1.8%	5.4%	3.6%	3.6%	1.8%	3.6%	1.8%	1.8%	1.8%	1.8%	1.8%	1.8%
전체	36	7	1	2	11	5	1	9	1	1	4	3	2	1	2	1	3	1	1	1	1
	31.0%	6.0%	.9%	1.7%	9.5%	4.3%	.9%	7.8%	.9%	.9%	3.4%	2.6%	1.7%	.9%	1.7%	.9%	2.6%	.9%	.9%	.9%	.9%

	천국지옥	누명	기억상실	죽음	외계인	흡혈귀	직장	졸교	자살	미스테리	괴물	비행도전	꿈	탈옥	배신	종교	영웅	비행	전체	X^2 (p)
남학생	2	1	1	2	1	1	1	1	1	1	1	0	0	1	1	1	1	1	60	38.720 (.437)
	3.3%	1.7%	1.7%	3.3%	1.7%	1.7%	1.7%	1.7%	1.7%	1.7%	1.7%	.0%	.0%	1.7%	1.7%	1.7%	1.7%	1.7%	100.0%	
여학생	0	0	0	0	0	0	0	0	1	0	1	1	1	0	0	0	0	0	56	
	.0%	.0%	.0%	.0%	.0%	.0%	.0%	.0%	1.8%	.0%	1.8%	1.8%	1.8%	.0%	.0%	.0%	.0%	.0%	100.0%	
전체	2	1	1	2	1	1	1	1	2	1	2	1	1	1	1	1	1	1	116	
	1.7%	.9%	.9%	1.7%	.9%	.9%	.9%	.9%	1.7%	.9%	1.7%	.9%	.9%	.9%	.9%	.9%	.9%	.9%	100.0%	

<표Ⅱ-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제에 대해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은 질병이 33.9%로 남학생의 28.3%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표Ⅱ-44> B 성별에 따른 주제

	우정	모호	공포	애정	복수	정의	반성	우애	자유	오진	희생	운명	영웅	가족	죽음	인과응보	선행	행복	도전	구원	종교적구원	전체
남학생	32	4	1	0	1	1	3	5	1	1	4	0	2	0	0	1	1	1	0	0	1	59
	54.2%	6.8%	1.7%	.0%	1.7%	1.7%	5.1%	8.5%	1.7%	1.7%	6.8%	.0%	3.4%	.0%	.0%	1.7%	1.7%	1.7%	.0%	.0%	1.7%	100
여학생	38	4	0	1	1	1	1	0	1	0	2	1	1	2	1	0	0	0	1	1	0	56
	67.9%	7.1%	.0%	1.8%	1.8%	1.8%	1.8%	.0%	1.8%	.0%	3.6%	1.8%	1.8%	3.6%	1.8%	.0%	.0%	.0%	1.8%	1.8%	.0%	100
전체	70	8	1	1	2	2	4	5	2	1	6	1	3	2	1	1	1	1	1	1	1	115
	60.9%	7.0%	.9%	.9%	1.7%	1.7%	3.5%	4.3%	1.7%	.9%	5.2%	.9%	2.6%	1.7%	.9%	.9%	.9%	.9%	.9%	.9%	.9%	100

<표Ⅱ-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제에 대해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은 우정이 67.9%로 남학생의 54.2%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표Ⅱ-45> B 성별에 따른 죽음

	죽음이 나타나는 경우	죽음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죽음이 나타나는 경우 중 자살	전체	X^2(p)
남학생	45	9	6	60	6.669* (.036)
	75.0%	15.0%	10.0%	100.0%	
여학생	32	8	16	56	
	57.1%	14.3%	28.6%	100.0%	
전체	77	17	22	116	
	66.4%	14.7%	19.0%	100.0%	

*p<.05

<표Ⅱ-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죽음에 대해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은 죽음이 나타나는 경우가 75.0%로 여학생의 57.1%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여학생은 자살이 28.6%로 남학생의 10.0%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5)

<표Ⅱ-46> B 성별에 따른 반전유무

	사건 전개의 반전이 있다.	사건 전개의 반전이 없다.	전체	X^2(p)
남학생	14	46	60	1.125 (.289)
	23.3%	76.7%	100.0%	
여학생	18	38	56	
	32.1%	67.9%	100.0%	
전체	32	84	116	
	27.6%	72.4%	100.0%	

<표Ⅱ-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전유무에 대해 살펴보면 여학생은 반전이 나타난 경우가 32.1%로 남학생의 23.3%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표Ⅱ-47> B 성별에 따른 감동의 여부

	감동적 요소가 있다.	감동적 요소가 미흡하다.	감동과 관련 없는 내용	전체	X^2 (p)
남학생	41	3	16	60	4.468 (.107)
	68.3%	5.0%	26.7%	100.0%	
여학생	34	0	22	56	
	60.7%	.0%	39.3%	100.0%	
전체	75	3	38	116	
	64.7%	2.6%	32.8%	100.0%	

<표Ⅱ-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동의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남학생은 감동적 요소가 있는 경우가 68.3%로 여학생의 60.7%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여학생은 감동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경우가 39.3%로 남학생의 26.7%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표Ⅱ-48> 자료 B의 서사표현능력 '형식'면 학년별 점수

	형식																	
	인물의 성격이 인물이 처한 상황과의 관계에서 제시되는가?		인물의 행동이 성격과 연계되어 제시되는가?			인물 사이의 관계로부터 사건이 만들어지는가?			중심 사건이 있는가?		중심사건의 발단의 개연성이 있는가?			사건의 전개과정이 인과적인가?			사건의 전개가 주제를 잘 드러내는가?		
	인물의 성격이 드러나지 않다.	인물의 성격을 간단하게 제시한다,	인물의 행동에 일관성이 없다	인물의 성격은 드러나지 않지만, 행동자체의 일관성은 있다	인물의 행동이 성격과 일치한다.	인물 사이의 관계성설정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	인물사이의 관계는 구체적이나, 사건과의 관계 모호하다.	인물 사이의 관계가 사건과 연계되어 있다	중심사건이 없다	중심사건이 잘 드러난다.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	우연이나 어느 도 맥락에 닿아있다.	중심사건에 구체적 원인제시되어 있다.	사건 전개가 구조화되지 않았다.	사건 전개가 시간적 순서에 의해 이루어진다.	사건 전개가 논리적 인과관계에 의해 이루어진다.	사건의 전개가 주제와는 별개로 이루어진다.	사건의 전개가 주제를 드러내는 정도가 미약하다.	사건의 전개가 주제를 잘 드러낸다.
초등학교 3학년	19		7	12		5	12	2	9	10	7	11	1	8	11		9	10	
	100.0%		36.8%	63.2%		26.3%	63.2%	10.5%	47.4%	52.6%	36.8%	57.9%	5.3%	42.1%	57.9%		47.4%	52.6%	
초등학교 5학년	19	1	2	18		3	5	12	3	17	4	13	3	4	15	1	6	9	5
	95.0%	5.0%	10.0%	90.0%		15.0%	25.0%	60.0%	15.0%	85.0%	20.0%	65.0%	15.0%	20.0%	75.0%	5.0%	30.0%	45.0%	25.0%
중학교 1학년	32	5	8	28	1	2	8	27	9	28	12	16	9	6	25	6	9	18	10
	86.5%	13.5%	21.6%	75.7%	2.7%	5.4%	21.6%	73.0%	24.3%	75.7%	32.4%	43.2%	24.3%	16.2%	67.6%	16.2%	24.3%	48.6%	27.0%
고등학교 2학년	37	3	2	37	1	2	4	34	4	36		12	28	1	24	15	3	19	18
	92.5%	7.5%	5.0%	92.5%	2.5%	5.0%	10.0%	85.0%	10.0%	90.0%		30.0%	70.0%	2.5%	60.0%	37.5%	7.5%	47.5%	45.0%

<표Ⅱ-4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료 B의 서사결과물은 대체로 인물의 성격을 찾아보기 힘든 경우가 많았다. 이는 자료 B의 영화 포스터가 두 남자의 뒷모습만 제시되어 있는 것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초등학교 3학년이 대체로 인물의 성격이 드러나지 않고 인물의 행동에 일관성이 부족한데에 반해, 초등학교 5학년은 성격은 드러나지 않지만 행동의 일관성을 보여준다. 중학교 1학년의 경우 인물사이의 관계를 사건과 연관시키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고등학교 2학년은 대체로 인과관계가 있는 사건과 주제를 나타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Ⅱ-49> 자료 B의 서사표현능력 '표현'면 학년별 점수

	표현					
	서술 시점의 일관성			표현 방식의 적절성		
	시점의 혼란이 있다.	시점의 일관성이 있다.	시점을 적절히 활용하였다.	서술어에 일관성, 적절성 없다.	서술만으로 서사를 전개한다.	어휘풍부하며, 서술과 묘사를 적절히 사용할 줄 안다.
초등학교 3학년	1	18		10	9	
	5.3%	94.7%		52.6%	47.4%	
초등학교 5학년		20		3	17	
		100.0%		15.0%	85.0%	
중학교 1학년		36	1	3	26	8
		97.3%	2.7%	8.1%	70.3%	21.6%
고등학교 2학년		38	2	1	29	10
		95.0%	5.0%	2.5%	72.5%	25.0%

<표 Ⅱ-4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료 B의 서사표현능력의 '표현'면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5학년은 일관성 있는 시점을 표현할 수 있으며, 서술만으로 서사를 전개하는 경향을 보인다. 중학교 1학년부터 점차로 묘사와 시점을 활용하는 경향을 알 수 있다.

<표Ⅱ-50> 자료 B의 서사표현능력 '주제' 분석

	우정	모호	공포	애정	복수	정의	반성	우애	자유	오진	희생	운명	영웅	가족	죽음	인과응보	선행	행복	도전	구원	종교	전체
초등학교 3학년	8	3	0	0	0	0	0	2	0	0	0	0	2	1	0	0	0	0	1	1	1	19
	42.1%	15.8%	.0%	.0%	.0%	.0%	.0%	10.5%	.0%	.0%	.0%	.0%	10.5%	5.3%	.0%	.0%	.0%	.0%	5.3%	5.3%	5.3%	100.0%
초등학교 5학년	12	1	1	0	0	0	1	1	0	0	1	0	0	0	0	0	1	1	0	0	0	19
	63.2%	5.3%	5.3%	.0%	.0%	.0%	5.3%	5.3%	.0%	.0%	5.3%	.0%	.0%	.0%	.0%	.0%	5.3%	5.3%	.0%	.0%	.0%	100.0%
중학교 1학년	22	3	0	1	0	1	0	1	1	0	4	0	1	1	1	1	0	0	0	0	0	37
	59.5%	8.1%	.0%	2.7%	.0%	2.7%	.0%	2.7%	2.7%	.0%	10.8%	.0%	2.7%	2.7%	2.7%	2.7%	.0%	.0%	.0%	.0%	.0%	100.0%
고등학교 2학년	28	1	0	0	2	1	3	1	1	1	1	1	0	0	0	0	0	0	0	0	0	40
	70.0%	2.5%	.0%	.0%	5.0%	2.5%	7.5%	2.5%	2.5%	2.5%	2.5%	2.5%	.0%	.0%	.0%	.0%	.0%	.0%	.0%	.0%	.0%	100.0%
전체	70	8	1	1	2	2	4	5	2	1	6	1	3	2	1	1	1	1	1	1	1	115
	60.9%	7.0%	.9%	.9%	1.7%	1.7%	3.5%	4.3%	1.7%	.9%	5.2%	.9%	2.6%	1.7%	.9%	.9%	.9%	.9%	.9%	.9%	.9%	100.0%

<표Ⅱ-5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료 B의 서사물 대부분의 주제는 우정에 관한 것이었으며, 이는 전 학년의 공통된 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주제로 많이 선택된 것은 우애와 희생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는 영화 포스터의 제목과 글귀 등 자료의 특징이 어느 정도 개입된 결과로 보아진다.

3. 자료 *A*와 *B* 서사표현능력 분석

<표Ⅲ-1> 인물의 성격이 인물이 처한 상황과의 관계에서 제시되는가?

			인물의 성격이 드러나 있지 않다	인물의 성격을 간단하게 제시한다.	인물의 성격을 인물이 처한 상황과 관계에서 제시한다.	전체	X^2 (p)
초등학교 3학년	성별	남학생	18	1	2	21	1.327 (.515)
			85.7%	4.8%	9.5%	100.0%	
		여학생	12	2	3	17	
			70.6%	11.8%	17.6%	100.0%	
	전체		30	3	5	38	
			78.9%	7.9%	13.2%	100.0%	
초등학교 5학년	성별	남학생	21	2	0	23	2.478 (.290)
			91.3%	8.7%	.0%	100.0%	
		여학생	12	3	1	16	
			75.0%	18.8%	6.3%	100.0%	
	전체		33	5	1	39	
			84.6%	12.8%	2.6%	100.0%	
중학교 1학년	성별	남학생	28	7	4	39	6.310* (.043)
			71.8%	17.9%	10.3%	100.0%	
		여학생	17	16	5	38	
			44.7%	42.1%	13.2%	100.0%	
	전체		45	23	9	77	
			58.4%	29.9%	11.7%	100.0%	
고등학교 2학년	성별	남학생	32	5	3	40	5.176 (.075)
			80.0%	12.5%	7.5%	100.0%	
		여학생	26	13	1	40	
			65.0%	32.5%	2.5%	100.0%	
	전체		58	18	4	80	
			72.5%	22.5%	5.0%	100.0%	

*p<.05

<표Ⅲ-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물의 성격에 대해 살펴보면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인물의 성격이 드러나 있지 않다는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Ⅲ-2> 인물의 행동이 성격과 연계되어 제시되는가?

			인물의 행동에 일관성이 없다.	인물의 성격은 드러나지 않지만, 행동자체의 일관성은 있다.	인물의 행동이 성격과 일치한다.	전체	X^2 (p)
초등학교	성별	남학생	8	13	0	21	2.868 (.238)
			38.1%	61.9%	.0%	100.0%	
		여학생	7	8	2	17	

3학년			41.2%	47.1%	11.8%	100.0%	
	전체		15	21	2	38	
			39.5%	55.3%	5.3%	100.0%	
초등학교 5학년	성별	남학생	8	15	0	23	5.183 (.075)
			34.8%	65.2%	.0%	100.0%	
		여학생	3	10	3	16	
			18.8%	62.5%	18.8%	100.0%	
	전체		11	25	3	39	
			28.2%	64.1%	7.7%	100.0%	
중학교 1학년	성별	남학생	14	23	2	39	4.402 (.111)
			35.9%	59.0%	5.1%	100.0%	
		여학생	8	23	7	38	
			21.1%	60.5%	18.4%	100.0%	
	전체		22	46	9	77	
			28.6%	59.7%	11.7%	100.0%	
고등학교 2학년	성별	남학생	6	33	1	40	4.667 (.097)
			15.0%	82.5%	2.5%	100.0%	
		여학생	2	33	5	40	
			5.0%	82.5%	12.5%	100.0%	
	전체		8	66	6	80	
			10.0%	82.5%	7.5%	100.0%	

<표Ⅲ-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물의 행동에 대해 살펴보면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의 경우에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인물의 성격은 드러나지 않지만, 행동자체의 일관성은 있는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고 초등학교 5학년, 중학생,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인물의 행동에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Ⅲ-3> 인물 사이의 관계로부터 사건이 만들어지는가?

			인물 사이의 관계성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인물사이의 관계는 구체적이나, 사건과의 관계 모호하다.	인물사이의 관계가 사건과 연계되어 있다.	전체	X^2 (p)
초등학교 3학년	성별	남학생	9	8	4	21	3.231 (.199)
			42.9%	38.1%	19.0%	100.0%	
		여학생	3	11	3	17	
			17.6%	64.7%	17.6%	100.0%	
	전체		12	19	7	38	
			31.6%	50.0%	18.4%	100.0%	
초등학교 5학년	성별	남학생	4	5	14	23	4.163 (.125)
			17.4%	21.7%	60.9%	100.0%	
		여학생	0	2	14	16	
			.0%	12.5%	87.5%	100.0%	
	전체		4	7	28	39	
			10.3%	17.9%	71.8%	100.0%	
중학교	성별	남학생	1	9	29	39	.392
			2.6%	23.1%	74.4%	100.0%	

1학년		여학생	2	9	27	38	(.822)
			5.3%	23.7%	71.1%	100.0%	
	전체		3	18	56	77	
			3.9%	23.4%	72.7%	100.0%	
고등학교 2학년	성별	남학생	2	8	30	40	2.051 (.359)
			5.0%	20.0%	75.0%	100.0%	
		여학생	1	4	35	40	
			2.5%	10.0%	87.5%	100.0%	
	전체		3	12	65	80	
			3.8%	15.0%	81.3%	100.0%	

<표Ⅲ-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물 사이의 관계로부터 사건이 만들어지는가?'에 대해 살펴보면 초등학교 3학년의 경우에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인물사이의 관계는 구체적이나, 사건과의 관계가 모호한 경우가 더 많았다. 또 초등학교 5학년,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인물사이의 관계가 사건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중학생의 경우에는 여학생보다 남학생가 인물사이의 관계가 사건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더 많았다.

<표Ⅲ-4> 중심사건이 있는가?

			사건 자체가 드러나지 않는다.	중심 사건이 없다.	중심 사건이 잘 드러난다.	전체	X^2 (p)
초등학교 3학년	성별	남학생	1	12	8	21	.047 (.977)
			4.8%	57.1%	38.1%	100.0%	
		여학생	1	10	6	17	
			5.9%	58.8%	35.3%	100.0%	
	전체		2	22	14	38	
			5.3%	57.9%	36.8%	100.0%	
초등학교 5학년	성별	남학생	0	10	13	23	5.246 (.073)
			.0%	43.5%	56.5%	100.0%	
		여학생	1	2	13	16	
			6.3%	12.5%	81.3%	100.0%	
	전체		1	12	26	39	
			2.6%	30.8%	66.7%	100.0%	
중학교 1학년	성별	남학생		15	24	39	1.295 (.255)
				38.5%	61.5%	100.0%	
		여학생		10	28	38	
				26.3%	73.7%	100.0%	
	전체			25	52	77	
				32.5%	67.5%	100.0%	
고등학교 2학년	성별	남학생	1	9	30	40	1.393 (.498)
			2.5%	22.5%	75.0%	100.0%	
		여학생	0	7	33	40	
			.0%	17.5%	82.5%	100.0%	
	전체		1	16	63	80	

		1.3%	20.0%	78.8%	100.0%	

<표Ⅲ-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심사건이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면 초등학교 3학년의 경우에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중심 사건이 없는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고 초등학교 5학년의 경우에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중심 사건이 없는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다.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에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중심 사건이 잘 드러난다는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Ⅲ-5> 중심사건의 발단의 개연성이 있는가?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	우연적이나 어느 정도 맥락에는 닿아 있다.	중심사건에 구체적 원인 제시되어있다.	전체	χ^2(p)
초등학교 3학년	성별	남학생	4	15	2	21	1.741 (.419)
			19.0%	71.4%	9.5%	100.0%	
		여학생	4	13	0	17	
			23.5%	76.5%	.0%	100.0%	
	전체		8	28	2	38	
			21.1%	73.7%	5.3%	100.0%	
초등학교 5학년	성별	남학생	7	13	3	23	4.423 (.110)
			30.4%	56.5%	13.0%	100.0%	
		여학생	1	14	1	16	
			6.3%	87.5%	6.3%	100.0%	
	전체		8	27	4	39	
			20.5%	69.2%	10.3%	100.0%	
중학교 1학년	성별	남학생	12	21	6	39	3.011 (.222)
			30.8%	53.8%	15.4%	100.0%	
		여학생	6	22	10	38	
			15.8%	57.9%	26.3%	100.0%	
	전체		18	43	16	77	
			23.4%	55.8%	20.8%	100.0%	
고등학교 2학년	성별	남학생	3	14	23	40	3.155 (.207)
			7.5%	35.0%	57.5%	100.0%	
		여학생	0	16	24	40	
			.0%	40.0%	60.0%	100.0%	
	전체		3	30	47	80	
			3.8%	37.5%	58.8%	100.0%	

<표Ⅲ-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심사건의 발단의 개연성이 있는가?'의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5학년,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에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중심사건의 발달이 우연적이나 어느 정도 맥락에는 닿아 있는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고 중학교 학생의 경우에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전혀 엉뚱한 우연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표Ⅲ-6> 사건의 전개과정이 인과적인가?

			사건 전개가 구조화 되지 않았다.	사건의 전개가 시간적 순서에 의해 이루어진다.	사건의 전개가 논리적 인과관계에 의해 이루어진다.	전체	X^2(p)
초등학교 3학년	성별	남학생	11	9	1	21	1.064 (.587)
			52.4%	42.9%	4.8%	100.0%	
		여학생	8	9	0	17	
			47.1%	52.9%	.0%	100.0%	
	전체		19	18	1	38	
			50.0%	47.4%	2.6%	100.0%	
초등학교 5학년	성별	남학생	10	13	0	23	5.246 (.073)
			43.5%	56.5%	.0%	100.0%	
		여학생	2	13	1	16	
			12.5%	81.3%	6.3%	100.0%	
	전체		12	26	1	39	
			30.8%	66.7%	2.6%	100.0%	
중학교 1학년	성별	남학생	6	29	4	39	.760 (.684)
			15.4%	74.4%	10.3%	100.0%	
		여학생	7	25	6	38	
			18.4%	65.8%	15.8%	100.0%	
	전체		13	54	10	77	
			16.9%	70.1%	13.0%	100.0%	
고등학교 2학년	성별	남학생	5	23	12	40	3.958 (.138)
			12.5%	57.5%	30.0%	100.0%	
		여학생	1	21	18	40	
			2.5%	52.5%	45.0%	100.0%	
	전체		6	44	30	80	
			7.5%	55.0%	37.5%	100.0%	

<표Ⅲ-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건의 구성에 대해 살펴보면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5학년의 경우에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시간적 순서에 의한 구성이 더 많았으며 중학교 1학년의 경우에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시간적 순서에 의한 구성이 더 많았다.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에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원인과 결과의 연관성이 명확한 논리적 인과관계에 의한 구성의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Ⅲ-7> 사건의 전개가 주제를 잘 드러내는가?

			사건의 전개가 주제와는 별개로 이루어진다.	사건의 전개가 주제를 드러내는 정도가 미약하다.	사건의 전개가 주제를 잘 드러낸다.	전체	X^2(p)
초등학교 3학년	성별	남학생	10	11		21	.106 (.744)
			47.6%	52.4%		100.0%	
		여학생	9	8		17	
			52.9%	47.1%		100.0%	

	전체		19	19		38	
			50.0%	50.0%		100.0%	
초등학교 5학년	성별	남학생	12	8	3	23	4.978 (.083)
			52.2%	34.8%	13.0%	100.0%	
		여학생	3	11	2	16	
			18.8%	68.8%	12.5%	100.0%	
	전체		15	19	5	39	
			38.5%	48.7%	12.8%	100.0%	
중학교 1학년	성별	남학생	15	19	5	39	2.280 (.320)
			38.5%	48.7%	12.8%	100.0%	
		여학생	9	21	8	38	
			23.7%	55.3%	21.1%	100.0%	
	전체		24	40	13	77	
			31.2%	51.9%	16.9%	100.0%	
고등학교 2학년	성별	남학생	5	17	18	40	.251 (.882)
			12.5%	42.5%	45.0%	100.0%	
		여학생	4	19	17	40	
			10.0%	47.5%	42.5%	100.0%	
	전체		9	36	35	80	
			11.3%	45.0%	43.8%	100.0%	

<표Ⅲ-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건의 전개에 대해 살펴보면 초등학교 3학년의 경우에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주제가 없거나 사건의 전개가 주제와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고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의 경우에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주제가 없거나 사건의 전개가 주제와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에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사건의 전개가 주제를 드러내는 정도가 미약한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Ⅲ-8> 서술 시점의 일관성이 지켜졌는가?

			시점의 혼란이 있다.	시점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시점을 적절히 활용할 줄 안다.	전체	X^2 (p)
초등학교 3학년	성별	남학생	1	20		21	4.293* (.038)
			4.8%	95.2%		100.0%	
		여학생	5	12		17	
			29.4%	70.6%		100.0%	
	전체		6	32		38	
			15.8%	84.2%		100.0%	
초등학교 5학년	성별	남학생	0	23		23	1.475 (.225)
			.0%	100.0%		100.0%	
		여학생	1	15		16	
			6.3%	93.8%		100.0%	
	전체		1	38		39	
			2.6%	97.4%		100.0%	
		남학	2	36	1	39	

중학교 1학년	성별	생	5.1%	92.3%	2.6%	100.0%	1.378 (.502)
		여학생	1	34	3	38	
			2.6%	89.5%	7.9%	100.0%	
	전체		3	70	4	77	
			3.9%	90.9%	5.2%	100.0%	
고등학교 2학년	성별	남학생	1	37	2	40	2.341 (.310)
			2.5%	92.5%	5.0%	100.0%	
		여학생	0	35	5	40	
			.0%	87.5%	12.5%	100.0%	
	전체		1	72	7	80	
			1.3%	90.0%	8.8%	100.0%	

*p<.05

<표Ⅲ-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술 시점의 일관성에 대해 살펴보면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에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시점의 일관성 유지한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Ⅲ-9> 서술과 묘사를 적절히 사용하는가?

			서술어에 일관성, 적절성 없다	서술만으로 서사를 전개한다.	어휘풍부하며, 서술과 묘사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	전체	X^2 (p)
초등학교 3학년	성별	남학생	11	10		21	2.033 (.154)
			52.4%	47.6%		100.0%	
		여학생	5	12		17	
			29.4%	70.6%		100.0%	
	전체		16	22		38	
			42.1%	57.9%		100.0%	
초등학교 5학년	성별	남학생	3	20	0	23	1.476 (.478)
			13.0%	87.0%	.0%	100.0%	
		여학생	2	13	1	16	
			12.5%	81.3%	6.3%	100.0%	
	전체		5	33	1	39	
			12.8%	84.6%	2.6%	100.0%	
중학교 1학년	성별	남학생	4	33	2	39	6.743* (.034)
			10.3%	84.6%	5.1%	100.0%	
		여학생	4	24	10	38	
			10.5%	63.2%	26.3%	100.0%	
	전체		8	57	12	77	
			10.4%	74.0%	15.6%	100.0%	
고등학교 2학년	성별	남학생	1	28	11	40	1.185 (.553)
			2.5%	70.0%	27.5%	100.0%	
		여학생	0	27	13	40	
			.0%	67.5%	32.5%	100.0%	
	전체		1	55	24	80	
			1.3%	68.8%	30.0%	100.0%	

*p<.05

<표Ⅲ-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현 방식의 적절성에 대해 살펴보면 초등학교 3학년의 경우에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서술만으로 이야기를 전개한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고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에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서술만으로 이야기를 전개한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Ⅲ-10>기술통계량

서사표현능력 분석 항목	학생 수	평균	표준편차
인물의 성격	234	.37	.631
인물의 행동	234	.85	.550
인물관계와 사건의 연관성	234	1.57	.659
중심사건이 있는가?	234	1.65	.514
중심사건의 발단의 개연성 여부	234	1.14	.660
사건의 구성	234	.97	.627
사건의 전개	234	.94	.715
서술 시점의 일관성	234	1.00	.307
표현 방식의 적절성	234	1.03	.535
인물	234	2.79	1.147
사건	234	4.69	1.992
형식	234	7.48	2.701
서술표현	234	2.03	.683

<표Ⅲ-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료 A와 B의 기술통계량에 대해 살펴보면 형식이 7.48점, 사건이 4.69점, 인물이 2.79점으로 높게 나타났고 반면에 인물의 성격은 0.37점, 인물의 행동은 0.85점, 사건의 전개는 0.94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Ⅲ-11> 자료 A와 B의 서사표현능력 '형식'면 학년별 점수

	형식																				
	인물의 성격			인물의 행동			인물관계와 사건의 연계			중심사건			개연성			구성능력			사건 전개의 일관성		
	인물의 성격이 드러나 있지 않다.	인물의 성격을 간단하게 제시한다.	인물의 성격을 인물이 처한 상황과 관계에서 제시한다.	인물의 행동에 일관성이 없다.	인물의 성격은 드러나지 않지만, 행동 자체의 일관성은 있다	인물의 행동이 성격과 일치한다.	인물 사이의 관계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인물 사이의 관계는 구체적이나, 사건과의 관계 모호하다.	인물 사이의 관계가 사건과 연계되어 있다.	사건 자체가 드러나지 않는다.	중심 사건이 없다.	중심 사건이 잘 드러난다.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	우연적이나 어느 정도 맥락에는 닿아 있다.	중심 사건의 구체적 원인이 제시되어 있다.	사건 전개가 구조화 되지 않았다.	사건 전개가 시간적 순서에 의해 이루어진다.	사건 전개가 논리적 인과관계에 의해 이루어진다.	사건의 전개가 주제와는 별개로 이루어진다.	사건의 전개가 주제를 드러내는 정도가 미약하다.	사건의 전개가 주제를 잘 드러낸다.
초등학교	30	3	5	15	21	2	12	19	7	2	22	14	8	28	2	19	18	1	19	19	
	78.9	7.9	13.2	39.5	55.3	5.3	31.6	50.0	18.4	5.3	57.9	36.8	21.1	73.7	5.3	50.0	47.4	2.6	50.0	50.0	

3학년	%	%	%	%	%	%	%	%	%	%	%	%	%	%	%	%	%	%	%	%	
초등학교 5학년	33	5	1	11	25	3	4	7	28	1	12	26	8	27	4	12	26	1	15	19	5
	84.6%	12.8%	2.6%	28.2%	64.1%	7.7%	10.3%	17.9%	71.8%	2.6%	30.8%	66.7%	20.5%	69.2%	10.3%	30.8%	66.7%	2.6%	38.5%	48.7%	12.8%
중학교 1학년	45	23	9	22	46	9	3	18	56		25	52	18	43	16	13	54	10	24	40	13
	58.4%	29.9%	11.7%	28.6%	59.7%	11.7%	3.9%	23.4%	72.7%		32.5%	67.5%	23.4%	55.8%	20.8%	16.9%	70.1%	13.0%	31.2%	51.9%	16.9%
고등학교 2학년	58	18	4	8	66	6	3	12	65	1	16	63	3	30	47	6	44	30	9	36	35
	72.5%	22.5%	5.0%	10.0%	82.5%	7.5%	3.8%	15.0%	81.3%	1.3%	20.0%	78.8%	3.8%	37.5%	58.8%	7.5%	55.0%	37.5%	11.3%	45.0%	43.8%

<표 Ⅲ-12> 자료 A와 B의 서사표현능력 '표현'면 학년별 점수

	표현					
	서술 시점의 일관성			표현 방식의 적절성		
	시점의 혼란이 있다.	시점의 일관성이 있다.	시점을 적절히 활용하였다.	서술어에 일관성, 적절성 없다.	서술만으로 서사를 전개한다.	어휘풍부하며, 서술과 묘사를 적절히 사용할 줄 안다.
초등학교 3학교	6	32		16	22	
	15.8%	84.2%		42.1%	57.9%	
초등학교 5학년	1	38		5	33	1
	2.6%	97.4%		12.8%	84.6%	2.6%
중학교 1학년	3	70	4	8	57	12
	3.9%	90.9%	5.2%	10.4%	74.0%	15.6%
고등학교 2학년	1	72	7	1	55	24
	1.3%	90.0%	8.8%	1.3%	68.8%	30.0%

***p<.001

Ⅴ. 결론 및 논의

서사표현능력 발달을 위계화하려는 기존의 논의가 다른 연구자가 설계한 이론을 증명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이 논문은 현상적인 문제로부터 출발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기존의 논의에서는 학습자의 개별적 서사물이 일반적인 이론을 증명하는 도구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 이와 함께 인간의 발달단계별로 서사능력이 발전해야한다는 전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점도 논의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전제 때문에 서사표현능력 발달의 단계는 유아에서 아동, 청소년으로 발전해 간다는 도식에서 크게 벗어난 논의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 연구에서 확인한 서사표현능력의 학년별 특징 및 발달단계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

다.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형식	인물	인물의 성격이 드러나지 않는다. (78), 인물의 행동에 일관성이 없다.(40) 행동에는 일관성이 있지만 성격과 일치하지 않는다.(55) 인물관계 설정이 모호하다.(32) 인물관계 사건과 연관이 있다.(18).	인물의 성격 드러나지 않는다. (84) 인물의 행동에 일관성이 없다. (38) 행동에는 일관성이 있지만 성격과 일치하지 않는다.(64) 인물관계 사건과 연관이 있다. (71)	성격이 드러나지 않는다. 인물의 행동에 일관성 없다(29) 행동에는 일관성이 있지만 성격과 일치하지 않는다. (60) 인물관계가 사건과 연관이 있다.(70)	인물의 성격 드러나 있지 않다.(72) 행동에는 일관성이 있지만 성격과 일치하지 않는다. (83) 인물관계가 사건과 연관이 있다.(81)
	사건	중심사건이 없다.(58) 중심사건의 개연 우연적이다 (74) 사건구성 구조화되지 않았다(50) 시간적 순서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47) 사건이 주제와 별도로 전개된다. (50) 사건 전개가 주제 드러내는 정도 미약하다. (50)	중심사건이 없다. (30), 중심사건 잘 드러나게 쓴다. (67) 중심사건 우연하게 이루어진다. 70 중심사건의 개연성이 없다. (20) 구체적 개연성이 드러나게 쓴다. (10) 시간적 순서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67) 이야기가 구조화 되지 않았다. (30) 사건전개가 주제를 드러내기에 미약하다. (49) 사건전개가 주제와 별개로 이루어진다. (39)	중심사건이 잘 드러나게 쓴다. (67) 중심사건의 발단의 개연성이 우연적인 경우 (56) 중심사건의 개연성이 없다. (22) 구체적 개연성이 드러나게 쓴다. (22) 시간적 순서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70) 사건 전개가 주제 드러내는 정도 미약하다.(51) (사건이 주제와 별도로 전개된다. 31)	중심사건이 잘 드러난다.(79) 중심사건의 구체적 개연성이 있다.(59) 사건 구성이 시간적 순서나 논리적 인과관계에 의해 이루어진다.(99) 사건 전개가 주제를 드러내는 정도가 미약하다.(50) 주제를 잘 들어낸다.(50))
표현		서술시점에 일관성이 있다 (84) 시점의 혼란이 있다. (15) 표현의 적절성이(서술어 혼동)미흡하다. (42) 서술만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58)	서술시점에 일관성이 있다. (97) 서술만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84)	서술시점에 일관성이 있다.(90) 서술만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74)	시점의 일관성이 있다.(90) 시점을 활용할 수 있다.(9) 서술만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70) 서술과 묘사가 적절하게 활용한다.(30)
내용		우정(42), 주제모호(16) 우애(10), 영웅(10) 가족(5), 구출 (5)	우정(63),주제 모호(16) 반성(5), 우애(10) 희생(5),선행(5)	우정(42), 주제모호(16) 애정(3), 정의(3), 우애(3) 우애(10), 영웅(10)	우정(70), 주제모호(2) , 영웅(10) 가족(5), 구출 (5)

	종교적 구원(5)	행복(5)	가족(5), 구출 (5) 종교적 구원(5)	종교적 구원(5)

( )는 % 단위(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초등학교 3학년 9세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대체로 인물의 성격이 드러나지 않고, 행동자체의 일관성은 있지만 성격과 일치하지는 않는 양상을 보였다. 인물 사이 관계 설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사건과 관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았다. 중심사건이 없는 경우 58%, 중심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우연적인 것이 74%로 대부분 서사가 인과성을 갖지 못하였다. 사건 구성의 측면에서 50%에 해당하는 서사가 처음-중간-끝이 구조화되지 않았고, 시간적 순서에 의한 서술이 47%에 해당한다. 사건전개가 주제와 별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50%, 서술 시점이 일관되게 나타난 경우는 84%, 표현의 측면에서 서술어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42%, 서술만으로 이야기를 구성하는 경우가 58%에 해당했다.

초등학교 5학년, 12세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인물의 성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고 인물의 행동에 일관성 없거나 행동과 성격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인물관계가 사건과 연계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중심사건이 없는 경우도 종종 나타났다. 중심사건을 구성하는 데 있어 우연성에 의존하는 빈도가 높게 나타났고, 사건의 전개가 시간적 순서에 따라 구성되는 경향을 보였다. 사건을 전개하는데 있어 주제와의 관련성을 살리지 못한 경우도 49%, 사건이 주제와 별개로 진행된 경우도 39%에 달했다. 서술시점은 대부분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고 있었고 표현 방식 면에서 서술로만 서사를 전개한 경우가 84%로 초등학교 3학년에 비해 늘어난 경향을 보였다.

중학교 1학년 14세에 해당하는 학생들 역시 인물의 성격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으며 인물 행동의 일관성 측면에서 초등학교 5학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행동자체의 일관성이 있는 경우가 60%, 인물 사이 관계 사건과 연결된 경우 72%, 중심사건이 잘 드러나는 경우 67%, 중심사건이 우연적으로 제시된 경우가 56%로 나타났다. 사건의 구성이 주로 시간적 순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건 전개를 주제를 드러내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서술시점은 일관성을 보이고 있으며 표현 방식에 있어서는 서술로만 이야기를 전개하는 경향을 보인다.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인물의 성격은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인물의 행동은 일관성을 보인다. 인물간의 관계가 사건과 연계되어 있으며 중심사건이 구체적 개연성을 갖고 제시되고 있다. 사건 구성이 시간적 순서나 논리적 인과관계에 의해 이루어지고, 사건 전개가 주제를 잘 드러내는 경우가 50%, 서술 시점이 일관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9%는 시점을 서술의 상황에 따라 시점을 활용하는 경향

을 보였다. 표현 방식으로 서술과 묘사를 적절히 사용하여 표현의 유창성을 보였다. 이러한 서사표현능력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 단계를 특성별로 위계화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초등학교 3학년은 다른 학년에 비해서 주어진 조건, 예를 들면 배경과 인물의 특징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초등학교 3학년은 주어진 정보 안에서 이야기를 서술하려는 경향이 높으며, 사건보다는 인물을 특징화하는 것을 통해 이야기를 구성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인물의 성격에 인식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으로 보아 이 단계를 "조건 충실기-인물 초점화 단계"라고 본다.

초등학교 5학년은 사건의 발생이 사람들의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피아제[29]는 이 시기의 아동을 구체적 조작기라고 정의하며, 그 특징으로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사회성을 인식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초등학교 5학년 학습자가 보여준 서사표현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곧 인물들 사이의 관계에서 사건이 발생한다고 보는 시각은 인간 관계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인식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에 비추어 이 단계를 "관계 중심기-사건 구체화 단계"로 부른다.

중학교 1학년은 서사를 전개하는 데에 있어 인물의 성격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성격과 행동의 일관성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에릭슨[30]에 의하면 이 시기는 자아정체감 대 역할혼란기로 정의된다. 자아 정체감이란 자기 자신의 독특성에 대한 비교적 안정된 느낌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며 타인이 자신을 보는 방식과 자기 자신의 인식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중학교 1학년의 서사표현의 특징 또한 이 시기의 발달적 특징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이 단계를 "자아형성기 -인물 개성화 단계" 자아의 성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등학교 1학년은 서사표현에 있어 사건 전개의 개연성을 부여하는 경향을 보인다. 개연성 있는 사건전개를 통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논리적 사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과 연관될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5학년에서 보인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인식이 심화되어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볼 때 이 단계를 "사회성 심화기- 주제 서사화 단계"라고 부르고자 한다.

이상에서 논의한 서사표현능력의 발달단계를 위계화하면 다음과 같다.

---

29) 김정민,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 학지사, 2006.
30) 이성태 『아동발달이론』, 학현사, 2007

학년	인지 발달단계	서사표현능력발달단계
초등학교 3학년	조건 충실기	인물 초점화 단계
초등학교 5학년	관계 중심기	사건 구체화 단계
중학교 1학년	자아 형성기	인물 개성화 단계
고등학교 1학년	사회성 심화기	주제 서사화 단계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갖는다.

첫째, 연구 대상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서 자료를 수집하였지만, 발달에 미치는 여러 가지 변인들을 고려할 때 전국적인 사례로 연구 대상을 확장해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일반인 등으로 연구 대상을 확대하여 수직적 수평적으로 연구의 타당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 방법을 보다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 연구의 객관도을 더하기 위하여 서사표현능력을 채점할 때 채점자간 신뢰도를 높여야한다. 본 연구는 학위논문의 특성상 개인의 채점으로 연구가 진행된 바, 후속 연구에서는 이점을 보완하여 보다 객관성 있는 연구가 수행되어야한다.

셋째, 발달적 특성을 다양하게 접근하여 검사지의 유형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서사능력을 수용과 표현의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였으나 검사지의 유형을 동일하게 제공하여 서사능력을 통합된 것으로 측정하고 있어 서사의 수용에 있어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넷째, 발달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서사표현능력의 발달단계에 관한 연구의 결과를 서사교육을 비롯한 수업의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들을 보완한 연구자들의 활발한 연구를 기대해본다.

참고 문헌

우한용 외, 『서사교육론』, 동아시아, 2001.

임경순, 『국어교육학과 서사 교육론』, 한국문화사, 2003.

_____, 『서사표현교육론 연구』, 역락, 2003.

송명자, 『인간발달 연구: 인지발달과 도덕성발달 중심으로』, 학지사, 1992.

이기우 · 김용재 역, 『서사론사전』민지사, 1992.

이상우, 『소설이라는 언어 예술의 세계』, 도서출판 월인, 2006

한용환, 『서사 이론과 그 쟁점들』 문예출판사, 2002

이성태, 『아동발달이론』, 학현사, 2007

김정민,『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 학지사, 2006.

A. 매킨타이어, 이진우 역, 『덕의 상실』, 문예출판사, 1997.

Roland Barthes, 김치수 편저, 『이야기의 구조적 분석입문 구조주의와 문화비평』, 홍성사, 1981.

이영자 · 박미라, 「유아의 이야기 구조 개념 발달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제12권, 한국유아교육학회, 1992.

조희숙 · 공숙자, 「유아의 이야기 서술구조 발달과 심리적 인과성」, 『유아교육논총』제 6권, 부산 유아교육학회, 1996.

임경순, 「이야기 생산 능력에 대한 연구」, 『국어국문학』, 제122권, 1998. 12.

강승희, 「언어영재와 일반 아동의 작문에 나타나는 이야기 구조와 언어적 창의성 발달 및 차이」,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서명자, 「중학생 이야기하기 실태 연구 : 시작하기와 끝맺기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한선희, 「서사문 쓰기 발달 양상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한유진 · 유안진, 「3, 4, 5세 유아의 이야기 구성 능력 발달」, 『대한 가정 학회지』, 제 39집 7호, 대한가정학회, 2001.

채미영, 「유아용이야기 꾸미기활동 평가준거 개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박혜경 외 3인, 「유아의 내러티브에 관한 연구: 이야기 구조개념 발달 및 이야기 유형」,『유아교육연구』, 24권 3호, 한국유아교육학회, 2004.

이화영, 「연령, 학습능력, 창의성과 유아의 이야기 구조 발달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정현정, 「아동의 학년, 지능 및 창의성에 따른 이야기 구조」,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김기호, 「아동의 서사 구술능력 발달 단계: 주인공의 갈등해결을 중심으로」, 『어문학』, 제 80집, 한국어문학회, 2003.
최인자, 「서사 표현 능력 발달의 성별 패턴 비교 연구 : 초 중등 학생의 서사 수행능력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제 115집,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2004.
김기호,「아동의 이야기 구성능력 발달 그림 특성과 이야기 반응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어문학』, 제45집, 한민족어문학회, 2004.
우한용, 「서사 능력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그 교육에 대한 이론적 탐구」, 『문학교육학』, 제13호, 한국문학교육학회, 2004.
김기호, 「이야기 구성 능력과 발달 자극 도구에 관한 연구 동향과 과제」, 『한국민족어문학』, 제45집, 한민족어문학회, 2005.
이영자 · 이지현, 「유아의 개인적 내러티브와 가상적 내러티브의 구조발달 양상 및 구성 요소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25권 5호, 한국유아교육학회, 2005.
김기호, 「이야기 구성 능력 발달을 주제로 한 선행연구의 통합 분석」, 『반교어문연구』, 반교어문학회, 2006.
김상욱, 「문학교육 연구 방법론의 확장과 그 실체: 서사 텍스트의 표현 능력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제21권, 한국문학교육학회, 2006.
이영자 · 이지현, 「한국과 미국 유아들의 개인적 · 가상적 내러티브 구조 발달 양상 및 논리적 응집장치 사용의 비교」,『열린유아교육연구』, 11권 2호 , 2006
최인자, 「학습자의 발달 특성에 기반한 서사 텍스트 선정 원리 연구: 청소년 학습자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제23호, 한국문학교육학회, 2007.
임경순, 「서사 텍스트 표현력 발달 연구」, 『문학교육학』, 한국문학교육학회, 제24권, 2007.

<서사표현능력 점수 통합 통계표>

*A*의 서사표현능력 점수 통계표

			인물의 성격			인물의 행동			인물관계와 사건의 연계			중심사건			개연성			구성능력			사건 전개의 일관성			서술 시점의 일관성			표현 방식의 적절성		
			인물의 성격이 드러나 있지 않다.	인물의 성격을 간단하게 제시한다.	인물의 성격을 인물이 처한 상황과 관계에서 제시한다.	인물의 행동에 일관성이 없다.	인물의 성격은 드러나지 않지만, 행동자체의 일관성은 있다	인물의 행동이 성격과 일치한다.	인물 사이의 관계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인물사이의 관계는 구체적이나, 사건과의 관계 모호하다.	인물 사이의 관계가 사건과 연계되어 있다.	사건 자체가 드러나지 않는다.	중심사건이 없다.	중심사건이 잘 드러난다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	우연적이나 어느 정도 맥락에는 닿아 있다.	중심사건의 구체적 원인이 제시되어 있다.	사건 전개가 구조화 되지 않았다.	사건 전개가 시간적 순서에 의해 이루어진다.	사건 전개가 논리적 인과관계에 의해 이루어진다.	사건의 전개가 주제와는 별개로 이루어진다.	사건의 전개가 주제를 드러내는 정도가 미약하다.	사건의 전개가 주제를 잘 드러낸다.	시점의 혼란이 있다.	시점의 일관성이 있다.	시점을 적절히 활용하였다.	서술어에 일관성, 적절성 없다.	서술만으로 이야기전개한다.	어휘 풍부하며, 서술과 묘사를 적절히 사용할 줄안다.
초3	성별	남학생	7	1	2	3	7	0	5	2	3	1	6	3	0	9	1	5	4	1	5	5		1	9		4	6	
			70.0%	10.0%	20.0%	30.0%	70.0%	.0%	50.0%	20.0%	30.0%	10.0%	60.0%	30.0%	.0%	90.0%	10.0%	50.0%	40.0%	10.0%	50.0%	50.0%		10.0%	90.0%		40.0%	60.0%	
		여학생	4	2	3	5	2	2	2	5	2	1	7	1	1	8	0	6	3	0	5	4		4	5		2	7	
			44.4%	22.2%	33.3%	55.6%	22.2%	22.2%	22.2%	55.6%	22.2%	11.1%	77.8%	11.1%	11.1%	88.9%	.0%	66.7%	33.3%	.0%	55.6%	44.4%		44.4%	55.6%		22.2%	77.8%	
	전체		11	3	5	8	9	2	7	7	5	2	13	4	1	17	1	11	7	1	10	9		5	14		6	13	
			57.9%	15.8%	26.3%	42.1%	47.4%	10.5%	36.8%	36.8%	26.3%	10.5%	68.4%	21.1%	5.3%	89.5%	5.3%	57.9%	36.8%	5.3%	52.6%	47.4%		26.3%	73.7%		31.6%	68.4%	
초5	성별	남학생	9	2	0	7	4	0	1	1	9	0	7	4	4	7	0	7	4		7	4		0	11		2	9	0
			81.8%	18.2%	.0%	63.6%	36.4%	.0%	9.1%	9.1%	81.8%	.0%	63.6%	36.4%	36.4%	63.6%	.0%	63.6%	36.4%		63.6%	36.4%		.0%	100.%		18.2%	81.8%	.0%
		여학생	5	2	1	2	3	3	0	1	7	1	2	5	0	7	1	1	7		2	6		1	7		0	7	1
			62.5%	25.0%	12.5%	25.0%	37.5%	37.5%	.0%	12.5%	87.5%	12.5%	25.0%	62.5%	.0%	87.5%	12.5%	12.5%	87.5%		25.0%	75.0%		12.5%	87.5%		.0%	87.5%	12.5%
	전체		14	4	1	9	7	3	1	2	16	1	9	9	4	14	1	8	11		9	10		1	18		2	16	1
			73.7	21.1	5.3%	47.4	36.8%	15.8	5.3%	10.5%	84.2	5.3	47.4	47.4	21.1	73.7	5.3%	42.1	57.9		47.4	52.6		5.3	94.7		10.5	84.2	5.3

			%	%		%		%			%	%	%	%	%	%		%	%		%	%		%	%		%	%	%
중1	성별	남학생	11	7	4	9	11	2	0	5	17		10	12	5	13	4	3	17	2	11	9	2	2	19	1	3	17	2
			50.0%	31.8%	18.2%	40.9%	50.0%	9.1%	.0%	22.7%	77.3%		45.5%	54.5%	22.7%	59.1%	18.2%	13.6%	77.3%	9.1%	50.0%	40.9%	9.1%	9.1%	86.4%	4.5%	13.6%	77.3%	9.1%
		여학생	2	11	5	5	7	6	1	5	12		6	12	1	14	3	4	12	2	4	13	1	1	15	2	2	14	2
			11.1%	61.1%	27.8%	27.8%	38.9%	33.3%	5.6%	27.8%	66.7%		33.3%	66.7%	5.6%	77.8%	16.7%	22.2%	66.7%	11.1%	22.2%	72.2%	5.6%	5.6%	83.3%	11.1%	11.1%	77.8%	11.1%
	전체		13	18	9	14	18	8	1	10	29		16	24	6	27	7	7	29	4	15	22	3	3	34	3	5	31	4
			32.5%	45.0%	22.5%	35.0%	45.0%	20.0%	2.5%	25.0%	72.5%		40.0%	60.0%	15.0%	67.5%	17.5%	17.5%	72.5%	10.0%	37.5%	55.0%	7.5%	7.5%	85.0%	7.5%	12.5%	77.5%	10.0%
고2	성별	남학생	14	3	3	4	15	1	1	6	13	1	6	13	3	8	9	4	10	6	4	9	7	1	17	2		13	7
			70.0%	15.0%	15.0%	20.0%	75.0%	5.0%	5.0%	30.0%	65.0%	5.0%	30.0%	65.0%	15.0%	40.0%	45.0%	20.0%	50.0%	30.0%	20.0%	45.0%	35.0%	5.0%	85.0%	10.0%		65.0%	35.0%
		여학생	7	12	1	2	14	4	0	2	18	0	6	14	0	10	10	1	10	9	2	8	10	0	17	3		13	7
			35.0%	60.0%	5.0%	10.0%	70.0%	20.0%	.0%	10.0%	90.0%	.0%	30.0%	70.0%	.0%	50.0%	50.0%	5.0%	50.0%	45.0%	10.0%	40.0%	50.0%	.0%	85.0%	15.0%		65.0%	35.0%
	전체		21	15	4	6	29	5	1	8	31	1	12	27	3	18	19	5	20	15	6	17	17	1	34	5		26	14
			52.5%	37.5%	10.0%	15.0%	72.5%	12.5%	2.5%	20.0%	77.5%	2.5%	30.0%	67.5%	7.5%	45.0%	47.5%	12.5%	50.0%	37.5%	15.0%	42.5%	42.5%	2.5%	85.0%	12.5%		65.0%	35.0%

	인물의 성격		인물의 행동			인물관계와 사건의 연계			중심사건		개연성			구성능력			사건 전개의 일관성			서술 시점의 일관성			표현 방식의 적절성		
	인물의 성격이 드러나 있지 않다.	인물의 성격을 간단하게 제시한다,	인물의 행동에 일관성이 없다	인물의 성격은 드러나지 않지만, 행동자체의 일관성은 있다	인물의 행동이 성격과 일치한다.	인물 사이의 관계성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인물사이의 관계는 구체적이나, 사건과의 관계 모호하다.	인물사이의 관계가 사건과 연계되어 있다	중심사건이 없다	중심사건이 잘 드러난다.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	우연적이나 어느 정도 맥락에는 닿아 있다.	중심사건에 구체적 원인 제시되어 있다.	사건 전개가 구조화되지 않았다.	사건 전개가 시간적 순서에 의해 이루어진다.	사건 전개가 논리적 인과관계에 의해 이루어진다.	사건의 전개가 주제와는 별개로 이루어진다.	사건의 전개가 주제를 드러내는 정도가 미약하다.	사건의 전개가 주제를 잘 드러낸다.	시점의 혼재가 있다.	시점의 일관성이 있다.	시점을 적절히 활용하였다..	서술에 일관성, 적절성 없다	서술만으로 서사를 전개한다.	어휘 풍부하며, 서술과 묘사를 적절히 사용할 줄 안다

																															.
초등학교 3학년	성별	남학생	11		5	6		4	6	1	6	5	4	6	1	6	5		5	6		0	11		7	4	
			100.0%		45.5%	54.5%		36.4%	54.5%	9.1%	54.5%	45.5%	36.4%	54.5%	9.1%	54.5%	45.5%		45.5%	54.5%		.0%	100.0%		63.6%	36.4%	
		여학생	8		2	6		1	6	1	3	5	3	5	0	2	6		4	4		1	7		3	5	
			100.0%		25.0%	75.0%		12.5%	75.0%	12.5%	37.5%	62.5%	37.5%	62.5%	.0%	25.0%	75.0%		50.0%	50.0%		12.%	87.5%		37.5%	62.5%	
	전체		19		7	12		5	12	2	9	10	7	11	1	8	11		9	10		1	18		10	9	
			100.0%		36.8%	63.2%		26.3%	63.2%	10.5%	47.4%	52.6%	36.8%	57.9%	5.3%	42.1%	57.9%		47.4%	52.6%		5.3%	94.7%		52.6%	47.4%	
초등학교 5학년	성별	남학생	12	0	1	11		3	4	5	3	9	3	6	3	3	9	0	5	4	3		12		1	11	
			100.0%	.0%	8.3%	91.7%		25.0%	33.3%	41.7%	25.0%	75.0%	25.0%	50.0%	25.0%	25.0%	75.0%	.0%	41.7%	33.3%	25.0%		100.0%		8.3%	91.7%	
		여학생	7	1	1	7		0	1	7	0	8	1	7	0	1	6	1	1	5	2		8		2	6	
			87.5%	12.5%	12.5%	87.5%		.0%	12.5%	87.5%	.0%	100.0%	12.5%	87.5%	.0%	12.5%	75.0%	12.5%	12.5%	62.5%	25.0%		100.0%		25.0%	75.0%	
	전체		19	1	2	18		3	5	12	3	17	4	13	3	4	15	1	6	9	5		20		3	17	
			95.0%	5.0%	10.0%	90.0%		15.0%	25.0%	60.0%	15.0%	85.0%	20.0%	65.0%	15.0%	20.0%	75.0%	5.0%	30.0%	45.0%	25.0%		100.0%		15.0%	85.0%	
중학교 1학년	성별	남학생	17	0	5	12	0	1	4	12	5	12	7	8	2	3	12	2	4	10	3		17	0	1	16	0
			100.0%	.0%	29.4%	70.6%	.0%	5.9%	23.5%	70.6%	29.4%	70.6%	41.2%	47.1%	11.8%	17.6%	70.6%	11.8%	23.5%	58.8%	17.6%		100.0%	.0%	5.9%	94.1%	.0%
		여학생	15	5	3	16	1	1	4	15	4	16	5	8	7	3	13	4	5	8	7		19	1	2	10	8
			75.0%	25.0%	15.0%	80.0%	5.0%	5.0%	20.0%	75.0%	20.0%	80.0%	25.0%	40.0%	35.0%	15.0%	65.0%	20.0%	25.0%	40.0%	35.0%		95.0%	5.0%	10.0%	50.0%	40.0%
	전체		32	5	8	28	1	2	8	27	9	28	12	16	9	6	25	6	9	18	10		36	1	3	26	8
			86.5%	13.5%	21.6%	75.7%	2.7%	5.4%	21.6%	73.0%	24.3%	75.7%	32.4%	43.2%	24.3%	16.2%	67.6%	16.2%	24.3%	48.6%	27.0%		97.3%	2.7%	8.1%	70.3%	21.6%
고등학교 2학년	성별	남학생	18	2	2	18	0	1	2	17	3	17		6	14	1	13	6	1	8	11		20	0	1	15	4
			90.0%	10.0%	10.0%	90.0%	.0%	5.0%	10.0%	85.0%	15.0%	85.0%		30.0%	70.0%	5.0%	65.0%	30.0%	5.0%	40.0%	55.0%		100.0%	.0%	5.0%	75.0%	20.0%
		여학생	19	1	0	19	1	1	2	17	1	19		6	14	0	11	9	2	11	7		18	2	0	14	6
			95.0%	5.0%	.0%	95.0%	5.0%	5.0%	10.0%	85.0%	5.0	95.0		30.0	70.0	.0%	55.0	45.0	10.0	55.0	35.0		90.0	10.0	.0%	70.0	30.0

										%	%		%	%		%	%	%	%	%		%	%		%	%
	전체	37	3	2	37	1	2	4	34	4	36		12	28	1	24	15	3	19	18		38	2	1	29	10
		92.5%	7.5%	5.0%	92.5%	2.5%	5.0%	10.0%	85.0%	10.0%	90.0%		30.0%	70.0%	2.5%	60.0%	37.5%	7.5%	47.5%	45.0%		95.0%	5.0%	2.5%	72.5%	25.0%

B의 서사표현능력 점수 통계표

A와 B 서사표현능력 점수 기술통계량(항목별 평균 점수)

		인물	사건	형식	서술·표현	인물의성격	인물의행동	인물의관계와사건	중심사건	개연성	구성력	사건전개	서술·시점의일관성	표현방식의적절성	인물	사건	형식	서술·표현	인물의성격	인물의행동	인물의관계와사건	중심사건	개연성	구성력	사건전개	서술·시점의일관성	표현방식의적절성
학년	성별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	1.27	3.18	4.45	1.36	.00	.55	.73	1.45	.73	.45	.55	1.00	.36	1.62	3.29	4.90	1.43	.24	.62	.76	1.33	.90	.52	.52	.95	.48
	여학생	1.75	3.50	5.25	1.50	.00	.75	1.00	1.63	.63	.75	.50	.88	.63	2.18	3.06	5.24	1.41	.47	.71	1.00	1.29	.76	.53	.47	.71	.71
	합계	1.47	3.32	4.79	1.42	.00	.63	.84	1.53	.68	.58	.53	.95	.47	1.87	3.18	5.05	1.42	.34	.66	.87	1.32	.84	.53	.50	.84	.58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	2.08	4.33	6.42	1.92	.00	.92	1.17	1.75	1.00	.75	.83	1.00	.92	2.17	3.57	5.74	1.87	.09	.65	1.43	1.57	.83	.57	.61	1.00	.87
	여학생	2.88	5.00	7.88	1.75	.13	.88	1.88	2.00	.88	1.00	1.13	1.00	.75	3.19	4.63	7.81	1.88	.31	1.00	1.87	1.75	1.00	.94	.94	.94	.94
	합계	2.40	4.60	7.00	1.85	.05	.90	1.45	1.85	.95	.85	.95	1.00	.85	2.59	4.00	6.59	1.87	.18	.79	1.62	1.64	.90	.72	.74	.97	.90
중학교 1학년	남학생	2.35	4.29	6.65	1.94	.00	.71	1.65	1.71	.71	.94	.94	1.00	.94	2.79	4.15	6.95	1.92	.38	.69	1.72	1.62	.85	.95	.74	.97	.95
	여학생	2.85	5.05	7.90	2.35	.25	.90	1.70	1.80	1.10	1.05	1.10	1.05	1.30	3.32	4.79	8.11	2.21	.68	.97	1.66	1.74	1.11	.97	.97	1.05	1.16
	합계	2.62	4.70	7.32	2.16	.14	.81	1.68	1.76	.92	1.00	1.03	1.03	1.14	3.05	4.47	7.52	2.06	.53	.83	1.69	1.68	.97	.96	.86	1.01	1.05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2.80	6.30	9.10	2.15	.10	.90	1.80	1.85	1.70	1.25	1.50	1.00	1.15	2.85	5.73	8.57	2.28	.27	.87	1.70	1.72	1.50	1.18	1.33	1.03	1.25
	여학	2.90	6.35	9.25	2.40	.05	1.05	1.80	1.95	1.70	1.45	1.25	1.10	1.30	3.30	6.18	9.48	2.45	.38	1.08	1.85	1.83	1.60	1.42	1.33	1.12	1.32

	생																											
	합계	2.85	6.33	9.17	2.28	.08	.98	1.80	1.90	1.70	1.35	1.37	1.05	1.23	3.08	5.95	9.03	2.36	.32	.98	1.77	1.78	1.55	1.30	1.32	1.07	1.29
합계	남학생	2.25	4.77	7.02	1.90	.03	.78	1.43	1.72	1.10	.92	1.03	1.00	.90	2.50	4.41	6.90	1.94	.27	.73	1.50	1.59	1.07	.88	.87	.99	.95
	여학생	2.71	5.29	8.00	2.16	.13	.93	1.66	1.86	1.21	1.14	1.07	1.04	1.13	3.12	5.00	8.12	2.13	.49	.97	1.66	1.70	1.22	1.06	1.02	1.01	1.12
	합계	2.47	5.02	7.49	2.03	.08	.85	1.54	1.78	1.16	1.03	1.05	1.02	1.01	2.79	4.69	7.48	2.03	.37	.85	1.57	1.65	1.14	.97	.94	1.00	1.03

A와 B 서사표현능력 점수 통계표

			인물의 성격			인물의 행동			인물관계와 사건의 연계			중심사건			개연성			구성능력			사건 전개의 일관성			서술 시점의 일관성			표현 방식의 적절성		
			인물의 성격이 드러나 있지 않다.	인물의 성격을 간단하게 제시한다.	인물의 성격을 인물이 처한 상황과 관계에서 제시한다.	인물의 행동에 일관성이 없다.	인물의 성격은 드러나지 않지만, 행동 자체의 일관성은 있다	인물의 행동이 성격과 일치한다.	인물 사이의 관계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인물 사이의 관계는 구체적이나, 사건과의 관계 모호하다.	인물 사이의 관계가 사건과 연계되어 있다.	사건 자체가 드러나지 않는다.	중심 사건이 없다.	중심 사건이 잘 드러난다	인과 관계가 전혀 없다.	우연적이나 어느 정도 맥락에는 닿아 있다.	중심 사건의 구체적 원인이 제시되어 있다.	사건 전개가 구조화 되지 않았다.	사건 전개가 시간적 순서에 의해 이루어진다.	사건 전개가 논리적 인과 관계에 의해 이루어진다.	사건의 전개가 주제와는 별개로 이루어진다.	사건의 전개가 주제를 드러내는 정도가 미약하다.	사건의 전개가 주제를 잘 드러낸다.	시점의 혼란이 있다.	시점의 일관성이 있다.	시점을 적절히 활용하였다.	서술어에 일관성, 적절성 없다.	서술만으로 서사를 전개한다.	어휘 풍부하며, 서술과 묘사를 적절히 사용할 줄 안다.
초등학교 3학년	성별	남학생	18	1	2	8	13	0	9	8	4	1	12	8	4	15	2	11	9	1	10	11		1	20		11	10	
			85.7%	4.8%	9.5%	38.1%	61.9%	.0%	42.9%	38.1%	19.0%	4.8%	57.1%	38.1%	19.0%	71.4%	9.5%	52.4%	42.9%	4.8%	47.6%	52.4%		4.8%	95.2%		52.4%	47.6%	
		여학생	12	2	3	7	8	2	3	11	3	1	10	6	4	13	0	8	9	0	9	8		5	12		5	12	
			70.6%	11.8%	17.6%	41.2%	47.1%	11.8%	17.6%	64.7%	17.6%	5.9%	58.8%	35.3%	23.5%	76.5%	.0%	47.1%	52.9%	.0%	52.9%	47.1%		29.4%	70.6%		29.4%	70.6%	
	전체		30	3	5	15	21	2	12	19	7	2	22	14	8	28	2	19	18	1	19	19		6	32		16	22	

		78.9%	7.9%	13.2%	39.5%	55.3%	5.3%	31.6%	50.0%	18.4%	5.3%	57.9%	36.8%	21.1%	73.7%	5.3%	50.0%	47.4%	2.6%	50.0%	50.0%		15.8%	84.2%		42.1%	57.9%	
초등학교5학년	성별 남학생	21	2	0	8	15	0	4	5	14	0	10	13	7	13	3	10	13	0	12	8	3	0	23		3	20	0
		91.3%	8.7%	.0%	34.8%	65.2%	.0%	17.4%	21.7%	60.9%	.0%	43.5%	56.5%	30.4%	56.5%	13.0%	43.5%	56.5%	.0%	52.2%	34.8%	13.0%	.0%	100.0%		13.0%	87.0%	.0%
	여학생	12	3	1	3	10	3	0	2	14	1	2	13	1	14	1	2	13	1	3	11	2	1	15		2	13	1
		75.0%	18.8%	6.3%	18.8%	62.5%	18.8%	.0%	12.5%	87.5%	6.3%	12.5%	81.3%	6.3%	87.5%	6.3%	12.5%	81.3%	6.3%	18.8%	68.8%	12.5%	6.3%	93.8%		12.5%	81.3%	6.3%
	전체	33	5	1	11	25	3	4	7	28	1	12	26	8	27	4	12	26	1	15	19	5	1	38		5	33	1
		84.6%	12.8%	2.6%	28.2%	64.1%	7.7%	10.3%	17.9%	71.8%	2.6%	30.8%	66.7%	20.5%	69.2%	10.3%	30.8%	66.7%	2.6%	38.5%	48.7%	12.8%	2.6%	97.4%		12.8%	84.6%	2.6%
중학교1학년	성별 남학생	28	7	4	14	23	2	1	9	29		15	24	12	21	6	6	29	4	15	19	5	2	36	1	4	33	2
		71.8%	17.9%	10.3%	35.9%	59.0%	5.1%	2.6%	23.1%	74.4%		38.5%	61.5%	30.8%	53.8%	15.4%	15.4%	74.4%	10.3%	38.5%	48.7%	12.8%	5.1%	92.3%	2.6%	10.3%	84.6%	5.1%
	여학생	17	16	5	8	23	7	2	9	27		10	28	6	22	10	7	25	6	9	21	8	1	34	3	4	24	10
		44.7%	42.1%	13.2%	21.1%	60.5%	18.4%	5.3%	23.7%	71.1%		26.3%	73.7%	15.8%	57.9%	26.3%	18.4%	65.8%	15.8%	23.7%	55.3%	21.1%	2.6%	89.5%	7.9%	10.5%	63.2%	26.3%
	전체	45	23	9	22	46	9	3	18	56		25	52	18	43	16	13	54	10	24	40	13	3	70	4	8	57	12
		58.4%	29.9%	11.7%	28.6%	59.7%	11.7%	3.9%	23.4%	72.7%		32.5%	67.5%	23.4%	55.8%	20.8%	16.9%	70.1%	13.0%	31.2%	51.9%	16.9%	3.9%	90.9%	5.2%	10.4%	74.0%	15.6%
고등학교2학년	성별 남학생	32	5	3	6	33	1	2	8	30	1	9	30	3	14	23	5	23	12	5	17	18	1	37	2	1	28	11
		80.0%	12.5%	7.5%	15.0%	82.5%	2.5%	5.0%	20.0%	75.0%	2.5%	22.5%	75.0%	7.5%	35.0%	57.5%	12.5%	57.5%	30.0%	12.5%	42.5%	45.0%	2.5%	92.5%	5.0%	2.5%	70.0%	27.5%
	여학생	26	13	1	2	33	5	1	4	35	0	7	33	0	16	24	1	21	18	4	19	17	0	35	5	0	27	13
		65.0%	32.5%	2.5%	5.0%	82.5%	12.5%	2.5%	10.0%	87.5%	.0%	17.5%	82.5%	.0%	40.0%	60.0%	2.5%	52.5%	45.0%	10.0%	47.5%	42.5%	.0%	87.5%	12.5%	.0%	67.5%	32.5%
	전체	58	18	4	8	66	6	3	12	65	1	16	63	3	30	47	6	44	30	9	36	35	1	72	7	1	55	24
		72.5%	22.5%	5.0%	10.0%	82.5%	7.5%	3.8%	15.0%	81.3%	1.3%	20.0%	78.8%	3.8%	37.5%	58.8%	7.5%	55.0%	37.5%	11.3%	45.0%	43.8%	1.3%	90.0%	8.8%	1.3%	68.8%	30.0%

부록 - A

(　　)학교　(　　)학년　(　　) 반　성명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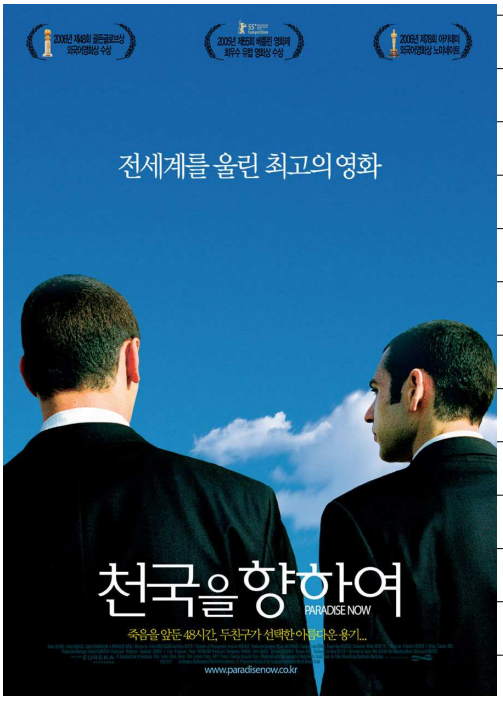
※다음 인물들의 관계를 설정한 다음, 한편의 이야기로 만들어보자.

희　찬　　진　수　　동　미　　아　름

부록 - B

(　　)학교 (　　)학년(　　)반　　성명(　　)

※ 다음 포스터를 보고 이 영화는 어떤 내용의 영화일지 상상하여 이야기를 만들어 봅시다.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국어교육전공	학 번	20068027	과 정	석사
성 명	한글: 추효정	한문: 秋孝貞	영문: Chu, hyo-Jeong		
주 소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2동 무등2차 203동 1610호				
연락처	010-4470-6939	E-MAIL: hera-chj@nate.com			
논문제목	한글 : 서사표현능력 발달단계 연구 영문 : A Study on Developmental Stage of narrative Expressive Ability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2009년 월 일

저작자: 추 효 정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